

종범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꿈에서 깨면
중생과 부처 둘 아닌 하나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2월 10일) · 주간

제1029호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다.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합동차례 증가 新 명절 풍속도

전국 주요사찰 합동차례 매년 10% 늘어

"설 연휴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명절 쇠는 것도 힘들고, 집안이 모두 불교다 보니 인근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떠나려구요."

결혼 3년차인 강 모(32)씨는 모처럼 직장에서 얻은 1주일간의 꿀 같은 설 연휴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매년 지내왔던 차례는 아침 일찍 조상 위패를 모신 사찰에서 지내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젊은세대의 맞벌이 문화와 명절을 여가생활로 즐기는 문화가 겹치며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설 합동차례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설 합동차례 동참가정이 2012년 719가구에서 2013년 776가구, 2014년 847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도 2012년 2253가구에서 2013년 2456가구, 2014년 2667가구로 증가했으며, 강북의 화계사도 2012년 245가구에서 2013년 265가구, 2014년 284가구로 증가했다.

봉은사의 경우 늘어난 합동차례 인원으로 2014년부터는 설 당일날 3차에 걸쳐 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아침 일찍 지내는 1차 차례가 가장 인기가 높다"며 "처음 올린 제수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차례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

지역도 증가세, 귀향객 인기

지역에서는 서울과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설에서 지내는 합동차례가 인기다. 전북지역의 경우 완주 송광사는 스님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함께 떡국을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양 후에는 스님들과 함께 참석 가족들이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는 어울림 마당도 이어진다. 귀향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 완주에 위치해 있지만 지난 추석 때는 100여 명이 찾았다.

부산지역의 경우 삼광사는 2013년 극락전 불사 이후 설 합동차례 인원이 매년 40%가량 늘고 있다. 조상 위패를 모신 원찰 개념이 강해지며 귀향객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삼광사 윤정 주임은 "부모님들이 다니던 절이란 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 위패를 모시고 합동차례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돌봄도 필요

이러한 사찰 차례의 증가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단순히 사찰이 차례를 대행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불교적으로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받는 이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남권 대표사찰인 서울 국

"사찰에 차례 미루나"
경계 · 지적의 목소리
가족 · 소외계층 보듬는
새로운 문화 선도 주문

제선센터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2013년부터 영등포경찰서와 협의해 탈북자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합동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김은옥 사무장은 "일반 불자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기에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더욱 늘었다"며 "차례 후 모두 함께 공양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차례를 올린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가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절동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사찰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은 "사찰은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차례와 함께 통알과 성불도 놀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친 교사들 산사서 쉼을 얻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 · 중등학교 담임교사 80명이 해남 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해남 미황사에서 '에듀힐링(삶의 휴) 연수' 를 진행했다. 교권 침해와 교직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는 12일부터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40명, 15일부터 이틀간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 제공=미황사

'승려복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조계종, 입원비 등 지원… 全 스님으로 확대

입원비 · 노인요양비부터 시작
건강보험 · 요양보험 4월 지원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시행
지속적 재정 확보 '당면 과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핵심과제인 '승려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 스님들은 올해부터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을 종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승려복지법' 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입원 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전 대상은 65세 이상 무소임 · 무소득 스님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종단 스님에게로 수혜가 확대됐다. 지원 인원은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외 CT, MRI 등의 진단료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한약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입원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체납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종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오는 4월부터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교구와 사찰은 소속 스님들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토록해야 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률은 95% 정도로, 이중 50~60%가 교구나 사찰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 부과 금액인 1인당 월 3만 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8%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려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가입율을 높이고 노후 안정제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원 금액을 2017년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승려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예산 수급이다. 현재 승보공양 등을 통해 모은 승려복지기금은 2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만 25억 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박종학 사무국장은 "현재 그간 승보공양운동을 통해 정기적 후원자가 1500명에 이른다"면서 "승보공양운동을 신행과 접목해 추진될 수 있도록 출가열반주간과 백중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했던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종단은 승려복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① 한국불교 종단 12·13

비구니 위상 증진 '싱크탱크' 문 열다

전국비구니회 15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원

비구니 승가의 위상 증진을 위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원융화합을 통해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구니승가연구소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을 당연직 소장으로 하고 종책위원회, 복지 ·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명우스님은 "50여 년 간 비구니 승가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개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종책과 복지, 교육, 포교, 인적교류방안의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비구니승가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평등과 상생의 시대를 새로이 열어가지 위해 비구니 승가의 성찰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진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향후 실천적 종책연구를 포함하여 세계 비구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계 비구니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구니 승가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포교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아젠다를 설정해서 연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자체 교육 추진… 독자 행보

이사회서 교육위 구성 결의, 석청 스님 감사 해임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체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가 구성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법인 등록 추진을 반발해 빚어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월 16일 서울 부암동 AW켄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행자교육원 개설과 운영, 계단 설치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법진스님을 비롯해 12명 이사 전원과 감사 원명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원 구성을 이사장과 총무 · 재무 · 교육이사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이른 시일 내 수계와 승가교육을 담당할 7~8인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라며 "재단사무처는 최근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 및 피교육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해놓고 이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석청 스님의 감사직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석청스님에 대한 해임 조치는 수덕사와 정암스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유권등기말소,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석청 스님이 재단 의사와 무관하게 1월 7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석청 스님의 해임에 따른 후임 감사에는 대전 심광사 주지 영은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했다' 는 제소에 따라 선학원 이사 정덕 · 한북 · 현보 스님에게는 멸빈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선학원 前 감사 석청스님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혜사 · 간월암 소송 취하 및 성보불법매각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정혜사와 간월암 민 · 형사 소송 취하는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민 · 형사 소송은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선학원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인 내 이름으로 도장을 새겨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학원 측은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른 시일 내 석청 스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시사했다.

신성민 기자

사 령

박아름
강정길
명) 수습기자 1월 26일

모집안내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마선원 강좌 및 수행결사

한국불교연구원은 보살되는 이치와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를 서원하여, 수행의 교리를 익히고 실천수행의 체계를 체득하기 위하여 **불교연구실**은 교리연찬의 전당으로, **열린유마선원**은 실천수행의 도량으로, **전국 구도회**는 보살행의 실천장소로 운영한다. 부처님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계정혜 삼학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한다.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실천하는 윤리인 행복론, 정학을 바르게 이해하여 실참하는 마음의 움직임인 유식, 생활의 지혜로 작용하는 중관으로 바른 보살도를 실천하게 한다.

◆ **열린유마선원 기초 · 전문과정 모집** (www.newbm.co.kr)
- 기 간 : 총 3년 (기초과정 2년, 전문과정 1년)
- 과 목 : 불교행복론, 유식, 중관, 어록 등 실천수행에 관한 기초 교리
- 시 간 : 오후반 (14:00~15:30, 90분) 저녁반 (19:00~20:30, 90분)
- 모 집 : 년 1회, 오후 · 저녁반 각 30명 (수강료 : 50만원, 분납 가능)
- 모집기간 : 2015년 1월 26일~2월 27일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실 (02-762-5624)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 (유마정사)
- 일 정

1학기			2학기		
3.4.5.6월	7월	8월	9.10.11.12월	1월	2월
불교 행복론 I	실참 (3박4일)	국내 문화탐방 (1박2일)	불교 행복론 II	단기출가 (3박4일) 1년차:십선계 2년차:보살계 3년차:대승출가보살인증	국외 문화탐방 (4박5일)
근본불교			중관불교		
부파불교			유식불교		

〈특징〉 - 실천수행에 필요한 교리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계정혜 삼학에서 출발하는 입문 · 교학 · 경론 · 실천의 4단계 과정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전문인의 점검과정이 있다.
- 삼귀의, 십선계, 보살계 등의 수계는 전통방식으로 한다.
- 재가보살의 정신을 함양하는 단기출가와 대승출가보살계 수계를 두고 있다.
- 모든 강의의 내용은 한국불교를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열린유마선원 수행결사 모집** (www.newbm.co.kr)

- 재가자 결사 : 觀佛결사, 淨業결사
  자 격 : 재가자 (누구나 가능)
  모집정원 : 각 20명 / 참가비 : 30만원
  모집기간 : 차후 공고 (7월 예정)
  결 사 : 2015년 8월 14일부터 (예정)
- 출가자 결사 : 觀經결사
  자 격 : 비구니
  모집정원 : 각 10명(산철) / 참가비 : 없음
  모집기간 : 차후공고 (9월 예정)
  결 사 : 2015년 10월 12일부터 (예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마선원 종무소 (031-761-6169)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유마정사)
- 일 정

연도	2014년	2015년											
음력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동안거				하안거								
	10.15 (결제)	← 안거중 →		1.15 (해제)	(산철)		4.15 (결제)	← 안거중 →		7.15 (해제)	(산철)		10.15 (결제)
양력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불							정업				
					관경						관경		

〈특징〉 - 재가자 수행결사는 4박 5일간 결사의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 출가자 수행결사는 14박 15일간 산철에 행하며, 경론 강독을 집중으로 한다.
- 결사의 내용, 순서, 단계 등은 경전과 문헌에 근거한다.
- 열린유마선원의 청규에 따라 수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원장 · 열린유마선원장

"구인사 개산 70주년 대중불교에 매진"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1월 16일 신년 기자회견

대장경 판각불사 추진
장경각 건립 불사 계획
명상포교 프로그램 강화
어플로 사찰행사 생방송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 천태종도 총본산인 구인사가 개산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국제학술대회와 음악제, 역사 기록특별전, 개산 70년사 기록물 간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구인사 창건의 의미를 알릴 계획입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사진〉은 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춘광 스님은 "총본산 중심제로 운영되는 천태종 상황으로 보면 개산 70주년은 매우 큰 경사이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구인사와 천태종을 동시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춘광 스님은 구인사 기념 행사에 대해 △국제학술대회(6월 19일~21일) △합창음악예술제(6월 19일, 단양 구인사) △상월원각대조사 일대기 교성곡 공연 및 합창제(10월 31일, 부산 삼광사) △구인사 역사기록 특별전(6월 20일~7월) △천태종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불사 계획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춘광 스님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장경판을 제조했듯이 천태종도 국운융창을 위해 우선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부터 2년 정도 계획으로 28품을 전통 대장경판본 그대로 판각하는 불사를 올 상반기중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양면으로 펼치면 120~130장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에 전문가들을 보내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기적으로 팔만대장경 전체를 판각하는 대규모 불사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구인사 경내 도서관 자리에 일체의 경전을 봉안하는 장경각도 건립할 것입니다."

이어 춘광 스님은 선센터와 명상포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단양에 건립중인 천태종 국제선원과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컨텐츠가 필요한 상태이지요. 이에 청주 명장사와 논산 금강대 국제선원과 연계해 명상 상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광사에 (사)행복명상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지자대사 지관법을 초심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응용한 대중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 포교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춘광 스님은 "2월부터는 앱만 다운 받으면 구인사, 관문사 등 천태종 주요 큰 사찰 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단 기관지인 금강신문 전용앱을 통해 종단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일 기자

"내년 창종 70년위한 새불교운동 전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

4대 지표 14대 과제 발표
전 진언행자 포교사화 운동
가족중심 교화확대 강화



내년에 창종 7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 진각종이 토대마련의 일환으로 올 한해 진각새불교운동을 펼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관 4층 대회의실서 올해 4대 종책지표와 14대 지표별 과제를 발표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창종 70년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진각종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진각 100년 및 그 이후의 비전을 심도깊게 구상해야 될 때"라며 "올 종책목표를 '진각 70년, 제 2기 진각새불교운동의 토대 마련' 으로 정해 새불교운동의 의미를 확실히 정립하고 전 진언행자가 포교사가 되도록 교화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교화역량 확대를 골자로 4대 지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각새불교운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신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의식을 강화해 포교 역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지난해 교구포교사제를 신설한 진각종은 올해 자성동이 및 청소년 포교사, 국제포교사 등 연령 · 직능별 포교사를 세분화해 전 신도가 포교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전략으로 가족 결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족 중심 교화를 펼친 진각종은 '가족' 개념을 혈연서 인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 관리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효 사상 선양 위해 위패전 설치 △심인당별 상조회 운영 △신도 노후봉양시설 수용 확대 등도 전개한다.

회정 통리원장은 "가족불교는 종조때부터 진각종 핵심 사상이었다"며 "진각가족 결연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대학생 대상 회당장학제도 개선, 관혼상제와 관련한 상조회 활성화와 조상을 모시는 추복전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상 위패를 모시는 추복전은 진각문화전승관 뒤편에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회정 통리원장은 4대 종책지표로 △진각 70년사 정리(책자 발간 예정) △교화조직 및 환경 혁신 △진언행자 결집 및 의식 재무장 △시대 교화역량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14대 과제는 △진각 70년사 정리 △진각 천년의 비전마련 △종무조직 혁신 △신교도 재원의 교화적 활동 확대 △신행활동 혁신 △교구활성화 및 특성화 △신규 심인당 설립 △종무행정 의사소통 체계 개선 △전 진언행자 포교사화 기초 마련 △진각 가족 결연 확대 △다양한 신행문화행사 개발 △스마트 포교 △소통과 나눔의 정신 사회적 공유 △지역교화영역 확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천안 이어 올해는 동탄, 평택,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지역에 심인당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북불교 교류와 관련해 회정 통리원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평양에서 공동 법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실천이 본래 마음을 빛나게 한다"

종단협, 1월 16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15 신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을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년하례 · 축원 · 법어 · 인사 ·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내 주장을 비우면 전도된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욕심을 버릴 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부회장 회정 정사도 신년 인사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 한해도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데 진력을 다해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화하고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신년 발원을 통해 공생의 세상이 도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사진은 법회 직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승가교육 심화 · 확대시켜갈 것"

교육원장 현응 스님,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혜 · 자비 구현위한 교육' 강조
표준교육과정 개편 · 학점제 추진
학인 외국어 스피치 경연 개최
교육 행정 전산화로 효율 높여

조계종 7대 교육원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승가교육 혁신 사업을 심화 ·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승가대학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4급 승가고시 전산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스님은 교육원의 운영 기조로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교육' 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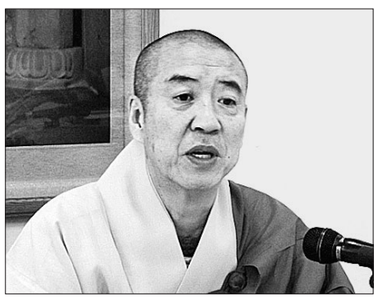
현응 스님은 "지난 5년 간 교육원이 추진한 각종 승가교육 사업이 현대적 승가상 구현에 있었다면 향후 5년간 열어가고자 하는 교육원의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심화 · 확대하는 데 있다"며 "각종 사업은 최종적으로 불교의 양대 덕목인 '지혜' 와 '자비' 로 회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승가대학 교육과정 변화다. 교육원은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을 36과목에서 34과목으로 조정하고,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한다. 또 교육행정 서류철을 간소화하고 연 2회 학장스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종책에 반영한다.

교육기관 학점제도 추진된다. 그간 개별 교수사 스님들의 코멘트에 의존했던 평가가 아닌 학점제를 도입해 교육 평가의 내실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학점제는 학인 스님들의 교과 이수 순서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사 운영에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법하고 품위있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청규, 불교윤리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선원수좌회가 편찬한 '조계종 선원청규' 와 종단쇄신위원회가 성안한 '조계종 청규' 를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전산화를 통한 행정 ·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사업도 눈길을 끈다. 교육원은 2016년부터 4급 승가고시를 전산화해 접수, 채점, 사정 등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출가 △연수 △이러닝 학습센터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1월 중 개설한다.

지난해 종단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학인염불시연대회는 격년으로 치르고, 올해는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 를 개최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종단 사상 처음 열리는 학인 대상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5분간 설법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 경 열린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 창종 50주년 법회 10월 7일 봉행

다큐 제작 등 사업 추진

관음종이 올해 창종 50주년을 맞아 10월 7일 기념 대법회를 연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월 15일 총본산 종로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서 중앙종회를 열고 10월 7일 오후 2시 동국대와 장충체육관 인근서 '창종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종회서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관음종 50년사 정리 다큐멘터리 제작 △관음종 법맥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연구논문 수록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 △종단사 제작(이승만 박사 왜색불교 타파 교시 발표이후 관음종 창종 역사적 배경 등 기록과 사진 수록) 등이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안거제도 시행(연수교육) △해외포교 (라오스 라오코리안대학 자매결연 추진 예정) △종단 및 말사 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 또는 간담회 △주말법회 시행 등 9가지 세부 종책도 발표했다

한편 관음종은 올해 예산으로 총 47억 1천만원을 의결했으며, 사업계획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학교 109년 역사에 슈퍼 갑질 웬말인가?

■ 최고위 승려들의 슈퍼땅콩 갑질

109주년 역사의 모교 동국대학교가 대한불교조계종 수뇌부 5명의 승려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 일면 호계원장(동국대 법인이사 겸임), 현응 교육원장, 지원 포교원장, 성문 중앙종회의장은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임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김희옥 현 총장(1순위), 한보광 불교대 교수스님(2순위), 조의연 영문과 교수(3순위) 중에서 이사회 의결(2014.12.16)을 거쳐 선임하는 민주적, 자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2014년12월11일 코리아나호텔 오찬에 김총장과 김정년 재단 이사장을 불러 놓고 "한보광 스님을 차기 총장으로 시킬테니 (김)총장님은 쉬시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김총장과 조교수는 사퇴하였고 한보광 후보만 남겨 놓고 총장선임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 도약하는 동국대학교의 위기

25만 동문들과 재직 교수/교직원, 양식 있는 고승대덕 스님들과 불자들은 이런 폭거에 경악하면서 전국대학 종합평가 10위 내 진입을 눈앞에 두고 (※2010년 17위, 2012/13년 13위, 2014년 11위로 상승 중)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동국대학교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등 동국인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과 △민주 · 자주적 총장 선임 절차 재개 △승려위주 재단 이사진의 개편 등을 강력 요구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다섯 수뇌부 승려들은 묵묵부답으로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 "논문 표절 교수가 대학총장이라니?"

-. 조계종 총무원 다섯 중직 승려들과 한보광은 참회하고 사과하라.
-. 동국대학교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
-. 한보광 후보는 최근 불거진 30여편의 논문표절 의혹을 시인하고 네 번째 시도하는 "총장 자리의 병"에서 벗어나라.
-. 슈퍼갑질 5인방에 가담한 일면 동국대 법인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25만 동문들과 동국인들은 불법 부당한 총무원의 교권유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10대, 세계 100위권 대학의 꿈을 이루고 3대 사학의 전통과 자부심을 사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1. 22

동국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운 영 합장

[학과/대학] 국어국문학과동창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 일어일문학과동창회 사학과동창회 철학과동창회 윤리문화학과동창회 수학과동창회 물리학과동창회 화학과동창회 통계학과동창회 법학과동창회 정치외교학과동창회 행정학과동창회 북한학과동창회 경제학과동창회 국제통상학과동창회 사회학과동창회 경찰행정학과동창회 경영학과동창회 회계학과동창회 농학과동창회 생물학과동창회 임학과동창회 식품공학과동창회 농업경제학과동창회 건축학과동창회 컴퓨터공학과동창회 정보통신공학과동창회 전자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 화학공학과동창회 산업공학과동창회 교육학과동창회 국어교육과동창회 역사교육과동창회 지리교육과동창회 가정교육과동창회 체육교육과동창회 연극영화학과동창회 미술학과동창회 한의과대학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 행정대학원동창회 교육대학원동창회 언론정보대학원동창회 문화예술대학원동창회 국제정보대학원동창회 불교문화대학원동창회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지역]** 직할경주동창회 부산광역시동창회 인천광역시동창회 대구경북동창회 대전충남동창회 광주전남동창회 경남동창회 전북전주동창회 충북청주동창회 제주동창회 강남서초동창회 강동구동창회 강서구동창회 고양시동창회 구리남양주동창회 성남시동창회 수원시동창회 용인시동창회 하남시동창회 **[해외]** 미국뉴욕동창회 미국남가주동문회 미국LA동창회 미국텍사스동창회 카나다동창회 중국북경동창회 중국상해동창회 중국천진동창회 중국청도동창회 **[직능/친목]** ROTC동창회 4.19혁명동지회 6.3동지회 71동법회 공인회계사동우회 교육방송국동창회 구능동우회 근로장학사동문회 동국59회 동국7080회 동국산악회 동국오너스클럽 동국조각회 동금회 동대신문사동인회 Dongguk Post(영자신문)동인회 동악회 동의회 마당회 상수회 수요산악회 서울중등학교관리자동창회 야구부동창회 혜동회 축구OB회 야구OB회 농구OB회 레슬링OB회 외

이 광고는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금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25만 동문, 불교계 사부대중들의 동참과 격려를 호소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81990 이운영 (동국비대위)

쌍용차 노사 대화 물꼬
노동위 "다행 또 다행"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교섭이 2천71일, 즉 5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쌍용차 노사가 1월 21일 정리 · 징계 해고자 등에 관한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에서도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노동위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고 또 다행"이라며 "복직 교섭 결말이 설날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쌍용차 정리해고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커다란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했던 업이었다"며 "정리 · 징계 해고자 187명과 114억 규모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정리해고 이후 숨진 26명 노동자에 대한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등 4가지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실무교섭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해고자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해고자는 노사 갈등에 대한 사측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생명윤리협
원전해체硏 설립

생명존중 국제세미나 추진도

올해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의 움직임이 바빠질 전망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원전해체기술연구소겸 대학원 설립 추진, 생명존중국제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불교생명학교 운영, 불교생명윤리협회 회원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탈원전 운동을 펼쳐온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이번해도 관련 활동을 이어나간다. 협회는 원전해체연구소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원 설립구상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대학원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이외에도 생명존중국제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생명학교를 개설, 자비와 생명부터 채식, 동물복지, 탈핵과 관련한 생명윤리 등 불교생명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월정사와 직지사 등에서 월 1회 개최된다.

배현진 기자

"출재가 함께 보살도 행해요"

40주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 '신불교 운동' 선포

"출 · 재가 열린 조직 개편"
출가 관경 · 재가 관불 결사
유마정사는 실참 공간 변경



한국불교연구원 40년을 기념한 신불교운동 선포식에서 리영자 원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연구실장 태경 스님(사진 네번째)등 임원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공동연구 · 공동수행 · 공동참여를 기치로 한 사부대중의 새로운 결사운동이 전개된다. 40년간 재가불교운동을 펼쳐온 한국불교연구원이 전개하는 새 결사 '신불교운동' 이 그것이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1월 21일 서울 연구원 법당에서 공동 연구, 공동수행, 공동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신불교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신불교운동' 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수행하며, 바르게 행함으로써 대승보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실장에 태경 스님이 위촉됐다.

'신불교운동' 전개를 위해 그동안 전국구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불교연구원은 열린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운영체계를 불교연구실, 열린유마선원, 전국구도회로 분리해 연구와 수행, 사회참여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원 불교연구실은 공동연구의 장으로 개방한다. 기존의 〈불교연구〉 학회지 발간을 이어가는 한편 실참에 필요한 2년 기초과정과 1년 전문과정의 강좌가 개설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련시설에 불과했던 광주 유마정사를 열린유마선원으로 전환해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선원장을 선임하고, 교리연찬 과목을 수강한 불자들이 이를 실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유마선원의 특징은 출자가와 재가자의 결사 방법이 다른 점이다. 유마선원에서는 재가자 결사는 관불결사와 정업결사로 입재는 법화삼매참법, 회향은 화엄정행결사로 진행된다. 출가자 결사는 관경결사로 전통방식으로 산철기간 경론을 간경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단기출가과정도 함께 개설된다.

40년 간 한국불교연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전국구도회는 청년조직인 문수회가 더해져 대승보살실참회로 확대된다. 대승보살실참회 산하에는 서울 · 대구 · 부산 · 대전구도회를 비롯해 문수회, 교사불자회, 무량감로회, 연화회, 지장회로 구성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청년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한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도회가 이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자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이기영 박사의 원력을 계승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수행하며, 바르게 행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출재가가 모두 행복한 불교적 삶을 현실화하는 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기복불교와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자들의 신행불교, 지성불교를 기치로 이기영 박사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산하에 서울구도회(74년), 대구구도회(76년), 부산구도회(77년), 대전구도회(99년)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소년 법회용 미디어 콘텐츠 보급한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법회용 종합 미디어 콘텐츠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어린이 · 청소년 법회용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청소년 법회 운영사찰과 학교에 보급한다.

포교원이 개발한 콘텐츠는 △청소년 법회용 종합 미디어 콘텐츠 △꿈을 찾아가는 선재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이다.

청소년 법회용 종합미디어 콘텐츠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교문화, 신행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자기 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다.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는 육바라밀을 주제로 역경극복을 통한 자기 성장 그리고 나눔의 감동을 담은 UCC 동영상을 담고 있다. 또한 '꿈을 찾아가는 선재' 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오는 2월 선재의 7개 스토리를 플래시무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포교원이 보급하는 '꿈을 찾아가는 선재' 콘텐츠 DVD 표지.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 톡' 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 이모티콘으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이다. 동자승 '반야' 와 친구 '절냥이' 의 행복 이야기를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포교원은 청소년포교 홈페이지(www.sunjae.or.kr)를 개설해 육바라밀 UCC, 선재 애니메이션 및 포교 디지털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 권진영 동대부속여고 교법사와 권주미 학생(극동대 미디어 콘텐츠과) 등이 참여했다"며 "포교원은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및 교보재를 계속 계발 보급해 청소년 포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법회와 설법' E-Book으로 복간

조계종 포교원, 전자 메일로 올해부터 일선 제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전국사찰 조계종 스님들에게 매월 이메일로 설법문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포교원은 "앞으로 매월 설법문안 3가지 이상을 메일로 스님들께 발송할 예정이며 특별법회 진행 매뉴얼과 유용한 포교 자료 등을 제공해 법회 및 포교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1995년부터 월간 〈법회와 설법〉을 간행해 유료로 보급해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웹진 법회와 설법(www.jogyebook.com)' 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며 2011년 1월 이후 잠정적으로 발간을 중단한 상태였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사찰에서 월간 〈법회와 설법〉의 복간을 요구해와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한 개방형 이북(e-book) 형태로 〈법회와 설법〉을 간행해 보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book 〈법회와 설법〉은 매월 시기와 중요사안에 맞춰 전자 북 형태로 설법 문안을 제공한다. 또한 설법자료를 '아래 한글' 로 제공해 설법 및 행사 진행시 상황에 맞게 가공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라도 비용 지불 없이 받아 볼 수 있으며 설법문안 뿐 아니라 특별법회 진행 매뉴얼과 각종 발원문도 제공한다. 설법문안을 받아보려면 메일 주소를 포교원에 알려주면 된다. (02)2011-1892~4

이나은 기자



낙단보 마애불 관리를 맡은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마애불 주변의 성역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낙단보 마애불' 신행 공간 없어지나

마애사 주지 원종스님, 22일 기자회견… "성역화 필요하다"

2010년 4대강 사업 낙단보 구간에서 발견된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경북 유형문화재 제432호)의 신행공간이 철거 위기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임명해 마애불을 의성 마애사(주지 원종)는 1월 22일 마애불 옆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시설물 철거요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성 마애사는 낙단보 마애불 관리를 위한 임시 법당으로 주지 원종 스님은 불자와 국민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과 불단을 조성해왔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마애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낙단보 마애불 음악회' 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마애사의 철거를 요구하며 유일한 신행공간은 위기를 맞았다. 철거를 요구하는 공간은 국토교통부 관할 부지 300여 평. 이 자리는 발견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이 1080배를 봉행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자리고 국토부 역시 마애불 정비와 성역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낙단보관리사무소는 '기도시설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 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주지 원종 "현재 있는 시설물은 종교 행사 및 부처님 참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강제 철거를 명령하는 처사는 명백한 종교탄압적 발상"이라면서 "마애불 발견 당시 종단과 정부에서 약속한 마애불 성역화 불사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오늘부터 10만배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원종 스님은 최상준 낙단보 관리소장, 고두석 4대강관리팀장, 서용환 의성군의회 의원, 김영한 의성군 문화재관리과장 등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공고

「종헌종법 제46조 2항 제①항 총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의거 **총무부장 영빈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출시까지 총무원장 대행함을 공고합니다.**

12월 8일 확대간부(종회의회)회의를 통해 법인이사회에서 후임 총무원장 선임방법과 투표방법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12월 23일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종도들을 배제하고,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대행을 선임 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정무불스님은 교시도 아닌 교지를 통해 종회를 해산하고 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승인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원장권한대행으로 선임된 묘각스님은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종단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전임 간부스님들과 여러 종도스님들을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종행위로 간주하여 제적처리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으로 선임된 총무원장권한대행 묘각스님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선임되었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2015년 1월 5일 임명된 감찰원장 종호(상묵)스님, 종정사서실장 현각스님, 재무부장 혜연스님, 1월14일 임명된 포교원장 고봉스님, 사회부장 성진스님은 종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월 20일 스님 17명에 대한 제적공고 또한 제적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기에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이후 묘각스님의 종무 행정에 관한 어떠한 결론도 인정할 수 없음을 공고 합니다. 묘각스님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법인정관에 명시된 제3장 임원법과 제4장 총회법에 의거 총회를 거치지 않은 법인이사는 법인이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정관 개정 또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종도 여러분!

묘각스님의 독선적인 파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종호(상묵, 김상대)스님이 본 종단에 입종 보름만에 원로스님을 비롯한 17명의 스님을 제적 처리하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도스님들은 일심 단결하여 종단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중앙종의회구성 및 원구성, 총무원장후보 및 선거일정등은 추후(2월 3일)에 공고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영빈

일 주 문



장병 및 군인가족 수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2월 8일 육군 1891부대 무극사에서 장병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은 2월 1일 학담선원 원장 학담 스님, 3월 1일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초청 선지식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고양시 조계종 주지협의회장

고양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은 1월 22일 일산 여래사에서 열린 고양시 조계종 주지협의회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새해맞이 법주사 참배

불교여성개발원 박순 원장은 1월 24~2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2백여 회원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 새로운 여성불교운동을 발원했다.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도안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15대 종무원장 도안 스님과 부원장 덕해 스님의 취임법회가 1월 17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제15대 종무원장에 취임한 도안 스님은 "15대 집행부는 냉철하고 엄정하게 승가본분인 화합중이 되도록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임 행사에는 축하화환 대신 기탁받은 쌀 1,260Kg, 현금 302만원을 청주시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前이사장 별세

부산 홍법사 창건주이자 불심홍법원 하도명화 前이사장이 별세했다. 1월 20일 향년 93세. 빈소는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5시 동아대 병원에서 엄수됐다. 이어 홍법사에서 노제 및 불교의식을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거행했으며 영락공원에서 다비를 진행했다. 하도명화 전 이사장의 49재는 홍법사에서 3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봉행된다. **하성미 기자**

보현의 집, 이기표 원장 별세

부산 보현의 집 이기표 원장이 별세했다. 1월20일 향년 57세. 장례식은 부산 침례병원 61호실에서 진행됐으며 발인은 1월 22일에 엄수됐다.

故이기표 원장은 15년간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원장을 역임하며 노숙자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 활동에 매진해왔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불교 활동에 이바지 해왔다. **하성미 기자**

"시대에 맞게 도량 일신 진력"

남판우 봉은사 신임 신도회장



1월 17일 취임 넓은 인맥 장점
"불사 통해 젊은층 포섭을"
부회장 16명 등 신도조직 쇄신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를 이끌어 갈 새 신도회가 구성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1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남판우 신임 신도회장(법명 우화, NY파트너 영종도 복합리조트 회장)과 이경규 부회장(방송인)을 비롯한 2015신임 신도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남판우 신도회장은 1,200년 고찰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은사가 어떤 절입니까? 신라 때 창건된 역사와 전통의 고찰이 아닙니까. 북쪽으로 경기고부터 남쪽으로 현대백화점 자리, 서쪽 끝 선정능에서 동쪽 탄천까지가 다 봉은사 터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사실상 현재 몸통만 남은 것이 봉은사"라며 "도량일신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신도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젊은 연예인이 묻기를 '오래된 봉은사' 라고 하던데 50년 정도 되었느냐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며 "역사와 전통에만 기대고 있으면 젊은 층에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길 하나 사이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매일 국제회의가 수시로 열립니다. 이런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를 청정도량으로 시대에 맞게 가꾸고 단장하는 것이 또 다른 공덕일 것입니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2008년 재단법인 조용필장학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2011년 조계사 고문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NYpartners 영종도복합리조트 회장으로 있으며 매일 참선수행을 해오는 독실한 불자다.

남 신도회장은 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따르고 자비와 광명을 베푸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며 "자비심을 내어 주위 소외계층을 돌보고 도량을 가꾸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주지 원학 스님은 남판우 회장, 민병련 사무총장, 방송인 이경규 씨 등 부회장 16명과 감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발대식에서는 탤런트 이숙 씨 등 14명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기도 했다.

원학 스님은 "신도회가 중심이 돼 주인의식을 갖고 발전에 임해달라"며 "신도회는 또한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조직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이끄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규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및 홍보대사는 "종립 동국대 출신으로 모든 것은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며 "방송계에서 화를 잘 낸다고 해 '버럭' 으로 불리는데 이제는 '자비' 로 불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제포교사 유대 강화토록 노력할 것"

신외균 제9대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



정기 수행활동 모임 등 만들어
내부결속 강화하는 게 목표
프로그램 공모… 포교 풍부히 할 것

"국제포교사회원들이 외국인 포교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외균 제9대 국제포교사 신임회장(사진)은 올해 국제포교사회의 사업 계획을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2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이 · 취임식에서 제9대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회장은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제포교사들 간 정기적인 수행활동을 통해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 회장은 "개인적 발원으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결속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월 첫째 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영어법회를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 참선 · 염불반 등을 만들어 회원들이 원하는 수행을 하고 체험담을 나눔으로써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비영리문화법인인 문화나눔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포교사회 내에서 사업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해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업계획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제포교사는 오는 9월 열리는 나란다축제에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 계획도 갖고 있다.

개신교 신자였던 신 회장은 불자였던 모친이 2004년 돌아가시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모친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면서 염불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 이후 불광사 신도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주재원 시절 동남아시아, 미국 등에서 생활한 경험을 살려 국제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해 2010년 제14기 국제포교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신 회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108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적 신행활동도 열심히 하며 국제포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탄신법요 성료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3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1월 18일 오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21세기 천태종풍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 또 정진하고, 대한민국 국운이 융창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육군훈련소 을미년 첫 수계법회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을미년 첫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수계사로 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허현구 군승 등 현역 군승 7명과 충남 포교사단 포교사 15명이 동참했으며, 훈련장병 3,600여명이 수계받았다.

노덕현 기자

혜원정사,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1월 20일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경내에서 개최했다. 매년 3회 열리는 혜원정사 바자회는 10년 동안 꾸준히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행단체 대표 진갑선 단장은 "구매자는 좋은 물건을 사서 좋고, 판매 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자회는 모두를 위한 행복의 자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바자회로 모은 성금은 1000만원으로 장학금, 불우소외이웃돕기 및 혜원정사 산하 복지관에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불교학과 신입생은 통신반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5.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2. 22(월) ~ 2015. 2. 9(월)	• 총무원 교무부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5. 2. 10(화)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5. 2. 12(목) 10:00 ~ 16:00	• 전승관1층 강당
합격자 발표	2015. 2. 13(금)	• 개별통지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총무원 교무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접수 2. 접수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 T.(02)739-3450 내선101

Ⅵ. 전형료

불교학과_범패학과 : 50,000원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
www.taego.kr
120-15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02)739-3450 FAX:02)739-3470

“비만·동맥경화… 현대인 병, 사찰음식으로 치유해요”

선재 스님 등 전문가 16명 음식 선보여
어린이뮤지컬·유명쉐프 강연 등 호응
박원순 시장 “삶의 지혜 담겨” 감사인사
佛 트로숑 교수 “사찰음식 내요리 기반”



법룡사 로비에 마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찰음식전시전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 대중들이 선재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전시전에는 선재 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스님들이 몸에 좋은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뮤지컬과 바라춤 공연 등도 펼쳐졌다.



전시전에는 500여 시민들이 찾아 사찰음식의 지혜를 얻어갔다.



17일에는 프랑스 쉐프 트로숑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월 18일 전국비구니회관서 사찰음식 특화사찰 지정 기념전 열려

“이 행사가 사찰음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익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음식이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건강을 위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인 Anja Reimann 씨(20대 여성)

“미역검정깨웅심이, 돗두부들깨무침 등 집에서 만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간이 심심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집에서조차 짜게먹고 있음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원미숙 씨(50대 주부)

고층 아파트 사이의 한 도심 사찰에 마련된 사찰음식전을 둘러본 참가자들의 찬사가 이어진다. 제철음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삶을 바꾸자는 사찰음식전 ‘음식은 생명’의 자리에서는 500여 시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1월 17~1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이 있는 법룡사에서는 사찰음식 특화사찰 지정을 기념해 사찰음식 대가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음식전을 마련했다. ‘음식은 생명’을 주제로 이틀동안 법룡사에서는 전시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찰음식 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프랑스 유명쉐프 강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전시회에는 선재 스님과 사찰음식을 전수받은 1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질병예방을 위한 사찰음식전’을 주제로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을 대중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스님들은 여러가지 질병치유에 효과적인 사찰음식을 내놓았다. 먼저 선재 스님은 겨울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현미무죽, 연근파래무침, 배추버섯밥, 단호박된장국수 등의 하루 밥상을 소개했다. 이어 정원 스님은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사찰음식인 메밀미나리전과 순무김치를 선보였고, 동맥경화에 좋은 단호박견과류 무침과 청국장연극장떡을 중안 스님이 내놓았다. 통풍과 비만에 효과적인 치자두부구이와 곤양구이율무밥을 차려낸 현담 스님과 감기와 기관지 효험이 있다며 배도라지탕과 더덕잣배즙무침을 선보인 법정 스님도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외 아토피, 당뇨, 노화예방, 갱년기, 골다공증 등 온갖 성인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찰음식 모델들이 전시돼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인 강난희 씨와 함께 참여해 전시회를 둘러보고 함께 점심공양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 부부는 전시된 사찰음식들을 일일이 맛보는가하면, 직접 사찰음식을 촬영해 가기도 했다.

박 시장은 연차를 마시며 “이렇게 큰 연꽃을 우려내니 이토록 맛나고 아름다운 연차가 된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박 시장은 “비구니 스님들 덕분에 삶의 지혜를 배워간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부인 강 씨는 법룡사에서 선재 스님이 지도하는 사찰음식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기도 하다.

이날 자리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사찰음식을 준비한 비구니 스님들을 격려하며 대중들이 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명우 스님은 “사찰음식이 무엇보다도 모든 종교를 떠나서 바로 음식 자체가 우리의 음식에 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맛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음식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음식과 생명을 불교적 가르침으로 승화시킨 어린이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이 진행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명우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과 자녀를 동반한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뮤지컬에서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등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음식에 대한 불교의 시각을 쉽게 풀어냈다. 이와 함께 신나는 율동과 음악으로 조리과정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큰 박수를 받았다.

분당에서 온 이하영 씨는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어서 함께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뮤지컬이 진행된 후에는 이를 관람한 아이들이 김치떡볶이와 감자야채전 등 선재 스님의 지도 하에 요리된 ‘어린이 사찰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사찰음식전을 둘러본 정솔 양(인천 성지초 5학년)은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들이 많았다. 특히 김치떡볶이는 김치를 넣어 색다르고 살찌지 않는 느낌이었다”며 “평소 사찰음식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찰음식전을 보며 음식도 생명이며, 내 생명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심 속 사찰의 음식대향연.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어른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음식이 곧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에 앞서 17일에는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강연과 2011년 프랑스 최고의 요리장인으로 선정된 프랑스 에콜 페랑디 대학의 에릭 트로숑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에릭 트로숑 교수는 강연에서 “나의 요리세계의 기반은 한국의 사찰음식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은아 계명대 차문화연구소팀의 다례시연, 행범 스님의 천수바라춤과 나비춤도 선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수행”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



선재 스님〈사진〉은 이날 사찰음식을 잘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음식의 중요성을 대중들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잘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님은 사찰음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찰음식을 접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찰음식은 채식과 소식을 통해 불교의 생명존중과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의 질병도 예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번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특화사찰 지정에 대해 도심에 자리한 법룡사의 위치로 인해 사찰음식 대중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많은 시민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념전을 통해 스님들이 음식을 통해서도 포교할 수 있음을 느꼈다. 참여한 스님들도 모두 사찰음식에 긍지를 갖는다고 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불기 2559)학년도 삼학불교 전문강원 학인모집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 집 안 내

※ 배우지 않고 어찌 부처를 말하랴?

과정	기간	교 육 과 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치문반	1학년	초발심자경문	치문경훈	월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사집반	2학년	도서, 선요	서장	목 · 금요일	오후 6시 ~ 9시	
사교반	3학년 4학년	금강경오가해, 대승백법명문론, 원각경		2016학년도 개강 예정임		
		대승기신론, 능엄경				

◆ 모집인원 : ○○명
◆ 개강일시 : 2015년 3월 9일 → 치문반 (1학년)
2015년 3월 12일 → 사집반 (2학년)
◆ 강원수강료 : 1학기당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접수문의 : ☎ 02) 833-0374, 010-9728-0788
※ 한문이 익숙치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상 원 사 주 지 정산당 법 정
삼학강원 강 주 도 종 (※전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합 장

명 리 학(미래예측학) 모집

木 火 土 金 水

⊙ 흉함을 피하고 “길” 함을 좇는다 ⊙

◎ 모집학과
○ 명리기초반 : 6개월 (목요일 14:00 ~ 17:00)
○ 명리고급반 : 6개월 (금요일 14:00 ~ 17:00)
○ 통변실전반 : 6개월 (개인지도)

◎ 개강일시
○ 기초반 : 3월 12일 14:00 ~ 17:00
○ 고급반 : 3월 13일 14:00 ~ 17:00

◎ 수강료
○ 기초반 : 월 20만원
○ 고급반 : 월 30만원
○ 실전반 : 별도상담

◎ 문의전화
○ 교수직통 : 010-5205-6535
○ 사무실 : 02) 833-0374

◎ 강사 : 서전 윤 관 교수
(※ 현 상원사 백상문화원 부원장)

※ 십세 담지말라 천기누설을 함부로

오시는 길 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상원사 관악농협 대림동지점 맞은편
②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 로 나오셔서 문의주세요

포교원 전국포교국장연수 열어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포교국장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모여 지역전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포교국장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국장 노휴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등을 비롯해 용주사 덕본 스님, 월정사 법은 스님, 법주사 도암 스님, 마곡사 호선 스님 등 1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에는 윤영희 포교차장의 '지역전법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주제발표와 함께 '포교사단과 교구본사 연계 활성화' '학생 · 지역포교 · 경승실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포교원 생산 프로그램 · 콘텐츠 안내' '지역포교와 관련한 연구의 제 설정' '불교대학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윤영희 포교차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은 교구관할내 계층포교를 중심으로 한 포교조직 지원과 신도조직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구포교국 업무매뉴얼 및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아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의지와 포교국장의 역량에 따라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다. 특히 관할 지역의 중첩성 및 포괄성으로 지역포교에 대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장은 "포교원은 실질적인 교구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역전법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사업기조를 '교구중심의 지역포교 기반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제36회 만해백일장 열린다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중강당 등에서 3 · 1 민족자주 독립선언 96주년 기념 제36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전국의 백일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2천여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시 · 시조와 산문 부문으로 나뉘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 일반부 별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하면 되고, 사전접수는 2월 10~21일 온라인(www.kyba.org)으로 가능하다.

만해대상(대통령상)과 만해상(국회의장상) 수상자 각 1명에게는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이, 장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서울시장상, 강원도지사상, 충남도지사상, 동국대총장상 등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이나은 기자

인드라망, 인문학 중심 '심심학교' 연다

3~11월 2학기에 걸쳐 운영

불교 철학과 실천방식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인문학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2학기에 걸쳐 '인드라망 심심(尋心)학교'를 연다.

인드라망 심심학교는 마음을 살펴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인문학강의들로 구성됐다.

심심학교는 3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1학기는 △논어를 통해 본 사람(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유식을 통해 본 마음(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마음챙김(김중묵(인드라망수련원귀정사 원장) △만다라 그리기 명상(김영옥 한국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으로, 2학기는 △마음챙김과 삶(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대념처경의 마음챙김(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 △평화롭게 대화하기(김정란 붓다의 대화연구소장) 등의 주제로 열린다.

또한 매 수업 후 30분 정도 당일 수업에 대한 '마음나누기' 시간이 있으며, 9월 27~29일 2박 3일 수련회도 참가하게 된다. (02)576-1886

이나은 기자

불교교리 공부하고 영어도 덤으로

조계종 포교원 주최 자타카 암송대회

"Once upon a time, Mr. Monkey was living by himself near a riverbank(옛날 옛적,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가 주관한 '제8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에서 어린이들의 영어 암송이 울려 퍼진다.

쌀쌀한 겨울날씨였던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자타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원어민에 버금가는 발음과 언어구사력으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자타카(본생경)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했다.

이번 행사는 2.8대 1의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초 · 중등학생이 본선에 올라 저학년부(4학년 이하 초등학생)과 고학년부(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로 나뉘어 각자의 실력을 뽐냈다.

무대에 선 어린이들은 이야기에 적합한 의상을 비롯해 동물 모자나 가면, 장갑과 인형 등 성실하게 소도구를 준비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했다. '원숭이와 악어대감'의 이야기를 구연한 한주형(수원 용주사) 어린이는 원숭이 가면을 쓰고 직접 만든 스토리보드를 선보이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고동연 어린이는 왕 코스프레를 하고 '개의 왕은동이'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무대에 선 어린이들은 이야기에 적합한 의상을 비롯해 동물 모자나 가면, 장갑과 인형 등 성실하게 소도구를 준비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했다.

초 · 중등학생 17명 본선진출
의상 · 가면 준비해 이야기 전달
김서연 · 문상연 어린이 대상 수상

참가 어린이들은 다양한 표정과 행동으로 객석에 앉은 부모님과 심사위원, 지도 선생님에게 부처님 전생을 전했다. 봉은사 출신의 김서연 양(대도초 2학년)은 깜찍한 표정과 화려한 의상으로 객석의 환호를 샀다.

함께 참석한 학부형과 청중들은 어린 아이들이 실수할 때는 안타까움을,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표시했다. 각 사찰에서 온 어린이법회 도반들은 친구가 출전할 때마다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을 하는 등 자타카 암송대회의 열기를 한껏 더했다.

2시간 여의 경연이 끝나고 지난 해 우승자인 구도은 어린이가 앵콜공연을 펼쳤으며, 재밌는 두뇌게임을 곁들인 레크리에이션과 심사평, 시상 등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과 시몽 뷰로, 조셉슈와일러가 참여했다.

시몽 뷰로는 심사위원을 대표한 심사평에서 "정말 Wow(와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모두에게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A Man Named Wise(현명한 이 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으로 출전한 김서연(대도초 2학년)어린이와 'Mr. Monkey and Sir Crocodile(원숭이와 악어대감)' 편을 선보인 문상연(명원초 6학년)어린이가 대상 상장과 상품으로 '아이패드 미니'를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밖에 서울 국제선센터 정성이 어린이와 화성 용주사 한주형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본선진출자 전원이 우수상과 문수상, 보현상 등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고학년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상연 어린이는 "올해 처음 참가했는데 부모님께서 발음을 교정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상을 받았다"며 "자타카에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 영어공부뿐 아니라 불교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학년부 대상 수상자인 김서연 어린이는 "엄마가 자타카 대회에 나가보는게 어떠냐고 해서 참가하게 됐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은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 생을 보살로 계시면서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 나가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효도, 정직, 인내, 배움, 자비 등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 등의 내용이 담긴 자타카를 통해 어린이들이 부처님 정신과 유능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 세계중심국가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탄 행복한 삶의 방식 배우는 길 열린다

부탄교육부 · 교불련 1월 12일 교사 교환 MOU 체결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부탄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한국 교사와 학생들이 배우는 길이 열린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 이하 교불련)와 부탄교육부(장관 상가이 잠), 주한 부탄문화원(원장 출팀놀부)은 1월 12일 부탄의 수도인 팀푸 교육부 청사에서 교사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부탄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국민행복지수(GNH)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탄 교사 2명을 6개월간 한국에 파견하게 된다.

부탄과 교불련간 교환교사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맡은 부탄문화원은 토요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양국 교사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 국가의 소통을 위해 적극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부탄 교육부장관 상가이 잠은 "부탄은 부탄국민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터득해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높일 수 있도록 초 · 중 · 고 · 대학생, 성인을 위한 행복교육 모듈을 개발했다며 "부탄은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고, 한국은 부탄의 행복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가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불련 이경훈 회장은 "불교국가 부탄의 행복교육은 물질문화가 발달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한국의 교사, 학생,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해각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부탄문화원 출팀놀부 원장은 협약서 체결식에서 "부탄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폭넓게 적용시킨 유일한 나라다. 나라의 통치개념을 GNP와 GDP 등 물질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GNH라는 국민총행복지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청소년 자살율 세계1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멍들어 가고 있는 한국에 부탄의 GNH개념을 교육의 최전선에 계신 교사불자회 소속 선생님들께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부탄교육부, 주한 부탄문화원은 1월 12일 부탄의 수도인 팀푸 교육부 청사에서 교사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교불련은 1월 5~15일 네팔과 부탄 불교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네팔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우다나트 불탑을 참배하고 티베트불교의 닝마파의 법왕 딜고켄체 린포체로부터 관정의식을, 둑빠까규파 법왕 걀왕둑빠 린포체로부터 금강승불교 입문식과 귀의수계식을, 겔룩파의 켄 린포체로부터 '대승과 금강승의 비교와 중관사상'에 대한 법문을 청해들었다.

또한 부탄에서는 파로탁상사원 참배와 3년 무문관을 방문해 티베트불교의 정통명상법인 통렌수행법을 지도받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공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헌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해종행위를 한 아래 자에 대해 본 종단 승적을 제적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법명	성 명	법명	성 명	법명	성 명
영각	김형덕	대산	김성구	광명	박순전
혜법	김춘자	지운	최병열	수련	박복순
영운	강학문	만성	최정환	영경	신경하
영인	전정식	영탄	박승길	영성	이태열
영범	정장식	영빈	정병복	혜도	강문수
혜중	고재우	성공	최일환		

2015년 1월 20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 각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 경전 수련회 "중론(中論)" 집중 강의

■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모두 환상이라면?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 장면이 아닙니다. "세상은 환(幻)"이라는 명제는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세상의 존재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정말 그랬을까? 세상이 모두 환상이라고 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용수 보살이 쓴 '중론(中論)'입니다. 정해학당 회원들의 수행 공간 '안동 보경사'는 올해 경전 집중 강의 수련회의 주제를 '중론'으로 정하고 2박3일간 하루 9시간 이상 중론에 푹 빠져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중론 강의하는 오경 스님은?

부산, 안동 정해학당 경전 강의, 서울 정해사, 대전구도회 금강경을 강의하시고, 철학 전공자답게 분석적, 논리적, 철학적 강의로 경전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수강생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며 함께 진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열린 강의를 진행, 정해학당은 2009년부터 7년째 경전 공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 시 : 1차 – 2015년 2월 7일(토) ~ 9일(월) 선착순 15명
2차 – 2015년 2월 27일(금) ~ 3월 1일(일) 선착순 15명
◆ 장소 및 문의 : 안동 보경사 (경북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오미길 41 / 전화 054)842-4080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 상설강좌 안내

부산 정해학당
▶내용 : 화엄경 中 〈여래출현품〉
▶일정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인원 : 15명 내외
▶장소 : 부산해운대 마린시티 두산제니스

안동 정해학당
▶내용 : 원각경 〈함허득통〉
▶일정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7시 ~ 10시
▶인원 : 15명 내외
▶장소 : 안동보경사

천연 조미료·저염식… 복지관 식당의 변화

노인복지관에도 '착한 식당' 들이 있다. 2천원대의 저렴한 가격, 양질의 메뉴, 영양섭취를 고려한 건강식단으로 가정식 못지않은 정성을 자랑하며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단으로 유명하다. 밥 종류만도 완두콩밥, 보리밥, 수수밥, 발아현미밥, 서리태밥, 기장밥, 차조밥, 굴무밥 등 10여개를 훌쩍 넘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조절한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근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백질 섭취다. 노인들의 근육 손실은 80세가 되면 최대 근육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때문에 살코기와 생선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며 몸을 보충하고싶다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갈 일이다. 하루씩 번갈아 가며 돈육된장볶음, 가자미구이, 버섯불고기, 코다리강정 등 육류와 생선류로 메뉴를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류금선 영양사는 시간이 걸려도 멸치, 무, 양파, 파 등을 넣고 우려낸 국물을 사용하기를 고집한다. 멸치 속 칼슘도 섭취하시라고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반 식당에서도 하기 힘든 정성이다.

그 덕분에 어르신들은 "복지관 덕분에 건강관리 잘 하고 있다. 병원에서 영양섭취 잘 하고있다고 칭찬받을 정도"라고 흡족해 한다. 당뇨를 앓던 어르신 역시 복지관 다니고서부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어르신은 집에서 복지관까지 오려면 걷다가 10번은 쉬어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챙겨주는 밥을 먹고나서부터는 쉬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관 식당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어르신들의 취업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14명의 어르신들은 재료를 다듬고 썰고 깎는 전처리를 주로 담당한다. 한 두명이 하는 것보다 재료손질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식당 및 어르신 모두 사업에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내에 위치한 북레스토랑. 좌측에 구비된 서적들을 읽으며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식당의 하루 이용객은 1천여명이다.

어르신 영양 맞춤 식단
식품영양학과 교수 자문도
"건강 좋아졌다" 호평

또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에는 경로식당이라는 이름 대신 호수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식당을 운영중이다. 식당안에는 책을 보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책레스토랑과 음악이 흘러나오는 음악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복지관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기다. 입소문을 타고 복지관 밥맛을 보러 전철을 타고 오는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다. 하루 이용객은 1천여명.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곳도 메인메뉴하면 빠지지 않는다. 1주일에 3번 정도는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토속음식을 제공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 식당의 메뉴는 저염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미각이 둔감해져 짠 맛을 찾게 되는데, 그럴수록 어르신들 몸은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압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국의 염도를 낮췄다. 보통 국의 염도는 0.8~1.2%. 이보다 낮으면 보통 사람들은 싱겁다고 느낀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국 염도도 평균치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 식재료를 선정하고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다.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 역시 위치상 어르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 어르신 식생활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복지관은 지난해 '심신청정(心身淸淨)'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일상 속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을 정도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다. 매일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 육수를 우려내고 복지관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기도 한다. 다만 채소는 식당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 어르신 도시락 배달 사업에 사용된다. 어르신들의 식당 만족도와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파일럿·승무원… 방학맞이 항공 직업 체험

목동청소년수련관, 진로탐색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맹길재)은 동계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항공 관련 직업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이 준비하는 직업박람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소 항공 쪽에 관심있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진로 및 적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교육 및 체험이 종료되면 직접 항공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참가 청소년은 자아탐색과 직업이해를 시작으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다.

이어 항공 직업 및 비행의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견학을 통해 항공 관련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2회에 걸쳐 직접 항공 직업 박람회를 기획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열게 된다.

2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며 항공 관련대학교, 학과, 직업분야, 항공사 등 진로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된다. 15~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이와 함께 2월 6일부터 8일까지 목동청소년수련관 강의실에서는 예비 중1, 2학년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꿈잡(꿈을 잡았니? 굿잡!(Good Job)' 이 운영된다.

심리검사를 통해 '나' 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영역과 특성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갖는다.



항공정비사 체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과 진로에 한 발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인 적성검사 및 진로체험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상담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소그룹을 형성하고 직업 및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청소년상담사인 전문강사와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3회 전 과정에 2만원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 신청은 수련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02)2642-1318

배현진 기자

팝송 배우고 연극도 하고…

은평노인, 무료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강좌는 건강증진(뉴스포츠, 필라테스, 양생체조 등), 문화예술(한국무용, 가곡, 난타, 풍물 등), 정서생활(동요와 함께하는 핸드벨, 종교활동 등), 평생교육(한글, 중국어등), 취미여가(바둑, 포켓볼 등) 등 프로그램별로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팜송반, 연극반 등이 신설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십분 충족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청방법은 복지관 회원인 경우 회원증을 지참해 수강신청서 작성 후 2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며, 비회원은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복지관 회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02)385-1351

배현진 기자

한부모에게 교육 콘텐츠 무상 지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엠디엔피교육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전문교육그룹 ㈜엠디엔피교육(대표이사 조훈제)과 1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의 계속학습 및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측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학습기회가 단절된 한부모에게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미래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엠디엔피교육은 EBS 검정고시 및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한부모의 안정적 사회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좋은부모 미래설계 장학금' 을 지원한다. 또 매년 교재 판매수익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기부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기하려는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사진 오른쪽)과 1월 15일 협약을 맺은 엠디엔피교육 강성은 본부장

올해부터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엠디엔피교육 그룹에 EBS검정고시, EBS 공무원콘텐츠 및 교재 제공사업을 위탁해 사업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엠디엔피교육 강성은 본부장은 "최근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반면 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나아가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핵심인재로 성장하는데 우리 교육그룹이 기여할 수 있어 보람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센터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좋은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부모들을 응원하며, 교육지원과 사회공헌에 앞장서시는 ㈜엠디엔피 그룹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과 ㈜엠디엔피교육 강성은 본부장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 동화 발간

1권당 1만원…전 세계 배포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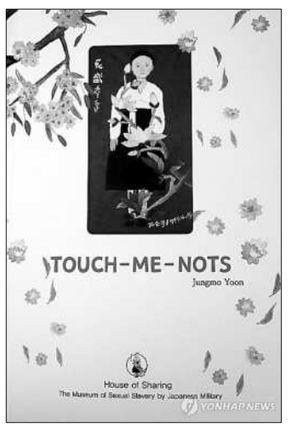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동화 〈봉선화가 필 무렵〉을 영문 번역한 〈TOUCH ME NOTS〉 이 출간됐다.

원작 동화는 윤정모 작가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아 지난 2008년 펴냈다. 영문번역은 유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동화책에 실린 그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다.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200점 중 14점이 실렸다.

책에는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가 주인공 '순이' 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눔의집 측은 "당당히 우리 앞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에,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어린이가 단 한명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는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문 동화책 〈TOUCH ME NOTS〉 표지.

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배포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1권당 1만원을 입금하면 책을 받을 수 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재인쇄 비용에 사용된다. (031)768-0064, y365@chol.com

배현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피워풀한 강의!!

지금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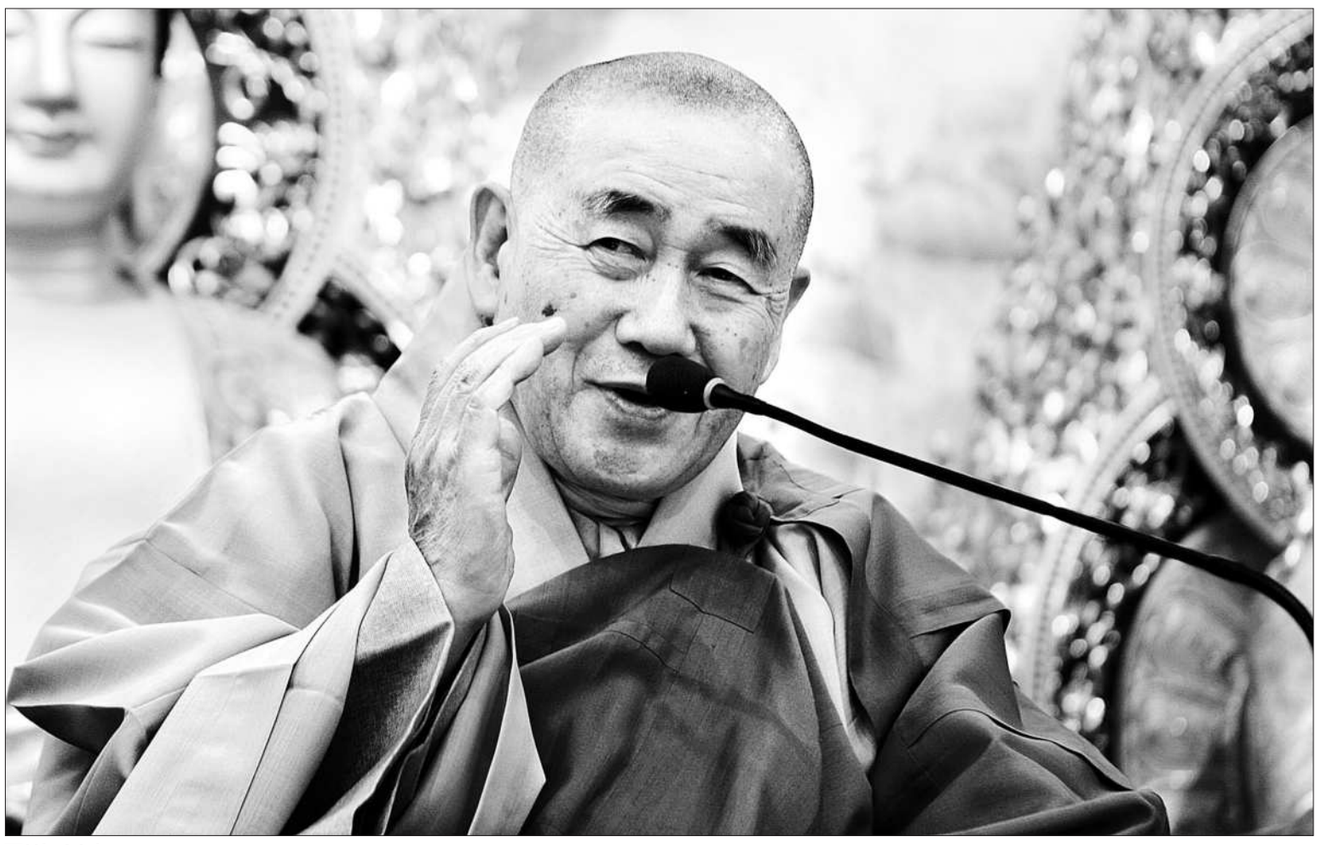
꿈에서 깨면 중생과 부처 둘 아닌 하나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여래명호품'

종범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불교에서는 늘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중생들은 그 막연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늘 꿈 꾸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중생들. 하지만 자신이 꿈꾸고 있는 줄 알고 눈을 뜨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종범 스님은 법문한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범 스님은 … 중앙승가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으며 승가원 이사장, 삼보법회 교양대학 학장,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조계종 개혁의회 의원, 행원문화재단 이사, 한국불교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불교를 알기 쉽게〉 등이 있다.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정각

화엄경 중 '여래명호품'을 오늘 공부해보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정각을 말씀하는 경전이에요. 정각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각을 이루면 정각지신이라고 해요.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을 얻는 것이죠. 이 상태는 바로 무념의 상태죠. 좋다 싫다 이런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요. 분별의 작용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실의 모습, 진여실상처럼 바로 보는 것을 직조라 합니다. 그렇다고 깨달은 사람이 아픈 감각 이런 걸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지혜의 몸이고 지혜 광명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편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좋았어도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밤낮 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생각의 근원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근원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마음을 보아서 마음과 같이 항상 머무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고 이를 정각이라고 하지요.

정각지신은 부모에게 받은 몸에 머무르지 않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에 항상 머물러요. 보광이에요. 광명이 넓어서 부처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없는 곳이 따로 있고 하지 않지요. 시방세계 항상 있는 부처님이 계시죠.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아무리 잘나도 200년이 못 가지만 시방삼세 부처님은 항상 계세요. 부처님께서 영리해서 지혜의 몸을 얻었죠.

'정각을 이루었다'는 비유로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바다 같은 넓은 강물에 빠졌다'고 해요. 물에 빠졌으니 물에서 나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애를 심하게 쓰면 꿈에서 탁 깨게 되고 물에서 슬슬 놀면 꿈에서 못 깨죠. 꿈에서 탁 깨면 물도 꿈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깨달은 세계죠. 생사가 없는 세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세계죠.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현 · 문수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 합니다. 이들을 설주 즉 설법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니 그 장소가 금강지, 즉 금강으로 된 땅입니다. 금강이 뭐냐 금강은 '부증불감' '구경청정'입니다. 즉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딱 깨보니 전체 세계가 부증불감 구경청정이고 연화장 사자좌에요. '무애' 두려움이 없어요. 화엄에서는 온 법계가 연화좌고 사자좌예요. 그 땅이 견고하여 금강으로 이루어졌어요.

깨달으면 생각이 없어지고 지혜가 나와요.

정각을 얻으면 의식이 사라져요. 의식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아는 허망한 생각이기에 망념이라고 해요. 정각을 얻으면 이런 의식은 싹 없어지고 지혜만 나타나요. 생각이 바뀌어서 지혜로 충만한 정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를 선각, 묘각, 정각, 원각, 대각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행은 있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지옥과 극락, 안다 모른다 이런 이분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각은 번뇌 망념이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법성계에서도 탐진치가 기본인데 계속 구하는 겁니다. 전부 의심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소견 내고 화 내고 욕심 내고 이것이 아주 근본 망상이 되는 겁니다.

수행자의 망상에는 단망 망상이 있어요. 망을 끊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단망이 눈앞을 가리면 끊으려고만 하지 선각지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문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망을 끊고자 하는 생각이나 좋은 걸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녹아지면 식망상이라 합니다. 망상을 쉬는 게 됩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 망상입니다. 진여실상을 바로 보면 무념직조입니다.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하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꿈 깨면 그만입니다. 생각 사라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생각뿐입니다. 오직 근심걱정하는 생각뿐입니다.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일 뿐입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습니다. 캄캄한데 저기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두려워해요. 불 탁 켜면 귀신 없어요. 불 켜기 전에 무섭고 오그라드는데 귀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생각의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쁘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말했다고 화를 내요. 이때는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괘씸한 생각에 괴로운 겁니다. 같은 말을 손자가 하면 안 괴로워요. 말 자체는 손자가 한 말이나 아들이 한말이나 같은데, 아들한테는 기대를 많이 하니 내 생각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괴로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집착해요. 삶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삶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정각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
여래 명호의 수는 공덕 크기 의미

깨달음은 분별의 작용이 떠난 상태
망상에 사로잡히면 실상 보지 못해
꿈꾸는 줄 알고 탁 알아차려야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없어지는 게 정각입니다. '달무상법'은 무상법을 통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중생은 형상만 보는데 형상을 보면 이슬 구름 얼음이 다르지만 본성으로 보면 다 물이죠. 형상으로 보면 사는 모양이 있고 죽는 모양이 있고 전부 다 차별이에요. 물이나 비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물과 비가 다르지 않음을 알면 무상법을 통달한 것이 됩니다.

무상법과 대지혜를 항상 가지고 활동하니 장애가 되는 곳이 없어요. 불을 봐도 화성이 공하다는 것을 아니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봐도 죽음 자체가 진여실상임을 아니 장애가 없죠. 뜨거우면 뜨거울 뿐이고 있으면 있을 뿐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형상으로 보면 파괴되는 대상이 있는데 실상으로 보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이 몸의 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의 본성을 모르니 괴로워하는 겁니다.

요즘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해요. 오래 사는 게 수복이라고 하지만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 돈 사람 3박자가 두루 갖추어져야 해요. 가난하고 병들어 혼자 사는 건 고독생 빈곤생 질병생이라고 해요. 하지만 건강, 돈, 사람 이 세가지를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작년 인생은 금년 인생이 아니죠. 70 인생과 80 인생은 달라요. 인생무상은 항상 있는 겁니다. 작년 인생은 사라져 버렸어요.

꿈 꾸는 자와 꿈에서 깬 자

같은 방에 있어도 잠에서 깬 사람은 자기 집인 줄 아는데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꿈에서 못 깨었으니 모르죠. 꿈 꾸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같아요. 정각을 이룬 후에는 같다는 말이죠.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같은 줄 모릅니다. 꿈 깨서 보면 잠든 사람이나 꿈 깬 사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각 세계에 있는데 망념이 가려서 모를 뿐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래명호품이라는 것은 여래의 명호가 세계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에요. 이름이 많다는 것은 활동이 많다는 것이고 실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깨우치는 여래의 신업이 불가사의해요. 신업은 오직 중생제도를 말합니다. 여래명호가 여래출현과 여래의 공덕에 의해서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래명호품이라는 것은 여래의 신업을 말하는 겁니다. 공덕업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래명호품은 결국 이름이 많다는 것이고 공덕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래의 신업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는 것이죠. 정각신업, 신업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성제품은 초기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괴로움이 뭐고 어디서 생기고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설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바세계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용어가 다양해요. 여기서는 괴로움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화엄경은 전부 정각 세계를 설명합니다. 설법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깨우치는 것, 선각지, 무이념, 두 가지 생각이 없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뭐냐. 마음의 본성을 봐서 마음이 항상 머무는 것, 두 가지 생각 없는 무애자재함을 말하는 겁니다.

망념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공부를 해갈 때 망념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는데 망념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망념에 집착하면 혹은, 생각에 몰입하면 수행 마장이 됩니다. 깨달음의 장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각지, 무이념, 두 가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삼세에 항상 머물러 시방에 널리 빛나면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공덕으로 가르치니 여래명호품이라 합니다.

불교의식 제10기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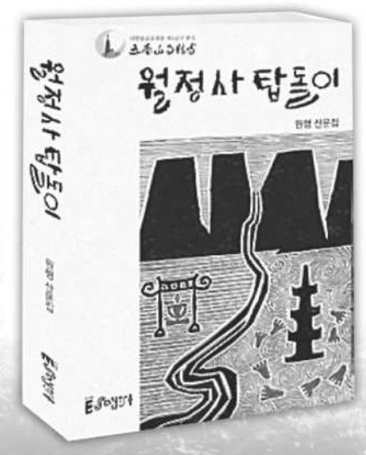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 ·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8일(일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 · 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신/간/안/내 월정사 탑돌이

사실을 '박제'하여 생명성을 제거한 것을 역사라고 해선 안된다.
역사란 반드시 살아 숨쉬는 생명의 흐름이어야 한다!



월정사 탑돌이
원행 수필집

발행일 2014.12.20
신국판 양장
424쪽
15,000원

■ 역사는 생명의 흐름이며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원행스님(저자)
■ 불교문화와 수행의 모습이며 증언이다. 조정래(소설가)
■ 근대 한국불교문학의 역사이다. 김동호(국가문화융성위원장)
■ 수행과 삶의 행적이며 문화행위로서 문학세계이다. 홍윤식(동대석좌교수)

| 구입처 | 서울 : 불교전문서점(02-2031-2073)
강원 : 월정사 성보박물관(033-339-6633)

ABC사업 전국사찰 확대, 활용방안 모색

불교학술원 3년차 사업 돌입, 대흥사 시작으로 교구본사 조사

"한 장 한 장 지금 남기는 기록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소홀 할 수가 없습니다."

장충동 충무로영상센터 지하에 마련된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유산 ABC사업 스튜디오. 1월 16일 찾은 이 곳에서는 고양 원각사에서 수집해온 고문헌을 사진촬영 후 보정하는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 앉아 촬영 후 넘어온 문헌사진을 점검하는 김성연 ABC사업 전임연구원의 눈빛이 빛났다.

일반 사진의 100배가 넘는 초고화질 사진에 활자 하나 하나의 필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미세하게 틀어진 사진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재촬영을 요청했다. 스튜디오 바깥에 마련된 연구실에서 역주편찬팀이 서적발간을 위한 교정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자들이 모여 역주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날 사진촬영된 고양 원각사의 고문헌은 신집성문헌 분야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서적으로 재발간된다.

교구본사 중심, 고문헌 본격 조사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오랜동안 이 땅의 사상,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로부터 생겨난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한국불교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기록문화유산은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계승하고 이를 후대에 알리는 주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불교기록문화유산을 결집시켜 디지털화 하는 아카이브 사업(ABC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2년. 현재 불교학술원 책임 하에 집성팀 · 역주팀 · 편찬팀 · DB팀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및 신집성문헌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시작했다.

ABC사업은 2015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고문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그 첫 시작은 해남 대흥사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한상길 집성팀장은 "예전과 달리 성보박물관에 많은 문헌이 있어 조사가 한층 수월하다"며 "사업이 안정화되며 문중과 사찰들이 조사에 협조적이다. 불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곳에서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 대흥사 문헌집성 모습(사진 왼쪽)과 고문헌 사진촬영 모습. ABC사업팀은 여기에 DB화를 거쳐 역주 · 편집 · 발간을 통해 대중에 자료를 공개한다.

전문가들 "이제 불교계 활용방안 모색"

ABC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불교학술원이 21일 개최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콜로키움' 에서는 사업의 방향이 논의됐다. 콜로키움에는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와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 분야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정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불교기록문화유산 구축과 활용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창진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정보공유 개방정책인 정부3.0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사업 담당자들도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습득과 활용방법 또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꾸준한 사업 시행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은 "찬란했던 한국의 불교기록문화 유산이 21세기 디지털 대장경 조성불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숨쉴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내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밀교 · 만다라' 주제 워크숍

2월 13~14일, 워크숍 후 오어사 · 양동마을 답사도 진행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현)과 함께 2월 13~14일 경주 위덕대 대회의실 등에서 '밀교 · 만다라의 의미' 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장익 위덕대 대학원장의 '인도밀교의 형성과정' △김영덕 위덕대 교수의 '금 · 태 양부만다라에 담긴 사상' △강향숙 동국대 강사의 '후기밀교 만다라의 특징과 그 의미' △게쉐 소남걀첸 한국티벳센터 광성사 주지의 '티베트 밀교란 무엇인가?' 등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 이어 14일에는 경주 양동마을 및 포항 오어사 답사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 5000원이며, 서울에서 출발하는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5만원이다. (041)731-3616

노덕현 기자

경주 남산 창림사지 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통일신라 시대 조성, 경주 남산 석탑 중 가장 화려"

문화재청은 1월 21일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석탑이 위치한 창림사지는 그동안 조사된 탑지와 건물지로 미뤄 통일신라 시대 사찰로 추정된다. 탑의 조성시기는 추사 김정희가 이곳을 찾았을 때 모사해 둔 〈무구정탑원기〉를 근거로 신라 문성왕 때로 보고 있다.

석탑은 2중 기단을 조성한 후 탑신부 3개 층을 얹은 전형적인 신라 3층 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석탑은 그동안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1976년 결실된 부재를 보강해 복원됐다. 이 과정에서 2, 3층 탑신과 상층기단의 팔부신중상 4매, 기단 석재 일부가 신재로 교체됐다. 하지만 경주 남산에 자리한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노덕현 기자**



"실크로드 불교, 중국과 한국에 큰 영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금강학술총서 〈실크로드〉서

"실크로드의 불교를 인도와 중국 불교의 가교로서만 이해하지 말고 중국과 한국 불교에 영향을 미친 불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 · 서방 간 문물 교류의 장이었던 실크로드는 단지 인도와 중국이라는 큰 '중심' 을 이어주는 통로에 불과했을까. 최근 발간된 금강학술총서 〈실크로드〉에 실린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불교' 논문에 그 해답이 있다. 정병조 총장〈사진〉은 논문을 통해 실크로드 불교가 단순한 가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불교이며, 철저하게 정교분리라는 입장을 취한 인도 불교와 달리 불교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 총장의 근거는 실크로드 고대 국가들에서는 인도와 달리 중국처럼 국가가 불교 행사와 사찰 운영 등에 관여한 양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정 총장에 따르면 〈대동서역기〉에는 호탄의 국왕이 직접 초파일 행사를 관장했으며, 이 행사로 인한 업무 중단 등의 피해를 국가차원에서 보상했다. 쿠차의 경우에서는 비구니계 사찰 운영을 국가에서 비구 통솔자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띄어 중국의 '승관제(僧官制)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는 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 총장은 "대부분의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해 오아시스를 하나하나 거치며 중국의 서쪽 끝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때로는 그 정박지에서 정박지의 문화를 바꾸거나, 그 문화에 의해 변용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즉, 인도를 원산지로 하지만 동시에 서역제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동아시아 불교를 단순히 불교와 특정 지역의 문화에서만 찾으려는 견해는 지양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용되기 이전 실크로드 불교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차별금지법 안에 중도 사상 담아야"

조준호 연구원, 〈불교연구〉41집 '퇴옹성철의 중도' 에서 강조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종교, 지역, 성별, 연령과 학벌 등으로 인한 충돌과 대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별금지법' 에 불교의 중도사상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금지법' 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으나 개신교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불교연구〉 41집의 '초기불교와 퇴옹성철의 중도 –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초기불교와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에 입각한 차별금지 조항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차별은 인간의 '우월의식' 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 된 차별의식은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우월의식에 의한 차별은 위계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세계관을 부정하며 나온 것이 초기불교의 중도"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시대에 따라 중도사상이 갈등해소의 기제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조 연구원은 "부처님은 수행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유행할 때, '그 나라의 풍속과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고 하셨는데 이는 '문화적 상대성' 을 인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이러한 중도를 불교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과 교를 하나로 꿰었음을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겉으로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불교의 중도를 비롯해 차별금지에 관한 사상을 함께 담아야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위덕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MOU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1월 20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평생학습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교류협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위덕대가 대학-지역사회-산업체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덕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단장인 김도희(성인학습지원처장)교수는 "산 · 관 · 학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모델을 '공생 파트너십' 브랜드로 활용하고, 각 주체간 적극적인 협력체계와 의사소통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위덕대학교와 평생학습교류협약을 체결한 포항시 등 26개 기관 및 산업체와 올해 새롭게 교류협약을 체결한 포항시니어클럽 등 12개 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 제42호 투고 논문 모집

불교학연구회, 1월 31일까지 'JAMS' 통해 접수 및 심사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3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 연구〉 제42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JAMS)' 을 통해 투고 논문을 접수 · 심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원고 분량이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200매가 넘으면 게재할 수 없으며, 120매가 넘을 때는 1매당 3000원씩 초과 게재료를 내야 한다. 불교학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맞지 않은 논문은 반려되며, 다른 연구지와 동시 투고할 수 없다.

불교학연구회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마감은 1월 31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 까지

◆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완주 송광사, 지역 군 포교에 발벗고 나섰다

육군 35사단 · 부사관학교 · 임실 탄약창 정기적으로 지원

완주 송광사(회주 도영)가 지역 군포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송광사는 2014년 지역 군법당 순회 송년법회를 연데 이어 새해를 맞아 적극적인 군포교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 3차례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주관한 도영 스님은 특히 지역 군부대 불심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피력했다.

송광사는 일회성에 그쳤던 군법당 지원을 올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전북 임실 육군35사단 호국충경사가 지원 대상이다. 호국 충경사는 전주에 배치된 육군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며 법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송광사는 정기적인 물질 지원 외에도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송광사 측이 주관하여 열기로 했다. 또 도영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송광사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현재 송광사의 방침과 함께 호국충경사의 어려운 사정을 접한 전북불교발전협의회(회장 유남희)와 송광사 청년회(회장 정현석), 송광사 지장회(회장 장지숙) 등이 동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신행단체들은 이미 2014년 연말 위문행사를 호국 충경사에서 진행했다.

호국 충경사 · 충국사 · 장영사 지원
매월 정기법회 및 신도회 봉사 참여
2014년 연말 위문공연 등으로 시작

이와 함께 부사관을 양성하는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사관의 경우 군 간부로 성장하지만 관심은 장병포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익산은 원불교의 적극적인 포교로 인해 불교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송광사가 나서 지역사찰 연계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기로 했다.


논산 훈련소 수계법회를 주관한 송광사 대중스님들. 왼쪽부터 대전 죽림정사 광진 스님, 도영 스님, 법진 스님

이와 함께 2014년 가을부터 지원을 해온 임실 6탄약창 호국 장영사도 역시 매월 정기법회 등을 지원한다. 호국 장영사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이미 교리퀴즈대회와 위문공연 등을 진행했다.

도영 스님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부대의 사고로 가슴이 아프다. 21세기의 우리 시대의 희망은 불교에 있다"며 "청년들이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남과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리더쉽 함양 '이색' 불교캠프



청소년들의 리더쉽을 기르기 위한 불교캠프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 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은 1월 23~25일 2박 3일간 무등산 증심사에서 '무등산에 올라 세상을 품다' 를 주제로 '제2회 청소년리더쉽캠프' 를 개최했다.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를 겸해 진행된 청소년리더쉽캠프에는 총 40명의 학생들과 10명의 지도교사가 참가했다. 참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리더쉽 캠프에서 학생들은 불교적인 삶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리더쉽 캠프는 1월 23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그룹별 모임, 리더쉽 프로그램, 전통등 만들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108배 절명상, 레크레이션,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의 가장 중요한 리더쉽 프로그램은 도미노쌓기, 요리프로그램, 미래 나의 명함만들기, 무등산 겨울산행, 부모은중경 강의(지장스님), 촛불의식,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연극놀이(푸른연극마을 이담금 지도) 등 아이들의 주체적, 창의적 사고의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리더쉽 캠프는 증심사에서 약사암, 새인봉, 서인봉, 입석대와 서석대, 중머리재, 증심사에 이르는 전체 10km의 겨울산행이 백미였다. 불교의 지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무등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무숲 대표 지장 스님은 입재식에서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해야 미래의 조국이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된다"며 "이번 리더쉽캠프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눔스토어 착한사업장 1호점 탄생



먹거리 나눔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선운기초푸드뱅크의 사업장 1호점이 문을 열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선운기초푸드뱅크(관장 대원)는 1월 13일 한정식 본가(대표 윤은석)에서 'Nanum Store 착한사업장' 1호점 현판식을 진행했다.

'Nanum Store 착한사업장' 은 지역주민이 식품으로 독거어르신 등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이다.

기초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과점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팔다 남은 식품과 생활용품의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물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 계층에게 전달하는 물적 전달체계다. 나눔스토어는 여기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다시 소외계층에 활용하는 곳이다.

한정식 본가 윤은석 대표와 복지관 대원스님이 참여한 이 날 행사에는 기부식품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본가 윤은석 대표는 선운기초푸드뱅크 대상 중독거어르신들의 생신잔치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정식 본가 윤은석 대표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선운기초푸드뱅크와 함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대원스님은 "지역 나눔을 위해 참여해주신 한정식 본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기초푸드뱅크는 착한사업장 2호점으로 봉구스 밥버거, 3호점 신우영어조합법인, 4호점 선운산 푸른떡집, 5호점 선운마트, 6호점 남양유업으로 협의한 상태이며 추가 사업장을 접수받고 잇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월 19일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법여스님(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중이 모여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고 법회 시작을 알렸다. 이에 대중들이 "포살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입니다"고 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서는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 독송에 이어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또 포살법회 후에는 태허당 지성 스님 17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태허 스님 문손인 주지 법만 스님은 "은사스님의 17주기를 맞아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포살법회를 통해 스님들의 수행상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광주서 초연

광주불교방송 20주년 기념…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불교연극인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은 개국 20주년 기념으로 극단 '까치놀' 의 인기공연인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그것은 목탁~' 은 흥행작 '불 좀 껴주세요' , '피고 지고피고 지고' 의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만든 최신작품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방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극제 최다 수상작이기도 한 이번 연극은 깊은 산속 사찰을 배경으로 스님들의 일상 생활과 인간적 방황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고통을 표현해 내며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광주 공연에 앞서 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23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총 4회 공연으로 토요일 7시, 일요일 2시, 6시, 월요일 7시에 펼쳐진다. (062)520-111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전 시민 사찰서 행복기원 법회 개최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연)는 1월 16일 대전 광수사에서 '제2회 대전발전 시민 행복기원 신년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대연 스님과 대전비구승가회장 진성 스님, 광수사 주지 영제 스님, 권선택 대전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대연 스님은 "오늘과 같은 법석을 통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서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는 것이 대전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 장애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굳건한 정진으로 파사현정하여 꺼지지 않는 불성의 불씨처럼 순리대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청림회, 성도절 문화예술제 1000명 참여

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회장 효경)는 1월 18일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연),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과 함께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대전선포식과 함께 열린 이날 예술제는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대연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장 금강 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효경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 중도의 도리는,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뭇 생명과 모든 존재가 서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진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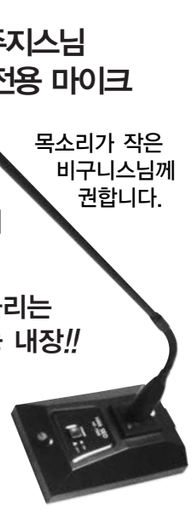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약사여래불의 마음으로 환우 돌봐요”

10주년 맞은 부산 백병원 법우회 신년법회 봉행

부산백병원 법우회(회장 조미숙)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월 19일 부산백병원 임재관 강당에서 열린 백병원 법우회 신년법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법회에는 간호사, 의사, 영상실 직원, 환자, 환우 가족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법우회 법사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복을 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환우들을 위해 일하며, 행복을 나누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공덕을 실천해 복을 많이 짓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불교친목모임으로 이어져 왔던 부산백병원 법우회는 10년 전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매달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교리공부, 수행, 목종 스님과의 즉문즉설 시간을 가져왔다. 백병원법우회 회원들은 수행을 통해 자비심이 생겨 환우들을 더욱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간호사 김성경(50)씨는 “법우회에서 법문을 듣고 환우들을 만나면 자비심이 생겨 그들을 세심히 살피고자하는 마음이 든다”며 “이를 통해 내가 더욱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우회는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대광명사 봉사팀 사무량심 회원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물품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재능보시를 통해 자비행도 실천하고 있다.

법우회 이대수 씨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 같다”며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안색을 살피고 건강을 확인하며 위로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백병원법우회는 직장 동료를 넘어 도반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년 템플스테이와 성지 순례는 물론 100일 정진 기도도 진행하고 있다. 100일 정진 기도는 연말 대입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고3 자녀를 둔 법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간절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매달 정기법회 통해 자비심 길러
지역민에게 나눔 실천도 적극적
해운대백병원 법당 건립도 눈길

법우회 간호사 장이선(50)씨는 “대학시절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활동에 참가하며 불편한 마음이 일었다. 지금은 직장에서 불교도반을 만나 행복하다. 도반들과 함께 봉축일 날 환우들에게 떡, 경전, 연등을 나눠 주는데, 환우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산백병원 법우회는 기독교 재단 병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법우회 회원이 100명이 넘어 직장인 법우회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법우회 창립 멤버인 송명지 간호 부장은 “지금의 법우회가 있기까지는 10년간 한결 같이 도와준 법사 목종 스님의 도움이 컸다”고 전한다. 목종 스님은 10년 간 매달 정기법문을 위해 부산백병원을 찾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부산백병원 법우회가 1월 19일 임재관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아울러 목종 스님은 환우들을 위한 활동도 법우회와 함께 펼치고 있다. 부산백병원의 뇌사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뇌사판정을 받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송명지 간호부장은 “스님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장기 기증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뜻을 설명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도록 돕고 계시다”며 “특히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환우 가족들 중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49재도 지내주며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부산백병원 법우회의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같은 재단의 해운대백병원 법당을 설립 한 것이다. 기독교 재단 병원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두 개의 법당이 신설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운대백병원 불교 법당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백병원 법우회는 해운대백병원 법우회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명지 간호 부장은 “해운대백병원과 부산백병원 법우회의 교류가 활발하지는 못해요. 올해는 성지 순례 및 템플스테이 등도 함께해 결속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안동 보경사, 중론(中論) 집중 강좌

2월 7일부터 3차에 나누어 진행… 하루 9시간 강의

매년마다 경전 집중 강의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는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가 올겨울 수련회 강의 경전으로 ‘중론’을 선택했다.

오경 스님<사진>은 “대승불교의 기초이면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緣起)’ ‘공(空)’을 드러낸 중론을 대부분의 불자들은 모른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불자들이 기초 없는 건물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 불안하다”고 했다. 이번 중론 강의는 불교라는 집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대대적인 기초 공사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중론집중강좌 수련회’는 총 3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2월 7일~9일, 2차 2월 27일~3월 1일로 진행되며 정원은 15명이다. 강의는 예불과 참선, 공양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이상 중론이 설해진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중론에 대한 개론과



중론 본문 중 100개의 게송이 먼저 다뤄질 계획이다.

오경 스님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섭렵, 용해하여 발전시킨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은 이후의 대승불교인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밀교, 선사상을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라며 “불교의 모든 사상은 중관사상으로 관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은 부산과 안동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를 비롯해 서울의 정해사, 대전구도회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이다. 철학 전공자다운 분석적, 논리적, 철학적 강의로 경전 강의를 이끌고 있다. (054)842-4080

하성미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장학금 전달식

1월 20일 울산시에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월 20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과 천주현 울산지원 신도회장 등 신도 임원이 참석해 구랍 22일 동지팥죽 판매 수익금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전했다. 장학금은 울산 호계고등학교 학생 1명에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동지 팥죽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인근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모범 학생들에게 전달 해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옥희 울산지원 부회장, 김상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 천주현 울산지원 신도회장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성도절 기념법회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선지)가 1월 20일 오후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봉행했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982년부터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 행사를 연합기념대법회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 역시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연합합창단과 사물놀이 공연은 물론 사찰에서 준비한 육법공양 등이 이어졌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선지 스님은 “부처님의 정각은 어두운 사바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 것”이라면서 “위로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지혜를 발현하여 보시와 자비를 실천해 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날 법회에 자비나눔실천행의 모범이 된 11명의 불자에게 표창장과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했고 불우이웃 성금마련 행사도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20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열었다.

의성 고운사 장학금 전달식 개최

1월 16일 화엄템플관서… 장학금 수혜자 위한 템플스테이도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1월 16일 화엄템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총 12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타의 모범이 되는 41명 학생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종교를 떠나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고운사는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화엄템플관에서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는 ‘나를깨우는 108배’ ‘걷기명상(천년숲길걷기)’ ‘고운사 둘러보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의성 고운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부산 마하보리회, 자명 스님 초청 법회

1월 17일 부산불교신도회관서

부산 마하보리회(회장 손정현)는 1월 17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서울 마하보리사 자명 스님 초청 특별법문 및 즉문즉설 법회를 봉행했다.

‘선문답의 세계과 깨달음’이란 주제로 법문한 자명스님은 “참선이란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기법에 대해서는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관계가 내 마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무아임을 아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즉문즉설 시간에는 참가한 불자들이 고성 염불법, 불교를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사회 부조리에 대해 취해야 할 불자의 태도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 질문했다.


자명 스님 특별법문 및 즉문즉설 법회 장면

자명 스님은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저자로 서울대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이어 서울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청년 포교를 위해 주력해왔다.

하성미 기자





종단

한국불교 종단 70년

격랑의 시대 넘어 일신한 한국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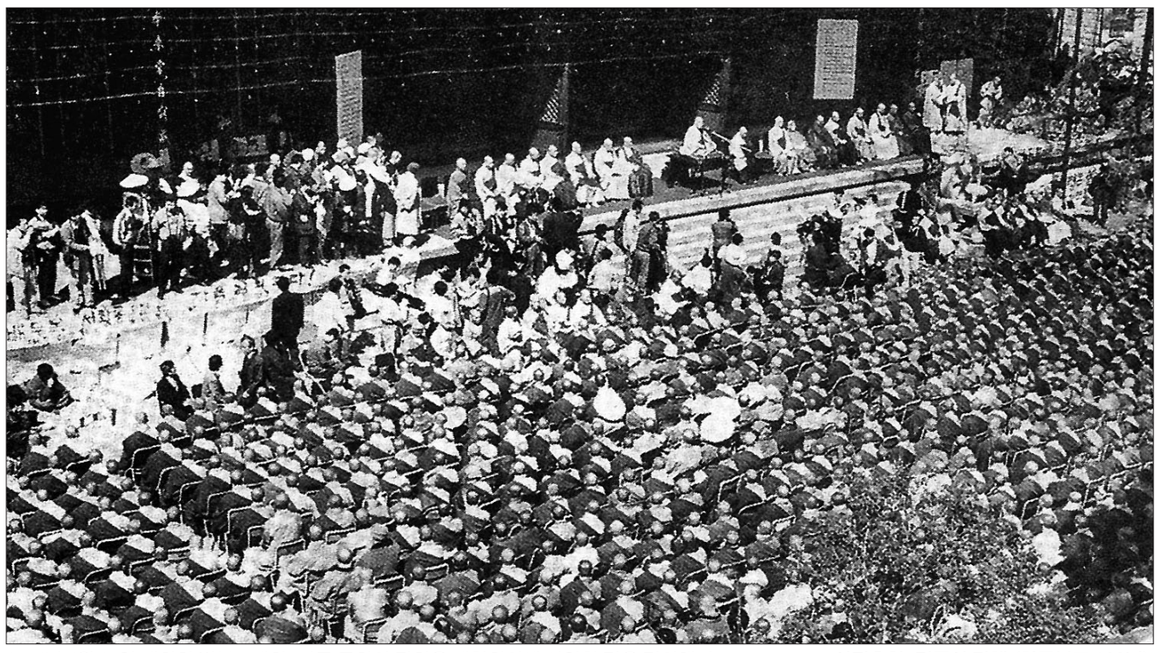
1945년 8월15일 오후 2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 항복 선언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한국에게 광복의 기쁨과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장미빛 환상' 은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8선을 설치하고 남북을 분단시켰고 오래지 않아 한반도는 좌우 대립의 갈등에 몸살을 앓았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저서인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에서 "해방공간의 불교는 한국 근대불교와 현대불교의 가교 역할을 한 무대이자 연결고리"라면서도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향으로 가려했던 현대불교는 해방공간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화해와 상생이 아닌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불교는 격랑의 근현대사 속에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광복 이후 종정 한암 스님과 종무총장 지암 스님은 자진 사퇴했으나 교단을 인수한 지도부는 주로 대처승이었다. 대처승 지도부는 교단의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안주했다.

그러던 중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은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결사를 시작한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공주(共住)규약' 을 정하고 이를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만 방부를 같이 정진했다. 처음은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청담 스님으로 시작해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스님 등 20여 명으로 늘었고, 비구니 묘엄, 묘찬, 지영, 재영 스님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한 갈등 끝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고 다양한 종단들이 만들어졌다. 조계종과 뿌리는 같으나 분리해 만들어진 태고종이 있으며,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등 주요 종단들이 중창되거나 새롭게 창종됐다.



1994년 4월 13일 개최한 범불교대회. 기존 종회의 권한을 개혁회의에 이양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출처=민족사 간행 〈한국불교 100년〉



조계종을 상징하는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의 모습

정화운동과 조계종 출범

19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3월에 그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자경농의 농지 소유를 원칙으로 한 유상매수와 유상분배가 이뤄졌다.

당시 종단인 '조선불교' 의 교정이었던 만암 스님은 수행승들의 생활고와 수행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54년 4월 비구승들에게 전통사찰 18개를 내준다는 방침을 정하였지만 대처 주지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이즈음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지지 담화가 발표되었다. 즉 1954년 5월 사찰 내에서 대처승을 축출하라는 대통령 유시가 내려졌고 이후 1962년 4월까지 8년에 걸쳐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선학원을 중심으로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대회가 개최되고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만들려는 종헌 제정, 공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응적인 교단의 다수 구성원인 대처승들은 이 같은 정화에 반대했다.

결국 정화운동은 자주적인 변화보다는 공권력이 개입된 가운데 이뤄졌고, 1955년 8월 12~13일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비구승 종단이 성립됐다. 이 대회 이후 교단의 운영권과 전국 사찰의 운영권이 비구승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대처승은 이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자 대처승 측은 비구 측을 관제불교로 규정하고 사찰령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다. 당시 대처 측의 사찰 재진입과 이를 막기 위한 비구 승려의 할복 기도와 법원 난입 사건 등이 터지면서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기도 했다.

1961년에는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비구 측과 대처 측 어느 쪽도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율적으로 불교를 재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비구와 대처 양측이 참여해 합의를 이뤘고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하게 됐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 대해 김용태 동국대 HK교수는 본지 칼럼을 통해 "이승만 정권하에서 일어난 불교정화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비구승 중심의 수행 및 계율 전통 회복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표면에 내세운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 우위 정책에 입각하여 정치적 반대파가 된 불교계 실세 대처 주지들을 제거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시련과 개혁의 역사

새롭게 출발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20세기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지표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역경원을 설립하여 팔만대장경의 완역을 추진했고 도제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사찰에 총림을 설치해 선원과 강원, 율원을 세웠다. 또한 1980년대에 총무원 산하에 포교원을 설치해 포교에 전담하도록 했다.

해방공간 속 '정화 · 개혁' 화두
갈등 거쳐 통합종단 출범돼
1970년 대처측 태고종 분리
천태종 · 진각종 등 종단 출범
종단협 창립… 불교 발전 도모
신생종단 난립 상황 대책 필요



1962년 1월 22일 열린 비구 · 대처승 양측 대표모임. 불교재건회의 앞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민족사 간행 〈한국불교 100년〉



2008년 불교 최초 모금전문기관 아름다운동행 출범식 모습. 질곡의 역사를 넘어 불교는 자비나눔과 사회실천의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

1962년 4월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만들려는 종헌 제정, 공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응적인 교단의 다수 구성원인 대처승들은 이 같은 정화에 반대했다.

결국 정화운동은 자주적인 변화보다는 공권력이 개입된 가운데 이뤄졌고, 1955년 8월 12~13일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비구승 종단이 성립됐다. 이 대회 이후 교단의 운영권과 전국 사찰의 운영권이 비구승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대처승은 이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자 대처승 측은 비구 측을 관제불교로 규정하고 사찰령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다. 당시 대처 측의 사찰 재진입과 이를 막기 위한 비구 승려의 할복 기도와 법원 난입 사건 등이 터지면서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기도 했다.

1961년에는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비구 측과 대처 측 어느 쪽도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율적으로 불교를 재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비구와 대처 양측이 참여해 합의를 이뤘고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하게 됐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 대해 김용태 동국대 HK교수는 본지 칼럼을 통해 "이승만 정권하에서 일어난 불교정화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비구승 중심의 수행 및 계율 전통 회복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표면에 내세운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 우위 정책에 입각하여 정치적 반대파가 된 불교계 실세 대처 주지들을 제거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시련과 개혁의 역사

새롭게 출발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20세기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지표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역경원을 설립하여 팔만대장경의 완역을 추진했고 도제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사찰에 총림을 설치해 선원과 강원, 율원을 세웠다. 또한 1980년대에 총무원 산하에 포교원을 설치해 포교에 전담하도록 했다.

1962년 5월에는 사찰령을 계승한 불교재산관리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재산 관리 뿐 아니라 불교 단체 등록 및 운영을 국가에서 관리 · 감독하게 된다. 또한 1969년 정부가 국립공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야산 해인사와 지리산 화엄사 등 종단 사찰의 재산을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국립공원 주요 부지로 지정했다. 당시 해인사 방장 성철 스님은 "사찰은 신성한 수도도량으로 국민관광지화 되면 국민정신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행했다. 이 같은 국립공원제도는 2000년 이후까지 관람료 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정부와 마찰을 빚게 한 단초로 자리잡았다.

1980년에 들어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10월 27일 새벽에 전국 3천여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 강압적인 수색을 하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들을 불법 구금하는 10.27법난이 일어났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다. 당시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됐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2008년 3월 '10 · 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이 현재와 같은 현대적 시스템을 갖춰나간 것은 1994년 개혁 이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3선 연임을 강행하자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 종정과 총무원장이 같이 퇴진하고 종단제도 개혁이 추진됐다.

당시 종헌과 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총무원장 선출을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문부 • 천신통령부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링타리스만부적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 • 희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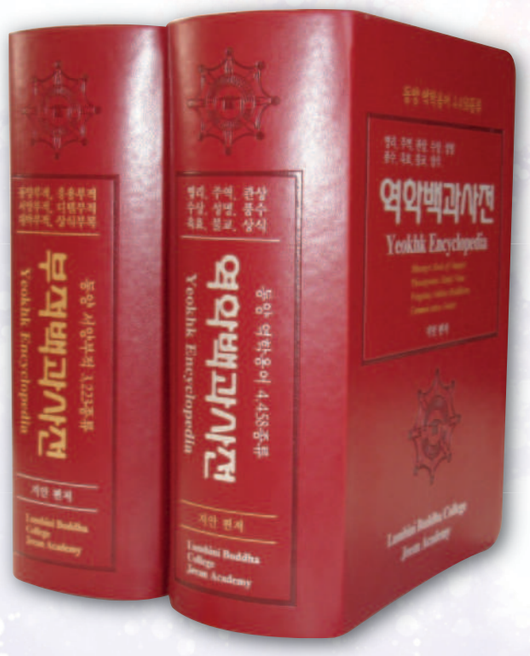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분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 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종단
한국불교
종단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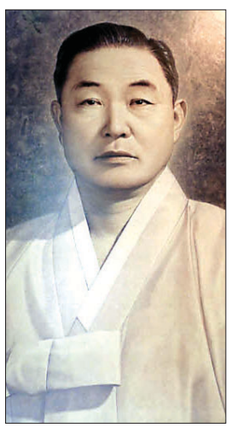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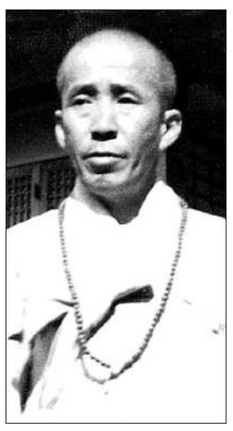
깨달음의 사회화·자비나눔 종교로



태고종 단일계단 합동득도 모습. 198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모습. 올해 개산 70년을 맞는다.






주요종단 초대 종정 스님들. 사진 왼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종정 효봉 대종사, 한국불교 태고종 1세종정 대륜 대종사,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진각종 창종조 회당 대종사, 대한불교 관음종 창종조 태허 대종사.

하고, 교육과 포교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두어 3원 체제로 변화하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교구자치제도를 도입하여 교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바꿨다.

이후 조계종은 제도 개선 기반 위에 각 부분별 영역을 전문화시켜 나갔다. 사회복지의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전담할 조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신설하고, 청소년단체로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를 조직했으며 조계종출판사를 신설하기도 했다.

개혁종단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995년 취임과 동시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종단의 공식 예산 이외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해 노동 · 인권 · 복지 · 환경 · 통일 사업에 투입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경기도 광주에 설립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장기수들을 초청해 위안법회를 열었다. 이 같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현재의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참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을 맡은 것은 1998년 포교원 사무국장에 임명된 향원 스님이 처음이었으며 부장급은 2005년 탁연 스님이 처음으로 문화부장을 맡았다. 최근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참여가 늘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교구되고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해 불교중앙박물관과 중앙종무기관이 한 곳에 입주시키며 일신한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불교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전문화시키고, 템플스테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조계사 일대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법회관을 건립했고, 공주에 한국문화연수원을 건립해 중앙연수 시설을 갖췄다. 전문 모금기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해 불교계 자비나눔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태고종, 전통의식 脈이어

현재 태고종은 1970년 대처승 측이 별도로 종단을 설립해 통합종단에서 탈퇴하며 시작된다. 태고종의 가장 큰 특징인 한국불교의 의례와 예술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가사인 홍가사(紅袈裟)를 그대로 수지하고 있으며 범음범패(梵音梵唄)와 불화단청(佛畵丹靑) 등 국가지정 불교 무형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교문화의 창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태고종은 1980년부터 승려합동득도를 실시해 선교육(先敎育) 후득도(後得度)제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매년 약 200여명의 자격 있는 승려가 배출돼 산하사찰에서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진력하고 있다.

태고종은 지방교구와 해외 등에 21개 종무원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3,000여 사찰과 7,000여 스님이 있고 간행물로는 종단 기관지인 주간 〈한국불교신문〉과 일제강점기 한용운스님이 창간한 오랜 역사의 월간지 〈불교〉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1982년 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해 20여 년 동안 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태고종은 2004년에 시작한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건립사업이 2007년 완공되면서 '사간동 시대'를 연다. 전승관에는 불교문화예술 상설공연장과 불교문화재 및 예술품 전시관,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관, 대륜불교사상연구소 등을 갖춰 포교와 교육을 위한 불교종합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종단의 지속사업으로 중앙복지원을 설립하여 사찰의 복지단체조직화를 통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종단 집행부와 반대측의 갈등이 지난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의 중창

한국 천태종의 개창조는 고려 의천 대각국사이며, 중창조는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 1911~1974)이다. 상월원각대조사는 15세에 출가해 고행수도 끝에 41세에 대각을 이루고 평생을 불교중흥과 중생구제에 진력했다. 1945년에 구인사를 창건했고, 1967년 천태종을 중창했다. 2대 종정은 남대충(1925~1993)대종사이며, 현 3대 종정은 김도용(金道勇, 1943~) 스님이다. 소의경전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이며, 〈법화삼대부(법화문구, 법화현의, 마하지관)〉와 〈천태사교의〉를 중요 경전으로 한다.

천태종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空), 가(假), 중(中) 세 개의 진리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삼제원융(三諦圓融)을 근간으로 하여 일념삼천(一念三千),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천태묘법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완성, 불국토 건설, 법성체 결합의 3대 강령과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를 실천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있다.

천태종은 구인사 입교법회를 통해야 신도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킨 것도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다. 한 종단 신도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천태종은 총본산 체제를 갖춘 중앙집권적인 종단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천태종은 본산 구인사를 비롯 전국에 200여 사찰이 있으며, 500여 스님(독신비구, 비구니)들이 신도들을 교화하고 있다. 천태종은 특히 부산의 삼광사, 서울의 관문사 등 도심 사찰의 건립과 포교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4년제 종립 금강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통한 대북 교류에도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각종 창종

진각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밀교 종단이다. 진각성존으로 추앙되는 회당(1902~1963)대종사는 1947년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을 통해 불법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후 회당대종사는 1947년 5월 최초의 교화도량을 경북 영일군 기계면 이송정에 마련해 명칭을 '참회원(懺悔園)'으로 명명했다. 1948년 8월 교명이 교화단체 참회원으로 정해졌다가 다시 1951년 심인불교건국참회원(心印佛敎建國懺悔園)으로 변경했다.

1953년 8월 종단의 체제 완성을 위해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헌법이 제정됐고, 그해 12월 대종사의 유법에 따라 종명을 '진각종'으로 명명했으며 1954년 1월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유지재단을 설립해 법적인 토대가 완성됐다.

이후 진각종은 한국과 세계 각지에 심인당을 개설했으며 1996년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를 개교했다. 이어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가 설립됐다.

관음종 창종

관음종은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1905~1979)가 1957년 3월 10일 일승 불교 현정회 설립으로 시작을 알렸다. 1988년 5월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에 따라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명을 개명했다.

현재 관음종은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견실한 종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운영하며 복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 내 관음장학회를 두어 도제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설립

이 같은 주요종단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창립해 우호와 국제 불교 교류 등의 공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67년 5월 국내 불교계 대표 75명이 모여 불교계의 대동단합과 총화를 기하고 호국불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대한불교총연합회를 발기했으며,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 발기인 200명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를 창립했다. 1975년 18개 종단이 문화공보부에 등록돼 있었다.

당시 연합회에는 원불교 역시 가입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민족 종교의 입장을 고수하고 해외에서는 불교로 입지를 굳혀 논쟁이 돼 왔다.

1980년 11월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1989년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됐으며 28개 회원종단으로 확대돼 활동하고 있다.

종단협은 매년 한 · 중 · 일 3국 불교도들의 국제회의인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축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주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단만 200여개, 이유는?

광복 이후 한국 불교를 변화를 살펴보면 큰 줄기로 내려오는 조계종과 주요종단 설립이외에도 무수한 군소 종단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200여 곳의 종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에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연락처가 확인된 종단 수는 265곳이었고 그 가운데 137곳의 현황을 파악해 소개했다. 최근에는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조계종'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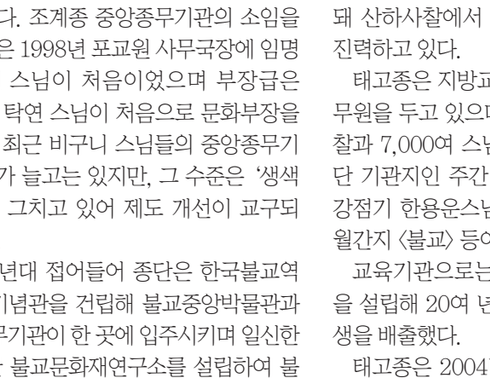
이렇게 많은 종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교법인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불교 종단의 분파활동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에서 "신생종단이 급증하는 시기는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는 것과 밀접하다"면서 "종교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무렵 66개의 신생종단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생종단의 등장이 아니라 이들 종단들의 정체성이 모호해 불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계의 대다수 신생종단은 창종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이념과 실천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불교적인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생종단이 한국불교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보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대웅전 · 요사채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신앙심과 국력 높이는 불사… 왕실 직접 관여

탑의 진화

㉘ 신라의 불탑(1)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탑' 이란 말 그대로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란 뜻이다. 이러한 모전석탑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전탑을 모방하거나, 전탑의 특징인 들여쌓기와 내어쌓기 양식을 모방한 경우이다.

'분황사모전석탑' **〈사진1〉**은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이 재위 3년만인 634년에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조성한 불탑이다. 그 당시 돌을 다루는 석공들이 '안산암' 이라는 돌을 일일이 벽돌크기로 다듬어 9층의 석탑을 이룩한 것이다. 진평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백성들의 옹립으로 왕위를 계승한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대국의 문화라고 하여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선별하여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신라문화와의 조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원칙은 불탑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당나라 수도인 서안에는 벽돌을 이용한 고층 누각식의 전탑이 유행하고 있었다. 신라의 많은 유학승들은 목탑이 아닌 벽돌로 조성한 고층 누각의 불탑을 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아마 신라 수도 경주에도 중국의 고층전탑과 견줘 손색없을 정도의 불탑 조성을 왕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비록 평지라 하더라도 9층으로 우뚝 솟은 불탑을 경주 시내에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탑을 예경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진2〉** 이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의 표현과 국력의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는 불사였기에 왕실에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탑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흙과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풍부한 땔감, 그리고 벽돌을 말릴 수 있는 넓은 공간 등 몇 가지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벽돌은 돌과 비교했을 때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조성한 것이 신라 사람들이다. 이는 당나라 문화를 신라만의 방식으로 바꾼 창의력의 완성품이라 할 수 있다.

안산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 가까이 솟아 나와 갑자기 식어서 굳어진 것이다. 색깔은 회색을 띠고, 내화성이 강하며 재질이 단단해 풍화에 잘 견딘다. 또 발달된 결 때문에 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부 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안산암을 이용한 분황사 불탑은 자연석으로 높게 쌓은 단층 기단위에 화강암으로 받침을 마련하고 탑신을 올렸다. 1층 탑신에는 4방에 돌로 여닫이문을 달고 그 안에는 불상**〈사진3〉**을 모신 예불공간을 두었다. 문 좌우에는 양감이 강조되어 사실적으로 표현된 금강역사상이 각각 조각되어 있다. 한쪽은 입을 벌린 공격자세의 밀적금강역사(아금강)와 맞은편은 입을 다문 방어자세의 나라연금강역사(훔금강)이다.

기단의 네 귀퉁이에는 사자상이**〈사진4〉** 배치되어 있다. 탑에 사자상이 출현하는 것은 경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558년에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가 한역한 〈대비경(大悲經)〉의 사리품(舍利品)에는 다음과 같은 경설이 전한다.

아난아! 내가 열반한 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북천축국에 기바가(祇婆迦)라는 비구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는 과거에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대승(大乘)에 안주하였다. 그래서 그는 여러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보살장(菩薩藏)을 지녔고, 대승을 칭찬하고 널리 선양하였다. 또한 이 비구는 나의 사리와 형상과 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 이를 바로잡아 고치고 수리하여 황금으로 장엄할 것이다. 당(幢)과 번(幡)을 세우고 보배로운 지붕[寶蓋]에는 풍탁 같은 방울 그물[鈴網]이 미묘한 소리를 낼 것이다. 여래의 한량없는 형상과 여러 탑을 조성하니, 그 모든 탑들은 모두 반달(半月)과 사자(師子)로 장엄하여 모든 하늘과 사람들의 무리로 하여금 마음에 믿음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大正藏12, p.955, 중)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석탑 조성
당나라 문화 창의적으로 계승
벽돌 이용한 고층 전탑
신앙심 표현·국력 위상 높여

부처님 출가일 열반일 맞춰
탑돌이 봉행 신라 풍속 고착화

라는 내용이다. 이 경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탑을 조성하고 사자로 장엄해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하라는 것이다. 분황사 탑은 물론 백제 미륵사지석탑, 통일신라 불국사 다보탑, 화엄사4사자석탑 등에 사자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분황사는 향기가(芬) 나는 임금(皇) 즉 선덕여왕을 지칭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경주에는 '7처가람지허(七處伽藍之墟)' 라 하여 전불(前佛)시대(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부터 일곱 곳의 인연 있는 절터가 있는데, 천경림(天鏡林) 흥륜사(興輪寺), 삼천기(三川岐) 영흥사(永興寺), 용궁남(龍宮南) 황룡사(黃龍寺), 용궁북(龍宮北) 분황사(芬皇寺), 사천미(沙川尾) 영묘사(靈妙寺), 신유림(神遊林) 천왕사(天王寺), 서청전(胥請田) 담엄사(曇嚴寺)가 그렇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용궁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분황사와 남쪽에는 황룡사가 위치할 정도로 신라의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주요한 사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황사가 건립될 당시 주지는 신라를 대표하는 자장율사였으며, 뒤를 이어 원효스님이 이 절에 주석하였기에 그가 창시한 법성종(法性宗)을 분황종(芬皇宗)이라고도 한다.

분황사의 불탑은 원래 9층이었다. 하지만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당하여 절은 화재로 소실되어 폐사가 되었고 탑은 최소한의 형태**〈사진5〉**만 유지된 채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5년 이 탑을 수리하였지만 복원에는 실패하여 현재는 3층으로만 남아 있다. 그 당시 2층과 3층 사이 석함(石函)속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각종 옥류와 패류, 금은제 바늘과 침통, 가위 등 역시 함께 출토됐다. 특히, 중국 북제의 천보(天保) 4년(553년)에 만들어진 상평오수(常平五銖)와 송나라 때 만들어진(1102년경) 숭녕통보(崇寧通Æd도 출토됐다. 이 같은 사실은 분황사 탑이 고려시대에 전면 보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탑은 1962년 국보 제30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흥륜사 불탑

문헌상 기록으로 신라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사찰은 흥륜사(興輪寺)이다. 흥륜사는 미추왕 2년(263)에 아도가 신라로 와서 천경림에 절을 세우고 흥륜사라 하였으나, 곧 폐사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22년(535)에 공사를 시작하여 진흥왕 5년(544)에 완성한 신라 최초의 사찰이다.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진 흥륜사는 신라 불교에 있어서 매우 비중 있는 사찰로서 법흥왕과 진흥왕이 만년에 출가 수행한 절이기도 하다. 특히, 금당에는 아도(我道), 위촉(厭觸), 혜숙(惠宿), 안함(安含), 의상(義湘), 표훈(表訓), 사파(蛇巴), 원효(元曉), 혜공(惠空), 자장(慈藏)스님의 신라 10성을 모셨다. 이들 열 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정신적 지주들이었다. 이러한 흥륜사의 기록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불탑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

삼국유사 제5권 김현감호(金現感虎)조에 의하면,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8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경주에 사는 남자와 여자들이 흥륜사에 모여서 전각과 탑을 돌면서 복을 비는 모임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카필라 성을 넘어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출가일이 된다. 또한 2월 15일은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의 사라나무사이에서 사자처럼 오른쪽으로 누운 채 열반에 드신 날이다. 7일 간격으로 있는 성도일과 열반일을 신라의 불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일종의 '불교도 주간' 으로 정해놓고 신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흥륜사를 찾아 탑돌이 법회를 한 것이다. 탑돌이의 공덕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기에 이미 신라의 풍속이 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한다.

오늘날 경주 오릉의 북쪽에는 사적 15호로 지정된 천경림 흥륜사지가 있고, 지금은 흥륜사**〈사진6〉**란 명칭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1910년대에 이곳에서 사찰의 금당터로 짐작되는 흙으로 쌓은 기단과 석불 등이 발견됐고, 이곳의 지명이 '천경림' '흥륜들' 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이 장소를 신라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지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1972년과 1977년 6월에 흥륜사지 발굴 작업이 실시되어, 이곳에서 '영묘사(令妙寺)' 와 '영묘사(靈廟寺)' 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출토되었다. 한편 2008년 10월 경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배수공사 현장에서는 '흥(興)' , '사(寺)' , '왕(王)' 자가 적힌 명문기와가 출토됐다. 이로 인해 현재 흥륜사지로 알려졌던 곳은 선덕여왕이 창건한 영묘사이고 경주공고 자리가 흥륜사일 것이라는 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 선덕여왕이 634년에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조성한 불탑이다. 안산암을 벽돌처럼 다듬어 조성했다. 원래 9층이었으나 현재 3층으로만 남아있으며 1962년 국보 제30호로 지정됐다.

〈사진2〉



분황사9층탑 복원모형

〈사진3〉



각 4면에 있는 감실 입구와 금강역사상. 감실안에는 후대에 조성한 입불상을 모셨다.

〈사진4〉



분황사 모전석탑 기단에 조성되어 있는 사자상.

〈사진5〉



1910년대의 분황사탑. 최소한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

〈사진6〉

천경림 흥륜사 전경. 신라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지로 추정된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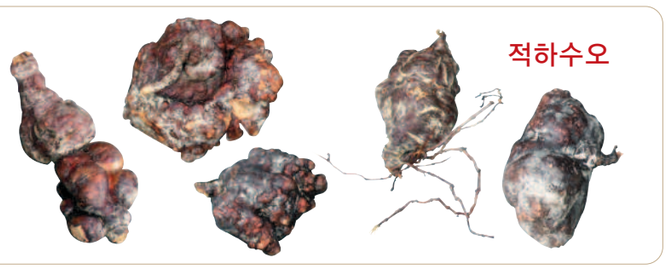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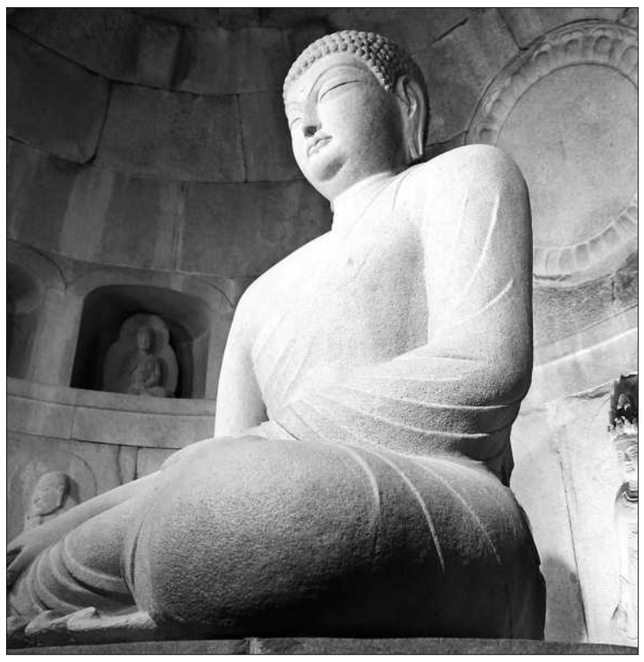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붓다, 우리를 이끄는 이상적 인간상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5. 붓다에 귀의하며 받들다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존불. 깨달은 자, 부처님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범부 중생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법과 삼보의 관계에 관해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받들다. 법에 귀의하며 받들다. 승(僧)에 귀의하며 받들다" 이 삼보귀의의 말을 세 번 외움으로써 불교인의 신앙고백으로 한다는 규정은 붓다가 전도를 시작한지 얼마 후에 정해졌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변화는 있었지만 삼보귀의의 말은 언제나, 그 신행의 표백의 형식으로써 불교인들의 입에 올랐던 것이다.

진실로 불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삼보' 처럼 친근미가 깊은 것은 없으며 또 불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삼보귀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말한다면 불교란 틀림없이 존재의 법칙성, 즉 정법(正法)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러나 추상화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친근하게 우리 생활실천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론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며 구체적인 생활실천으로서의 불교에 있어서는 법칙성으로서의 법은 그 뒷면으로 물러나고 삼보가 그 전경(前景)에 놓여진다. 추상화된 법은 점점 기둥으로써 그 배후에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한 붓다와 교법과 승가가 불교인 생활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이다.

물론 법과 삼보(三寶)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삼보는 이것을 추상화하면 정법이며, 법은 이것에 살을 붙여서 구체화하면 삼보가 된다. 즉 법에 살을 붙여서 이것을 인간상으로 인격화 한 것 그것이 붓다이다. 또 법을 인간에 맞는 가르침으로써 설명하면 그것이 교법(敎法)이 된다. 또 법이 행해지는 사회적 집단의 이상을 말한다면, 그것이 승가인 것이다.

이상 세계의 인간상

삼보의 제일보, 부처 혹은 붓다란 불교인에게 있어서 이상의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두 개의 세계에 산다. 그 하나는 물론 현실의 세계이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잘못을 반복하며 불안에 떨며 격정(激情)에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그 내 모습 위에 눈물을 뿌리면서도 여전히 삶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 사나운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이 만사(萬事)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태어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이데스의 문을 지나서 두터운 대지의 옷 밑에 눕는 것이 가장 상책이니라."

이렇게 노래한 옛 희랍 시인의 심정은 역시 가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하게 스며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몸과 목숨을 아끼며 아윈 몸에 채찍질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또 하나의 세계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꿈꾸며 생각하며 소원하며 그려진 이상의 모습을 좇는다. 불교인의 소위 피안(彼岸)이란 이러한 이상의 세계이다. 또 붓다란 피안의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이 그려낸 이상의 모습인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깨달은 이를 붓다라고 부른다. "세존은 응공(應供)이시다. 정등각자(正等覺者)이시다, 명행족(明行足)이시다. 내지는 붓다이시다"라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귀의의 표현 속에도 그러한 것은 분명히 엿들을 수 있다.

붓다로서의 조건에 관해서

그러면 붓다라고 불리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때와 장소와 사람에 의해서 그 구현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역시 몇 가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각자(覺者)' 라는 오랜 용어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자' 라는 것은 붓다라는 말을 의역한 것임이 틀림없다. 어떤 경전의 주석자는 붓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축(西竺, 인도를 말함)에서는 붓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각자(覺者), 지자(知者)를 말한다. 혼미(昏迷)에 대해서 지(知)라고 이름 붙이며 우(愚)에 대해서 각(覺)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면 각(覺)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관해서 먼저 분명하게 눈을 뜨는 것이다. 탐욕, 진에, 아견이 용솟음치는 곳에는 사람은 결코 명석하게 자기 몸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다. 단호한 부정(否定)의 저편에 자연히 인간의 있어야 할 모습, 당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여 온다. 그때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두 번째의 원리는 '정등각' 이라는 옛 경전의 말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어휘 자체가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각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각의 내용은 이것을 지혜라는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옛부터 행해져 있으나 그 지혜란 어떤 지혜인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 '정등각자' 이다. 그 각(覺)은 정(正)하며 등(等)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이란 올바른 것, 등이란 보편적인 것. 따라서 정과 등의 조건을 갖춘 지혜란 모든 것, 모든 경우에 올바르게 서로 응하는 지혜라는 뜻이 된다.

자기에게는 퍽 편리하지만 남에게는 편리하지 않다면 결코 좋은 행동의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저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인격 건립(建立)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상응하지만 자연세계의 생물 무생물에게는 상응하지 않는 지혜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모순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깨달은 자의 지혜란 이런 것이어서는 안된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정등한 지혜를 갖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이 지혜에 내온 몸을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상적인 인간모습의 건립을 향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세 번째의 원리는 불교 경전의 말을 빌리면 '명행족' 이라고 한다. 명행족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각행원만(覺行圓滿)' 이란 뜻이다. 지명(知名) 즉 각(覺)과 함께, 실천 즉 행(行)이 같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혜만이 있으며 실천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며 말로만 할 뿐이며 행하는 것이 없다면 훌륭한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병폐이며 우리들도 언제나 반성함으로써 스스로 채찍질해야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병적인 상태는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일까. 그것은 신(信)의 부족, 발심기행(發心奇行)하는 힘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욱 이것을 파내려가면 결국 각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철저히 살펴 볼 때, 그때 우리들은, 몸서리칠만한 놀라움과 두려움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들은 불조선덕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의 당위(當爲)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됐을 때, 참으로 환희에 넘치면서 그 가르침에 귀명(歸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네 번째의 원리로서는 옛 경전이 자비라고 일컫는 실천의 원리를 첨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후의 경전들이 '불심(佛心)이란 대자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음이 먼저 생각난다. 붓다의 길은 먼저 자기 속에 깊게 침잠(沈潛)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반성이란 스스로의 허물을 잊어버리며, 바깥을 향해서 치닫는 길이 아니다.

자기에게 날카로운 성찰의 눈을 돌리며, 자기에게 날카로운 실천의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도야(自己陶冶)의 길을 정진하는 자가 잠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본다. 거기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듯이 인간고(人間苦)를 걸머지고 힘없이 인생의 여로(旅路)를 걷고 있다.

'불심이란 대자비 바로 그것이다' 라고 경전의 말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거리낌없는 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지혜이다. 이러한 경지를 같은 경전에서 '대비(大悲)는 대혜(大慧)이다' 라고 했다. 깊이 음미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道가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중하고 道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중하다

1. 佛法은 학문의 군더더기인가 (下)

답 이른바 극치(極治)의 백성이라함은 그 몸이 다하도록 오악(五惡)을 행하지 않음이다. 오악이란 무엇인가. 살생 · 도적질 · 삿된 음행 · 허망한 말 · 술마시고 고기먹음이다.

슬프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많음이여, 세상이 또한 그를 다스릴 수 잇으니, 이가 형벌과 정치를 시행하는 인유(因由)이다.

비록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정제(整齊)함을 말했으나 그 방지함은 미비(未備)함이 있고 권면함도 극진하지 못함이 있다.

그러므로 착한 자는 게으르고(懈怠) 악한 자는 방종하나니, 방종하여 악을 지어도 요행히 숨기면 면하게 되므로 공자가 '부자(父子)는 서로 허물을 숨겨줌으로써 곧음을 삼는다' 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

구차히 면하려는 계교가 마음에 있다면 그 악을 행하는데 또한 무엇을 꺼리겠는가. 그러므로 허물을 숨기려함이 지극하면 삿된 아첨 · 거짓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서 신하로써 임금을 속이고, 자식으로써 아버지를 속이며, 백성으로써 윗사람을 속이며, 부부 · 장유 · 붕우의 사이가 다 그렇지 않음이 없게 된다.

공명(功名)과 이록(利祿)의 사이에 급급함이 있는데 이르러서는 경쟁하고 투기하여 서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여 간특함과 속임수는 날로 성대하고, 덕과 의로움은 날로 없어져 풍속(風俗)의 마음이 날로 더욱 요탕하게 된다.

그 때문에 천지의 귀신이 싫어하지 않음이 없어 조화된 기운을 상하게 되므로 기근이 자주 이른다.

부처님이 법을 제정하심은 갖춤을 다하고 매우 엄정하여 살핌은 귀신이 있고, 국문(鞫問, 임금이 심문)함은 명부(冥府)가 있으며, 죄를 줌은 선 · 악의 두 문서가 있고, 묻거나 따짐(質正)은 저울과 거울의 두 증거가 있다. 벌을 함은 귀신과 축생도(畜生道)가 있으며 형벌함은 지옥이 있어 털끝만한 악도 도망할 바가 없으며, 상을 내림은 천당으로써 하며, 보답은 부귀로써 하며, 품류(品類)는 인륜(人倫)으로써 하며, 오르게 함은 극락으로써 하여 물방울이나 티끌같은 착함도 들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의 귀신이 그 몸을 보존하고 그 실천함을 보호하지 않음이 없어서 조화된 기운은 맑아져 비오는 날과 맑은 날씨가 알맞은 시기로 하며, 전쟁 도구(兵革)는 소멸하여 인민이 편안하다. 국계(國界)는 그로써 치평(治平)하고, 군신(君臣)은 그로써 경하로움이 잇는데 어찌 군더더기로 천하에 이익이 없다 말하겠는가.

주나라가 쇠약한 말기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한결같이 서로 속이는 것으로 이익을 삼으며 살육으로 공을 삼아 약한 자가 토하면 강한 자가 삼키며 서로 서로 침략하고 정벌하니 생민의 도탄이 극에 달하였다.

때에 공자 · 맹자의 성인과 현인이 있어 급하고 급하게 인 · 의 · 충 · 서(仁 · 義 · 忠 · 恕)와 선왕의 도로 사람을 훌륭히 인도하여 포폄하고 거벽(拒闢)하는 말이 진실로 이미 방도가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구할 겨를이 없었다.

만일 당시의 임금 · 신하 · 선비 ·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대각(大覺)의 가르침인 인과죄복(因果罪福)의 논(論)을 듣고 살아서는 비록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죽으면 또한 신후(身後)의 과보를 면치 못함을 살피게 했다면 풍교(風敎)를 옮기고 습속(習俗)을 바꾸어 훌륭히 다르려진 세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요즈음에 선남자와 청신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계율을 지녀 어지럽기 않은 자는 마치 연화(蓮花)가 진흙 속에서 나옴과 같아 반드시 시속(時俗)의 존중할 바 된다. 비록 부처님 · 조사의 뜰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진실로 더러운 악으로써 지칭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람을 가정에 살게 하면 가정이 순박해지고, 관직에 있게 하면 관직이 청정해지고, 군수(郡守)가 되면 백성의 풍속이 착해지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된다. 이른바 '맑은 구슬을 탁한 물에 던지면 탁한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다' 함이 이것이다. 더구나 정혜(定慧)에 전심(全心)하여, 그 도를 극진히 하는 자에 있어서랴.

옛날 심 선사가 조주(趙州)에 살았는데, 이웃 나라가 서로 공격하려 하였다. 기운을 보고 점을 치는 자가 있어 바라보고는 말하기를 '조주에는 성인의 기운이 있으니 사우면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포위를 풀어 버렸는데, 도가 한 고을에 있으면 한 고을이 중(重)하고, 도가 한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가 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중하다 함이 이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탈북동포 同體大悲로 품어야…

〈동체대비〉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 **홍성란** (상임포교사)



홍성란 포교사는 …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성란(법명 보현화)씨는 2008년부터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 상임포교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서울 능인선원에서 불교기초과정과 경전반 등을 3년 넘게 수학한 후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2008년 제13기 조계종 포교사로 품수했다.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새터민 포교를 펼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통일팀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자리에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입을 뗀 그녀는 숨가쁘게 말을 이어갔다. 불교, 통일, 북한. 그녀가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였다. 포교사로서는 최초로 통일전문교육위원에 임명되고 통일부 장관상을 받기도 한 홍성란(55) 포교사. 햇수로 8년 동안 그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새터민포교에 헌신해왔다. 탈북동포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제안도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혼자 힘으로 새터민들을 불교 법당으로 모았고 후원처를 찾으러 전국을 뛰어다녔으며 타종교가 독식하던 프로그램을 불교계에서 운영하게 만들었다. 땅을 개간하듯 억척스레 고군분투해왔으니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 못다한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다. 준비한 질문지가 무색할 정도로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던 그는 말하는 내내 새터민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바빴다.

열세였던 불교 氣펴기 프로젝트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독교, 가톨릭, 불교 세 종교가 일요일마다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해요. 이웃종교에서는 주로 물량공세로 처음부터 새터민들의 환심을 사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 퇴소할 때도 냉장고, 전자렌지 등을 챙겨줬죠. 조직적 지원이 남달라요. 반면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줄 게 없더라구요. 종단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교 프로그램 역시 전혀 구비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처음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 갔을 때만해도 타종교 시설에는 2백명 가량이 모여있던 반면 불교 법당에는 2~30명이 있는게 전부였다. 홍 포교사는 새터민 포교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한 불교 현실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불법이 기를 펴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당하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물품 지원은 힘들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다. 그녀는 법회 때 읽던 경전을 천수경에서 부모은중경으로 대체하며 프로그램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아직 종교에 낯설고 한국문화에 어리둥절한 새터민에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주력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은중경이 딱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감동받은 새터민이 늘기 시작하면서 법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홍 포교사는 이에 머물지않고 2시간 남짓한 법회시간을 재미있게 꾸려주기 위해 연꽃만들기도 도입하고 북한 노래를 채보해 노래집도 직접 만들어 그들이 불교를 즐겁게 즐기도록 도왔다. 북한에서는 한복을 입을 기회가 없었다는 새터민들의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수계식때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 지금은 매주 1백여명이 꾸준히 법당을 찾는다.

"새터민은 불법 홍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3천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동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 이곳에서는 타종교가 새터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에 이길 수가 없어요. 퇴소하고나서도 새터민들이 모이는 회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이죠."

홍 포교사의 말에 따르면 2만여명에 달하는 새터민들 중 열에 여덟은 기독교 혹은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그는 늘 교육생들이 퇴소하고 난 후가 걱정이다. 전국 도시 외곽으로 흩어지는 새터민들이 갈 만한 절을 찾지 못해 불교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당에 자주 나오던 새터민은 퇴소후 기독교인이 됐다. 모여사는 새터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것도 유효했지만 교회에서도 승합차를 운영할 정도로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다. 그는 하루 속히 거점 사찰을 만들어 새터민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새터민들을 위한 법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터민은 향후 북한 포교 인적자원으로 여겨야 해요. 평양에는 신학교가 있어 목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새터민은 그들대로 타종교를 신앙으로 삼고 있

8년째 헌신… 발로뛰며 후원처 찾아다녀

고향과 가족 그리운 마음 달래기 주효

〈부모은중경〉강독시행…법회 참가자 5배 늘어

봉사활동, 가정체험, 장학금 지급 이끌어내

2014 통일부장관상 수상·통일교육위원 위촉

"새터민은 향후 불교포교 중요 인적자원"

불교계 여전히 '뒷전'…후원자 발굴 큰 어려움

으니 향후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서야 포교한다고 나서봐야 한참 늦죠."

생각할수록 불교의 앞날이 캄캄했다. 타종교에 비해 뒤처졌다는 조바심과 안타까운 현실 인식은 그녀를 새터민 포교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불교만 못하나요?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는 남한의 가정을 체험해보며 문화를 익히고자 도입된 가정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1명당 1가정을 매칭시켜 1박 2일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1백명 이상씩 체험을 나가기에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종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는 매번 진행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열세였던 불교는 제외되고 기독교와 천주교 두 곳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던 터였다. 새터민들이 시설에서 나와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첫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홍 포교사는 여기서 불교만 누락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겼다. 불자 새터민이 겪은 사건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가정체험에 자원했던 여성이 염주를 차고 있던 새터민이 잠든 틈을 타 마귀가 물러가야 한다며 새터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던 것이다.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종교적 부당함을 여러차례 설득한 끝에 1년 후 기회가 왔다.

"그 때 환희심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에요. 우린 더 잘할 수 있다고 내내 말씀드렸죠.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요. 포교에 있어 불교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뻐한 것도 잠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적을 두고 다니는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탁할데도 마땅찮았다. 겨우겨우 수소문해 스님들을 찾아가면 새터민을 간첩취급하며 난색을 표하기 일쑤였다. 앞이 깜깜했다. 호언장담하고 이뤄낸 성과인데 이대로 불교가 망신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부산까지 쫓아가 안면이 있던 금천선원 정운 스님에게 사정사정해서 부산지역 13개 사찰에서 동참하기로 결정, 총 130가정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안양 한마음선원, 불광사, 봉녕사, 용화사, 각원사 등을 돌아다니며 가정체험을 진행했다. 108순례로 유명했던 도선사에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겠단 생각에 무작정 혜자 스님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드렸다. 혹시라도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면 밤 10시에도 스님들을 깨울 수 밖에 없었다. 원망을 듣더라도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이처럼 가정체험에 열심히 매달렸던 것은 새터민들이 처음 접해보는 남한의 가정이 바로 포교 현장이 되리라 생각해서였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남한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먹다보면 친정엄마를 만난 것 같다고 새터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인연으로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곳들도 종종 있어요. 정운 스님은 새터민 학생에게 매달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 홍 포교사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새터민들의 봉사체험이었다. 음성 꽃동네로 가서 봉사를 하고 왔던 이들이 카톨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감명을 받는 것을 보고 복지하면 불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파라밀요양원도 봉사활동장소로 추가하도록 실무자들을 설득했다.

새터민 아픔이 내 아픔

일당백을 해내는 홍 포교사 덕분에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서만큼은 이웃 종교의 득세도 8년 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날씨가 아무리 궂어도, 몸이 아파도, 심지어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할 때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 새터민들을 만나러 갔다. 8년간 단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다.

"저도 몸도 피곤하고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스님들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릴때도 있고 원망 들어가며 후원을 받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후원자분들 비위 맞춰주며 연신 감사하다고만 하죠. 개인일이라면 벌써 그만 뒀을 거에요."

처음에는 신심으로 다닐 수 있지만 결코 신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포교. 경제적 후원도 없을뿐더러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터라 포교사 갱신률은 40%에 지나지 않는게 현실이다. 새터민 포교역시 홍 포교사가 최고참이며 그 다음 오래된 이가 5년차에 접어든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다.



“새터민 포교 일당백으로 해내죠”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 수계식 장면. 북한에서 한복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한복이 인기다.



2013년 12월 통일부장관상을 받은 후 새터민 포교를 같이 하고 있는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과 함께. 지강 스님(사진 오른쪽)은 같은 해 7월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0년 청와대에서 통일부 유관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이명박 前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이가 홍성란 포교사다.



새터민 가정체험을 진행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퇴소하고 나서 전화를 걸어오는 새터민들의 경조사도 꼬박 챙긴다. 그들입장에서는 가족처럼 가깝다 생각해서 전하는 소식이니 만큼 모른척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는 단 몇 푼이라도 챙기고 나서 그들을 만나러 간다. 자신의 움직임이 새터민들에게는 곧 불교가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지니 내키는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이토록 새터민 포교에 올인하게 된 연유는 따로 있지 않다. 포교사 시험도 주위 권유에 우연히 응시해 합격한 것이 다고 시설에 배속된 것도 집과 가깝다는 이유가 전부였다. 동기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단지 현장에서 만난 새터민들의 아픔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생사를 걸고 넘어왔죠. 7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걸었는지 발톱이 다 빠져있을 정도고 세 살짜리 아이는 엄마랑 함께 오다 발각돼 북송된 엄마를 뒤로 하고 혼자 어른들 틈에 섞여 내려왔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도 1살배기 아이를 들쳐업은 엄마도 제각각 사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눈물을 보였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곧 제 아픔이더라구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단번에 그들의 고통이 전해졌어요. 새터민들의 몸은 성인일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이에 불과해요. 그들이 이곳에서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거사가 따로 있지 않았다. 오로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생사를 넘어 가까스로 남한땅을 밟은 이들 앞에서 그녀 자신도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10년간 억척스레 새터민들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이유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10년전과 그대로 016으로 시작한다. 퇴소하고 난 새터민들이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결번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실망할 것 같아서다. 덕분에 얼마 전에는 새터민 중 한명이 스님이 됐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새터민 모두가 자신에게는 동생이자 딸이며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홍성란 포교사. 일요일이면 법당 앞에 서서 새터민들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레 안아준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 고향과 떨어져 외롭고 정에 고픈 이들은 그녀 품에 안기기 위해 일렬로 서 있기 마련이다.

“제가 오히려 이곳에서 매번 부처님 가피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말 행복해요.”

고군분투해온 지난 시간. 홍 포교사는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는 “함께 가고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고맙다”며 “그분들의 마음이 모여 눈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불교 위상도 올리고 사람들을 다독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모집은 어렵다. 새터민들이 퇴소할 때 각 종교에서는 전자렌지와 밥솥, 이불을 나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온전히 지강 스님의 원력만으로 이불을 지원하고 있다. 한 달에 대략 5백만원씩 1년이면 6천만원에 달한다. 한 사찰에만 의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릇역시 종교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는 얼마 전 후원처가 끊겼다. 지금은 홍성란 포교사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어떤 도움이든 절실한 것이 지금 새터민 포교의 현실.

그는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허가한 이유도 지친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새터민들을 감싸안는 것이 불교가 할 일”이라고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까지 새터민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전법일기

열악한 대학생 불교동아리

어느 날 전남대 불교학생회장이 백양사에 찾아왔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불교 동아리 운영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찾아오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학생은 내게 동아리에 찾아와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러 계층의 포교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주저 없이 법문을 약속했다.

며칠 후 저녁에 찾아간 동아리 방은 생각보다 무척 협소했다. 열 명이 앉으면 꽉 차는 작은 방에 불교서적과 컴퓨터 그리고 작은 불단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학업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4학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 후로도 2주에 한 번 법회를 진행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함께 했다.

학교 축제 때는 백양사 불교용품점에 특별히 부탁해 합장주와 핸드폰 고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학생들과 친해질 무렵 아쉽게도 나는 백양사를 떠나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 때 종단 포교원 포교국장 스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도 받았다. 종단 포교원 산하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대학생 전법단의 주된 활동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과 대학생 법회가 없는 서울 시내 주요사찰에서 대학생법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조계사와 봉은사, 길상사 등 서울시내 주요사찰에서 대학생법회를 운영하는 스님들과 만나 법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국대 석림회 스님들과 법회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법회 진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와 함께 수차례의 논의와 편집을 거쳐 대학생 법회에 맞는 법요집을 발간하고 각 학교와 대학생 법회 진행 사찰에 무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불교동아리 방을 새롭게 꾸며주는 사업도 했다.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는 많았지만 먼저 성남전법단에서 요청한 신구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방을 바꿔주기로 했다.

신구대 불교 동아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도 줄고 법회도 끊어져 동아리가 폐쇄될 위기에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동아리 방은 오래 묵은 탁자와 의자, 철제 캐비넷 그리고 이미 폐품이 되어버린 연등과 학생들이 신던 축구화 등 각종 잡동사니들로 어지러웠다. 우선 최소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 잡동사니들을 다 걷어냈다.



그림 · 박구원

신발을 신고 다니던 바닥에 장판을 새로 깔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흉해진 불상대신 석굴암부처님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벽에 걸었다. 묵은 먼지로 때가 낀 촛대와 향로를 새로 바꾸고, 불단은 목재소에서 나무를 구입해 직접 만들었다. 포목점에서 불단에 어울리는 천을 구입해 덮고 새로 장만한 법구를 올려놓으니 한결 깔끔했다. 서울과 성남을 수차례 오가며 땀을 흘렸지만 다 완성된 동아리방을 보고 활짝 웃는 성남전법단 사무과장과 신구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에 피곤함은 깨끗이 달아났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신행활동이 저조하다. 그럴수록 오히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고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출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들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른 신행활동으로 마음을 닦은 젊은 불자들이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미얀마 성보 미국 뉴욕 첫 나들이

아시아소사이어티박물관서… 2월 10일부터 3개월간

부처님 입멸 후 천년동안 초기불교의 전통을 지켜낸 미얀마 불교미술의 진면목이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처음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미얀마 온라인 매체 〈DVB〉 지는 "미얀마의 불교성보 70여 점이 오는 2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박물관(Asia Society Museum) 특별전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특별전에서 미얀마 불교미술이 기나긴 세월을 이겨내며 간직해온 초기불교미술의 독특하고 섬세한 예심과 불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DVB〉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일 미얀마 불교미술품은 70여 점으로 돌 · 청동 · 나무를 소재로 한 조각을 비롯해 섬유, 회화, 의구 등 다양하다. 또한 미얀마에서 불교미술이 어떻게 태동했고 시대 ·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문화사학적 접근도 시도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박물관 측은 이번 '미얀마 특별전' 에서 선보일 불교성보 대부분 미얀마 국립박물관, 바간 고고학박물관(Bagan Archaeological Museum), 스리 케트라 고고학박물관(Sri Ksetra Archaeological Museum), 카바 아에 불교미술박물관(Kaba Aye Buddhist Art Museum) 등지에서 임대했다. 이밖에도 미국 내 공공 및 사설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얀마 불교성보 역시 임대했다.


붓다, 머리카락을 자르다(Buddha Severing His Hair, Bagan Archaeological Museum 소장)


마라의 악마(Mara's Demons, Shwegugyi Temple 소장)

돌 · 청동 · 나무 조각 등 70여 점
불교미술사 시대 · 지역별로 소개
섬세한 예술성 · 불심 선보여

"아시아소사이어티박물관의 '미얀마 특별전' 은 경제발전 논리에 밀려 불교유물 보전에 적신호가 켜진 미얀마의 현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제한 톰 나고르스키(Tom Nagorski) 박물관 부관장은 "우리는 이번 특별전에서 미얀마 불교미술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 입멸 이후 천년동안의 예심과 불심을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얀마의 고대 불교유적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VB〉 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미얀마 불교조각의 독특하고 섬세한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미얀마 불교미술의 역사 · 문화적 흐름을 좇는 데에도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가 생활 그 자체로 발전해 생활용품 곳곳에서 불교미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데 주목한 아시아소사이어티박물관 측이 미얀마인의 간절함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한다.

제1 전시관에서는 거대한 돌 부조가 돋보이는 퓨(Pyu)시대의 불교미술이, 제2 전시관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무역로를 제공했던 바간(Bagan)시대의 불교미술이 전시된다. 바간시대의 불교미술은 청동 조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아바(Ava)시대와 콘바웅(Konbaung)왕조로 이어지는 제3 · 4 전시관 역시 미얀마의 아름답고 섬세한 불교미술 세계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전에서는 미얀마 전통의 춤, 노래, 인형극 등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70년대 스리 케트라 지역의 흙벽에 발견된 '사암 조각' 이 백미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나고르스키 부관장은 "사암 조각은 발견 직후 학계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조각에 근거하면 미얀마 불교는 기존의 학설보다 더욱 앞설 수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불교와 힌두교가 미얀마 사회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나갔는지를 유추하는데 중요한 사료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DVB〉 지는 "미얀마는 지금까지도 1989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시대에 불렸던 '버마' 로 서구 사회에 더 알려져 있다"며 "이번 특별전이 미얀마의 순수한 불교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오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 벽화에 도라에몽… 어린이 큰 호응

태국 왓 삼파 시우 사찰, 만화캐릭터 벽화에 그려


벽화에 도라에몽이 그려져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오른쪽 하단에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의 한 사찰에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도라에몽이 그려져 화제다.

CCTV는 "태국의 왓 삼파 시우 사찰이 로봇 고양이 도라에몽을 벽화로 보일 듯 말 듯 그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찰 벽화에 도라에몽과 앵그리버드가 그려지고 도라에몽 동상이 세워진 것은 주지 러트짓사쿨 스님의 역할이 컸다.

주지 스님은 "화가들에게 작품을 부탁할 때 불교적 도덕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뭐든 원하는 것을 그려도 된다고 주문했다"며 "벽화에 도라에몽이 그려질 것이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그런대로 보기가 괜찮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찰 내 도라에몽은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은 경내에 도라에몽 동상도 두어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고 있다.

벽화불사에 참여한 한 화가는 "어린이들이 도라에몽을 보러 절에 온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보러 오는 거겠지만 일단 한 번 오게 되면 선한 감정을 맛보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광산사, 필리핀에 첫 불교대학 설립

불교 · 예술 · 춤 등 교육과정…2015년 첫 신입생 69명

인구 91% 가량이 기독교도인 필리핀에 첫 불교대학이 설립됐다.

〈FOCUS TAIWAN〉 지는 1월 19일(현지시간)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이 '학비 전액 무료로 운영될 불교대학'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성운 스님은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마닐라 따가이따이(Tagaytay)에 들어선 필리핀 불교대학은 불광산사 부설 '불교자선단체(Buddhist charity organization)에 의해 설립됐다"며 "종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문화와 교육을 증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불광산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불교대학은 불광산사 산하 '불교자선단체' 에 의해 세워진 다섯 번째 교육기관이다. 이에 앞서 불광산사는 보광대학(Fo Guang University · 대만), 난후아대학(Nanhua University · 대만), 서부대학(University of the West · 미국), 난티엔연구소(Nan Tien Institute · 호주) 등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FOCUS TAIWAN〉 지에 따르면 필리핀 불교대학은 지난해 10월 불교 · 예술 · 춤 등 3개 교육 과정으로 필리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고, 2월을 기점으로 69명의 신입생을 맞아 첫 학기를 시작한다.

신입생들은 따가이따이(Tagaytay) 캠퍼스의 기숙사가 세워질 때까지 보광산 마부하이(Mabuhay) 사찰에 머물며 교육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필리핀 불교대학의 헬렌 코레아(Helen Correa) 총장은 "인구 91% 가량이 기독교도인 필리핀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라며 "불광산사의 불교대학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가운데)이 '학비 전액 무료로 운영될 불교대학'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다.

한편 성운 스님은 산토 토마스 대학(University of Santo Tomas)에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교황 프란치스코 1세를 만났다.

오종욱 편집위원


1톤의 순금 씌운 불탑 태국 나콘시탐마랏에 위치한 왓프라마하탓워라하만위한(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사원 모습. 태국 남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약 1700년 전 건축된 체디(태국식 불탑)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불탑은 높이 56미터로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인돼있으며, 960㎏의 순금으로 첨단이 장식돼 있고 태국 25사탕 화폐디자인에 사용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나콘시탐마랏은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색과 자연을 간직한 태국 남부의 두 번째 대도시로 옛 왕국의 수도였다. 태국관광청은 태국을 세계적 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 '2015 디스커버 타이니스(2015 Discover Thainess)' 를 공식 런칭하고 나콘시탐마랏을 태국 전역의 숨은 보석 같은 지역 12곳 중 하나로 선정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 도시는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에 등장해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리고르(Ligor)로 알려졌다.
이나은 기자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회비가 20만원 입니다.)
- ▶ 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內) "중앙불교대학"3층 강의실)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아침예불 / 종성
  ❷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❸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❹ 천수바라 나비춤 (도량게 / 다게)

☆ 교육특강 ☆
▷ 오후 2시 ~ 3시 법고무 - 문곡스님
▷ 오후 3시 ~ 4시 명리 - 혜각스님
▷ 오후 4시 ~ 5시 태평소(호적) - 시우스님

-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www.송강사.kr/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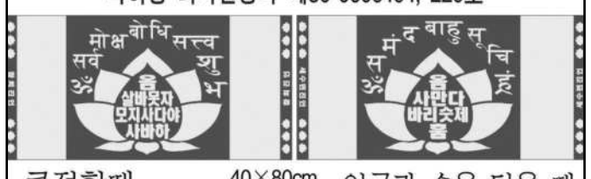
Business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❶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❷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퇴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신개념 법당서 커피 마시며 북콘서트도

부산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부산 송정에 위치한 북카페 쿠무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다. 경남 함양 대운사(주지 주석 · 사진) 부산불교학당에서 '문화포교' 를 위해 개원, 1층 카페와 2층 법당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수련' 이라는 의미를 지닌 쿠무다는 토크콘서트 및 북콘서트, 무료전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설립 1년 만에 지역 대안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쿠무다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 해도 북콘서트. 지난해 3월 시인 이호걸 씨와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의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두 달에 한번씩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안도현 시인 · 가수 고한우 △정호승 시인 △혜민 스님 △개그맨 이수근 △문태준 시인 · 가수 이승훈 등 내노라하는 유명인사들 초대됐다. 문화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자극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카페를 설립한 주석 스님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카페 쿠무다를 열게 되었다. 스님은 경남 함양에 대운사를 개원했지만 산중의 절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대중들이 북적이며 드나드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원을 세우고 쿠무다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사찰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경전 읽는 공간인데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스님들조차도 자신이 모르는 절에 들어가기를 꺼리잖아요. 사부대중 모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폭넓은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설립된 곳이 카페 쿠무다에요."

현대식 북카페로 꾸며진 1층 카페는 전혀 불교색을 띠고 있지 않지만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스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진다고 스님은 말한다.

"제가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스님 뭐하세요?' 하고 물어요.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다가 저한테 인생 상담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법당으로 올라가 참배도 하죠. 또 일반 카페에 들어가기 머쓱한 스님들이나, 스님들끼리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찾아요. 이웃 종교인들도 마음 편하게 와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부대중 모두에게 개방 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런 면에서 쿠무다는 카페를 표방하는 신개념 법당이라 할 수 있어요."

1층 카페, 2층 법당으로 구성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무료 전시 제공 신진작가 양성
두 달에 한번씩 토크콘서트 진행
2월 7일 소설가 김연수 씨 초대



쿠무다는 1층은 카페, 2층은 법당으로 사부대중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의 카페 쿠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두 달에 한번 콘서트도 열고 있다. 사진 위는 콘서트 장면 아래는 혜민 스님 초청 강연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쿠무다는 무료대관도 진행하고 있다. 무명작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속공예, 민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2015년 전시 일정 역시 꽉 차 있다고 스님은 귀띔한다.

2015년 북콘서트 역시 2월 7일 소설가 김연수 씨를 시작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된다. 4월 방송인 이계진, 6월 권대용 시인, 8월 황동규 시인 등이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다.

주석 스님은 앞으로 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꼭 절에 있어야만 포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포교 방법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학교에요. 음악 미술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 '재현'

1월 24일~3월 22일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서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 가 전승작가들의 손을 통해 재현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의 재현' 전이 3월 22일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실견하고 조사해서 완성한 작품들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나우회 소속 전승작가 20명이 참여했다.

나우회 소속 전승작가 20여 명
일본 해신신사 소장 불상 등 재현

한봉석 작가는 일본 나가사끼(長崎)현 해신신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재현했다. 소불상이지만 당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 전성기의 작품답게 세부적 묘사가 세련됐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을 선보인 작가는 주광관 씨다. 주 작가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가 2013년 국내로 반입된 서산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을 재현했다. 한일양국 간 소유권 주장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문화재로, 층단식 우림법이라는 전통채화기법으로 표현됐다.

이밖에도 김상수 작가는 교토 상국사 소장의 과반을, 노정용 작가는 성주사지에서 출토된 수백여점의 소조불 편린들을 취합해 고려시대 불상 형태로 재해석했다. 박명옥 작가는 일본 조료지(淨敎寺) 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가운데 아미타여래만을 종이 조각으로 재현했다. 김판기 작가의 '장생문대발' 은 둥근 원형의 공간에 대나무와 학을 배치하고 전반적으로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장생문양을 상감기법으로 시문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문화가 바로 전승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처럼 전승작가의 존재 자체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노정용의 성주사지 소조불상


한봉석의 금동여래입상

國博 조각공예관 금속공예실 새 단장

불교공예 코너 청동 현향로 등 '눈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새해를 맞아 조각공예관 금속공예실을 새롭게 단장, 불교 공예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코너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불교공예 코너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춘궁동 출토 '청동 현향로(懸香爐)' 등을 전시한 공양구 코너와 '경암사명 쇠북' 등의 범음구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국보 제92호 '물가풍경무늬 정병' , 국보 제280호 '천흥사 종' , 보물 제1395호 '감은사 동탑 사리구' 등 우리나라의 금속공예 명품을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코너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금제 공예품에서는 삼국시대 장신구부터 고려시대 향그릇 및 약그릇 등을 통해 금의 상징성과 재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은제 공예품은 세련된 기형과 화려한 무늬가 돋보이는 고려시대 은그릇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 합, 대접 등이 조합을 이루어 전시된 은기는 청동 그릇과 함께 고려시대에 금속공예가 일상생활 용품으로 사용계층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철은 주로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은입사 기법을 통해 화려한 공예품으로도 가치를 높였다. 필통, 문진 등 문방구와 향로, 촛대, 담배합 등 사랑방에 놓였던 다양한 철제 은입사 공예품은 소박하고 친근한 조선시대 공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LED 조명을 설치하고, 진열장을 교체해 새롭게 꾸며졌다.

정혜숙 기자


금속공예실에 전시된 감은사 동탑 사리구

한국만다라연구협회 '마법의 원' 展

1월 3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서

한국만다라연구협회가 1월 3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마법의 원' 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과정을 마친 13명의 만다라연구협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완성해낸 '평온함' '빛나는 그 곳은' '집중' '별이 되어라'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유진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 지도교수는 "자기를 찾고 깨달음의 본질에 이르는 길이 곧 만다라에 있다"고 설명한다.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은 위빠사나 등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만다라 그림을 실습하는 1년 교육 과정이다. 앞으로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명상이 만나 자기치유에 이르는 길을 만다라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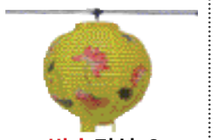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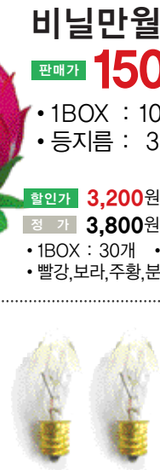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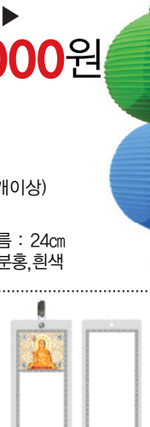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초불색/주광색


전구(10W)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cm×21cm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cm×21cm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제)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바림등(8cm)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황금빛 '생채색 기법' 활용 관음성지 낙산사 위상 보여주고자

'황금 삼십삼 관음보살도' 낙산사에 기증한 불모 이연욱


불모 이연욱 씨는 관음성지 낙산사의 변함없는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황금 삼십삼 관음보살도를 낙산사에 기증, 현재 의상기념관서 전시하고 있다.

매일 108배하며 간절한 마음 담아
낙산사 복원 염원하며 관음상 조성
황금빛 관음의 미소로 승화 평가
의상기념관서 2016년까지 전시

2005년,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인 낙산사가 화마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모 이연욱(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이수자)씨 또한 낙산사 소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불모이기 이전에 불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는 낙산사 원만 복원을 기원하며 관세음보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마다 108배를 올리며 작업에 임했고 1년이 지난 2006년 가을, 이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황금 삼십삼 관세음보살도' 가 탄생되었다. 이 씨는 이를 낙산사 복원을 기원하며 낙산사에 기증했다. 그동안 복원 작업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못했던 그의 작품이 지난해부터 낙산사 의상기념관에서 대중들을 찾고 있다.

'황금 삼십삼 관세음보살도' 의 특징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가루를 활용한 생채색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씨는 이미 이 기법을 활용한 삼세여래후불탱화로 제1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우수상을 받았을 만큼 생채색 기법 활용에 능숙하다.

"원덕문 스님께 탱화를 배웠는데 스님께서는 산수도, 관음도를 그리실 때 생채색 기법을 사용하셨어요. 모시바탕에 조지를 붙이고 한지를 붙여 배접을 하고 고분을 하고난 뒤 옻칠을 하죠. 여기에 순금을 붙여 금 바탕 위에 채색을 올리는 조성 방법이에요. 이 기법은 1710년에 조성된 안성 칠장사 삼불회괘불탱화(보물 제296호) 등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낙산사의 복원을 기원하며 금가루를 이용한 생채색 기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는 서원을 세운 '양류관음' , 용의 머리 위에 서 있는 '용두관음' , 손에 경권을 지니고 있는 '지경관음' , 흰옷을 입고 왼손에는 연꽃을 쥐고 있는 백의관음 등 다양한 모습의 관세음보살도는 그 안온한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33개의 관세음보살도마다 각자 다른 모습의 동자승이 등장하는 점도 흥미로우며, 순금빛 바탕에 채색과 어우러져 조명에 따라 존용이 다르게 보일뿐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도 색상의 빛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 황금빛은 영원히 타고 있는 불을 상징해요. 이는 곧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의미하죠. 때문에 황금을 사용해 관음성지 낙산사의 변함없는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제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작은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황금가루 이용한 생채색 기법으로 완성한 '용두관음'.

이 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조계사, 봉은사 등 300여 곳의 단청과 불화를 조성해 왔다. 그가 불모가 되기까지는 독실한 불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그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아버지의 기도소리를 듣고 자라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관음기도를 하셨어요. 그 염불소리를 들으며 성장했기에 불심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죠. 그러다가 17살에 단청 작업을 처음 구경하게 되었어요. 문익점 선생님의 시배지가 우리 고향인데 그 곳의 비각을 새로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온 단청장을 처음 보게 됐죠. 단청이 너무 아름다워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후 서울로 올라와 스승인 김한옥 선생 아래서 단청을 배웠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따로 했다. "원덕문 스님이 돈암동 흥천사에 계실 때 불화를 전수 받았어요. 끊임없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열심히 습작을 했는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림을 펼쳐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준 그림은 다음날 다시 그려 나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불화 작업에 매진해 나가고자 한다. 낙산사 '황금삼십삼관세음보살도' 전시는 2016년도 7월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만간 개인전으로 대중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 않는다

자급자족 유기농라이프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삼시세끼는 출연진들이 노동하며 한 끼를 완성해 먹는 프로그램으로 백장 스님의 '일일부작일일불식' 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배우 이서진과 가수 택연이 강원도 정선 시골집에서 밥 해먹고 수수 베는 삼시세끼는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차별화를 이룬다. 게임을 하면서 경쟁하지도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다니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유유자적하며 자연을 즐기는 전원생활의 꿈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별다른 미션 없이 제목 그대로 '삼시세끼' 를 손수 해먹으면 된다. 단 자급자족 유기농라이프라는 부제처럼 장작불을 사용해야 하고 텃밭에서 나는 음식을 주재료로 요리해야 한다. 도회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배우 이서진과 아이돌 가수 출신 택연. 이 두 남자에게는 고되고도 혹독한 시골살이가 아닐 수 없다.

절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키질을 하기도 하고, 맷돌을 돌리기도 하는 등, 이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요리 방법으로 눈물겨운 한 끼 한 끼를 만들어낸다. 편리한 주방도구도 많건만 그런 도구들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끼 밥을 해내는 것도 힘든데 수수도 베어야 하고 시시때때로 손님도 맞아야 했다. 그렇게 분주하게 오가다 보면 둘의 하루가 다 간다. 이서진은 왜 이 프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덜대고 이 프로는 망했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게스트로 온 배우 류승수의 반문에서 삼시세끼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프로의 콘셉은 뭐야? 삼시세끼 밥 먹기가 정말 힘들다는 건가?"

삼시세끼는 불가에서 말하는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을 떠올리게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 않는다' 는 백장 스님의 일화는 유명하다. 백장 스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매일 대중들과 함께 밭에 나와서 일을 했다. 함께 일하던 제자들은 노스님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이 민망해 하루는 농사에 쓰는 연장을 감추어 버렸다. 연장을 찾지 못한 스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공양도 들지 않았다. 제자들이 찾아가 공양 들기를 청하니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 이 나왔다고 한다.

노동하지 않았으니 한 끼도 먹지 않겠다는 백장 스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일러준다. 일확천금을 노리

노동하며 한 끼 완성하는 과정
'일일부작일일불식' 교훈 되새겨
한 끼의 감사함 일깨워줘

니 로또를 사게 되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부처님께 떼쓰듯 빌고 있지 않은가? 인연과보의 원리를 알면 세상에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바라는 마음을 내고 바라는 마음을 내니 원망이 생긴다.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일일부작일일불식' 이다. 일하지 않으니 밥 먹을 수가 없다는 백장 스님은 공짜로 밥 먹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 한마디로 일축해주었다. 삼시세끼의 주인공 역시 스스로 밥을 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일사분란하게 뛰어 다니며 한상을 차려내며 한 끼 한 끼 스스로 해 먹는 기쁨을 알아간다.

이 프로의 또다른 특징은 다양한 게스트들이 와서 함께 시골살이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지만 집주인들의 요리를 도와주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한 끼를 같이 완성해 나가기도 한다. 모두 중지를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다 보면 서로 간에 돈독한 정을 쌓게 되고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한 끼를 먹는 공덕도 쌓아간다. 그러니 이 한 끼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허물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관게' 처럼 삼시세끼는 밥 한 끼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유쾌하고 즐거운 유기농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정혜숙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4 ~ 1/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2	인생수업	법륜	휴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7	백일법문 세트 (전3권)	성철	장경각
8	낭송 금강경 외	신근영	북드라망
9	몰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불광출판사
10	춘성	김광식	중도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반야심경, 고통벗어난 '진여세계' 안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양지 엮은이 | 남청 선서화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5천원



반야심경은 불교의식 때 빠지지 않고 독송 된다. 그래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또 그 의미는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서 가르쳐 주는 핵심은 무엇일까.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인 공(公)을 260자로 담은 경전이다. 불교의 모든 사상인 공을 담은 경전인 만큼 예로부터 많은 선지식들에 의해 번역됐다. 이번 책은 양지 스님이 새로운 형태로 펴내 눈길을 끈다. 현장, 대전, 혜충, 제바, 원측 등 당대 최고 선지식의 번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해설돼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정수인 기본 경전인 만큼, 반야심경은 마음이 병든 현 시대 풍토의 치유에 적합한데 양지스님이 앞서 출간한 선가귀감, 천수경과 함께 시리즈로 기획되어 일반인들이 매일 접하는 기본 경전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깨우쳐 삶의 고통을 덜어내고 행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윤회를 벗어나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 평소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진언만 독송하던 불자들에게는 길잡이와 같으며 삶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외부 조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불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야심경의 총 10구절을 담았고, 그에 각각 다른 선지식들의 한문번역 및 한글 뜻풀이를 수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기 전 단어의 세세한 뜻을 담아 불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단순한 번역과 풀이를 넘어선 양지스님의 반야심경에 대한 통찰은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반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 五蘊皆空 度一切苦厄)에서 관자재보살에 대해 저자는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망념을 관조(觀照)해 보는 전문가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박서 해탈해 진여의 지혜로 자유자재한 전문가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세간의 망념을 관조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전문가인 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범어로는 같은 말이고 번역을 해도 같은 것으로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관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세음보살과 종교적인 관세음보살이 공존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이를 위해 조사들께서 자비의 방편으로 건설한 것일 뿐이라며 이어서 대전, 혜충, 부용선사도해, 제바 등의 번역을 소개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관자재보살에 대해 이상에서 설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 보다,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즉 보살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모두가 관자재보살이 되는 방법을 설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망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무위진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자신이 공(空)으로 관조(觀照)한다는 것까지도 초월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관조하게 되면 망념이 되어 윤회 고(苦)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 몰종적의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궁극적으로 불교서 지향하는 관자재보살을 불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선지식들이 바랐던 진정한 관자재보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어서 반야바라밀다를 간절히 행하는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에 대해 진여 지혜로 행(行)하는 것을 행심(行深)이라 하고, 이를 통해 오온(五蘊)이 공(公)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덧붙여 이처럼 간절히 반야바라밀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소승의 반야가 아닌 대승의 반야지혜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궁극적 지향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승(小乘)이란 불법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잘 살아도 현자(賢者)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승(大乘)은 부처나 조사(祖師)가 되어 진여의 지혜로 몰종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몰입 근육 만들자… 번뇌 처리 시스템 갖춰져

몰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티나 리무쎈 지음 | 정준영 옮김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일상생활서 일, 공부, 운동 등을 할 때 마음이 산란해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몰입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해, 어려운 난관을 쉽게 헤쳐 나가며 삶의 만족도도 최고로 끌어올린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수행을 하든 잡념이 많고 주의가 흐트러지면, 힘만 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선정(禪定)', 즉 완전한 몰입에 들었을 때 수행의 진전을 빠르게 가져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에 있어서도 몰입은 수행의 기본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00여 년 동안, 불교 수행의 지도자들은 '선정'이라 불리는 몰입집중의 귀중한 명상적 실천을 공들여서 보존해왔다. 선정은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고요와 평화를 이룬 명상 상태다. 몰입집중은 알아차림의 정화와 순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고, 평범한 일상의 지각력을 넘어서는 영역으로의 접근이다. 게다가 이 강도 높은 주의력은 위빠사나 수행에 적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방 상좌부불교의 전통수행법은 크게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로 나뉜다. 사마타는 마음의 고요와 고도의 집중을 계발하는 선정 수행이며, 위빠사나는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에 대한 통찰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수행이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사마타 수행의 기반이 확고해야, 지혜를 증득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책 은 서양인의 시선을 통한 선정 수행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미얀마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지도자'라는 칭송을 받는 파욱 사야도의 개인적이고 강도 높은 지도 아래, 사마타의 단계(여덟 가지 선정과 연계된 수행들)를 온전히 성취한 두 미국인 수행자들의 체험을 담았다.

저자 스티븐 스나이더와 티나 라무쎈은 파욱 사야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사마타 수행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수행구조에 있어서는 상좌부 불교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수행자를 배려하는 유연함이 스며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하는 선정 수행은 쉽고 친절하다.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묘사되는 설명이기에 진솔하면서도 무겁지 않다. 또한 선정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집중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혜를 향한 선정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붓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사마타 수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수행의 기본 토대로서 사마타와 선정 수행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선정에 들었다."

파욱 스님에게 배우는 선정 체험기
선정수행, 자기마음 강화 훈련
최상 깨달음 얻은 붓다 수행법

이 책은 호흡에 대한 주의로 시작하는 사마타의 기초 입문단계에서부터 위빠사나 수행의 관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마타 수행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서양인 재가 수행자인 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화한 내용들이 세심하게 배어있어, 수행 초보자에게 곧바로 적용되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책이다.

선정 수행은 마음을 투명하게 정화시키는 자기 강화 훈련이다.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몰입의 근육이 만들어지면 번뇌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는 건전한 생활습관을 지닌 것과 같다. 평상시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대상으로 갔을 때 쉽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명료한 선정의 힘으로 언제든지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수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어떤 수행을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정 수행을 권해본다. 산란하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청정한 마음을 계발시켜,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선정 수행에서 얻는 몰입의 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어떤 격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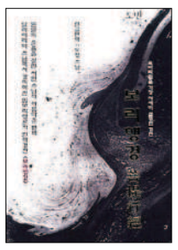
또한 선정 수행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수행법이다. 만약 붓다를 삶의 실제적 역할 모델로 삼는다면, 붓다가 경험한 수행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길 바란다.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길에 들어서면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육바라밀 경전인 〈보리행경〉 시적 운율 살려 번역

보리행경

도정 스님 지음 | 도반 펴냄 | 1만 1천원



〈누워서 피는 꽃〉을 출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인 도정스님이 육바라밀의 경전인 〈보리행경〉을 출간했다. 〈보리행경〉의 티베트본은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며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법문에서 교재로 사용해 유명해진 책이다. 처음에 〈금강경〉을 강의하려 했다가 한국 불교에 〈보리행경〉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교재를 바꾸셨다는 일화가 있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행경〉을 종파에 상관없이 모두 독송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

한역 〈보리행경〉의 티베트 대장경 이름은 〈입보리행론〉이며, 한역과 티베트역 두 가지 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각각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만, 티베트역의 〈입보리행론〉이 한글로 번역돼 현재 유통됐으나, 한역 〈보리행경〉의 괄목할만한 한글 번역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다면 티베트본 〈입보리행론〉이 이미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구태여 한역 〈보리행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티베트역본 〈입보리행론〉과 한역본 〈보리행경〉 사이 번역의 거리감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똑같이 번역한 한역 〈보리행경〉과 티베트역 〈입보리행론〉은 전문이 게송으로 이루어진 논서다. 그러나 티베트본 〈입보리행론〉 한글 번역에 있어 한역의 〈보리행경〉에 나타난 게송(偈頌)에 비해 운율과 언어의 함축미와 시로서의 맛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문장 구성에 있어 완성미가 결여돼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해석된 경우가 많다. 반면, 한역 〈보리행경〉은 7언4구와 5언4구의 게송인 시적 형식을 엄격히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도 티베트본 〈입보리행론〉과 대부분 상이해 새로운 〈보리행경〉 번역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상황이었다.

한역 〈보리행경〉을 한글로 번역하기에 앞서 저자는 한글번역본 〈입보리행론〉과 한역 〈보리행경〉을 같이 펴놓고 비교했다. 같은 경전이면서 두 개 언어로 이루어진 경전 내용의 상이함에 저자는 놀랐다. 한역본 〈보리행경〉에는 〈입보리행론〉서 빠진 2품과 3품을 빼면 두 권의 모든 게송의 숫자는 맞지만 그 내용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전 속 게송의 우리말 해석은 개괄적인 면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서는 거의 대부분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번역에 있어 5언4구의 게송은 시적 형식을 살렸지만 7언4구는 평서문으로 해석했다. 게송은 시(詩) 운율을 살린 글이다. 그래서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시인인 도정스님은 실제 번역에서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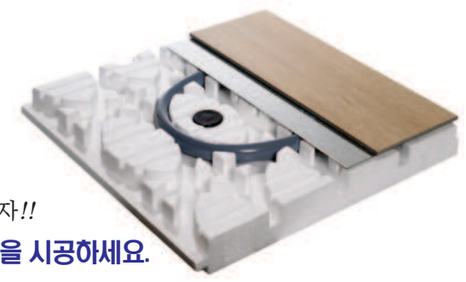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04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강남 : 010-5097-08291
익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창원 : 010-8008-1110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책 속의 밑줄 긋기

독서를 할 적에도 이마에서 빛을 놓아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었으며, 야간에는 실내에 등이 없어도 저절로 밝아 마치 대낮과 같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

관경(觀經)에서 이르길 "대세지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무변광(無邊光)이시니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신다"라고 하였다. 상인은 대세지보살의 응신(應身)인 까닭에 늘 광명을 나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택본원염불집〉 중에서

Books

허응당 보우 소설화…"욕망 없으면 고통도 없다"

붓다, 유혹하다

강준 지음 | 1만 2천원 | 문학의식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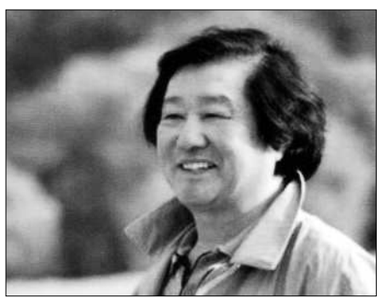


이 책은 조선 불교 중흥조인 허응당 보우 대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보우대사는 '지금 내가 없으면 앞으로 불법(佛法)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는 소명의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한 선지식이다. 이 작품은 나(도훈)라는 인물이 보우의 행적을 쫓으며 불교와 보우대사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아마도 도훈은 저자인듯 싶다. 몇 년 전 문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보우대사의 이야기를 접한 저자는 그 궤적을 쫓아 서울 경기 강원 일대의 사찰을 기행했고, 관련 서적도 여럿 접했다. 그런 호기심과 노력이 주인공에 감정이입된 것 같다.

저자 강준〈오른쪽 사진〉는 처음에 허응당 보우 대사를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로 오인했다. 물론 두 분 다 훌륭한 선지식이다. 시대가 틀릴 뿐이다. 태고 보우 국사는 고려말, 허응당 보우 대사는 조선 불교계의 수장이었다. 소설 말미에 태고 스님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설적 요소는 훨씬 허응당 보우 대사가 많다. 드라마틱한 격정의 세월을 살아서다. 아마도 그래서 저자가 허응당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택했는지 모르겠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료를 찾다보니 보우대사의 격정 세월을 한 편의 희곡으로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했다. 30여년간 희곡만을 써온 나로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었다. 우선은 불교에 문외한인 것이 걸렸지만 희곡과 소설은 양식은 다르지만 서사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오히려 압축미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감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보우 대사는 조선 명종 때 조선 불교계 수장으로서, 숭유억불이 국시였던 조선 사회 유림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에 당당히 맞서면서 불교 중흥을 위해 순교한 인물이다. 그는 1548년(명종 3년) 39세 때 명종 모친인 문정왕후로부터 조선 불교 총본산인 봉은사 주지로 임명 받는다. 문정왕후는 그의 아들이 부처님 덕에 임금이 됐다고 생각하고 흥불을 위해 인재를 찾던 중 보우대사를 만난다. 이후, 유신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상소 속에서도 천민이 된 승려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도첩제를 시행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만 승적을 주었고, 승과제라는 과거 시험을 통해 전국 사찰을 관리할 주지들을 뽑아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고 봉급을 받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승과



희곡작가의 첫 소설 시도
자료 조사 위해 사찰기행 다녀
시대정신과 소명의식 제시

제 출신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당 유정이다. 보우 대사는 17년 동안 불교 중흥을 위해 동양 최대 사찰인 회암사 중건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하지만 1565년(명종 20년) 문정 왕후가 승하하자 유림들의 표적이 되어 제주에 유배된다. 그리고 제주 목사에 의해 결국 장살을 당하고 일생을 마친다. 소설도 비교적 실제적 삶에 충실했다.

이 작품을 통해 저자는 지성인의 시대정신과 소명 의식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다. 시대를 떠나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지성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보우 대사는 그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거대한 다수의 횡포에 의해 왜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우 대사의 말처럼 욕망이 없다면 고통도 얻을 것도 없다. 이 작품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허깨비로 와서 허깨비 마을에 들어왔네/
오십여 년 세월 희롱하는 미치광이가 되어/
인간세상 영화롭고 욕된 일 희롱삼아 다 하고/중이라는 허수아비 탈 벗고 푸른하늘 오르네"

소설속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는 보우대사가 태고 스님과 함께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인데 꼭 오도송처럼 들린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강준은?

희곡작가 강용준(姜龍準)의 필명이다. 원로 소설가 강용준(姜龍俊) 씨와 한글 동명이기 때문 후배로서 소설 작품의 필명은 강준으로 했다. 경희대 국문과와 동 교육대학원서 희곡을 전공하고, 극단이어도를 창단 20년간 대표를 역임했다. 1987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더 복서〉등 5권의 희곡집을 냈다. 삼성문학상(도의문화저작상), 한국희곡문학상, 제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제주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염불 수행의 공덕과 중요성 소개 … 진종(眞宗) 핵심요지 담아

선택본원염불집

법연상인 찬술 | 수마제 스님 번역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2천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의 심성을 순화하고 도(道)와 덕(德)이 높은 참사람을 길러내야 할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 바 '종교의 위기' 시대에 불교 역시, 오탁악세(汚濁惡世)의 먹구름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인가. 불교 종단 역시 수행기풍의 문란과 승단내부의 갈등, 일부 사이비 승려의 비리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국불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찬란한 법등(法燈)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의 하나는 염불이라고 역자(譯者)는 확신한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세가 강했던 대만이 불자가 80%에 달하는 불교국가가 된 데에는 신심 깊은 염불행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문화대혁명 과정에 철저히 파괴된 중국불교가 거대한 용틀임을 하고 있는 것도 염불수행의 힘이 기반이 되고 있다. 침체된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 통일한국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는 신심(信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인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염불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행이 아닐 수 없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힘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마다 고을마다, 남녀노소 부귀빈천을 떠나 염불한 백성의 발원(發願)에서 기인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염불이 얼마나 위대한 수행법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발간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책은 대세지보살의 응화신(應化身)으로 불리는 법연상인(法然上人: 1133~1212)이 일본에 칭명염불을 위주로 하는 정토종을 창종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원효-의상대사의 염불수행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법연상인 이전의 일본불교는 비록 대소승의 각 종파가 있었으나 유일하게 정토종만 없었다. 따라서 정토문(淨土門)의 교단이 없을 뿐더러 정토문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소의경전과 교상(敎相)상의 이론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왕생의 행체(行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비록 당시에도 서방정토 왕생을 발원한 행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각 종파의 교리에 의탁하여 잡행잡수(雜行雜修)를 하면서 회향을 하였으니, 이른바 '종속적인 종파(寓宗)' 라 불리게 되었고, 게다가 각 종파의 교리로써 아미타의 정토를 판별하였으므로 정토의 의보(依報)와 정보(正報) 및 왕생의 정인(正因)은 각 종파의 종의(宗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법연상인은 이 점을 고려해 기존 종파 외에 따로 정토종을 창종하고 이 〈선택본원염불집〉을 저술해 개종입교(開宗立敎)의 근본교전으로 삼았으니, 이때에 이르러서야 아미타불의 본원의 의취(意趣)와 왕생의 행체(行體)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선도대사의 종지를 따르고 있는 이 책에는 진종(眞宗)의 핵심 요지와 염불의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염불행자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에게도 더없이 깊은 보전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한 구절

상인은 여러 종파의 교리를 다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수행 역시 영험이 많았다. 삼칠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법화삼매(法華三昧)를 닦았는데, 이에 감응하여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시어 증명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한 산왕(山王) 다이곤겐(大權現)이 모습을 드러내 호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밤에 독경을 할 적에 불을 켜지 않아도 실내가 환하게 밝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어 방안에 들어가 보니 등불이 전혀 없었는데, 다시 바깥에서 보니 광명이 환하게 비추었으므로 매우 불가사의함을 느끼면서 수희(隨喜)의 눈물을 흘렸다.

"공부해서 깨달은 마음을 잘 써라"

선용기심

만행 스님 지음 | 대유학당 펴냄 | 3만원



이 책은 〈항복기심〉이후의 법문과 수행기록이다.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육체수련의 방법을 득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세하고도 심도있게 법문했다. 특히 불경과 수련 그리고 보살행에 대한 마음자세와 수련하는 방법 등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의 심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용기심〉의 '선용(善用)' 은 공부해서 깨달은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니, 이는 선문답이다.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할 때 각조(覺照)를 잡아야 하는데, 각조는 각찰(覺察)하고 조고(照顧)한다는 뜻이다. 즉 잘 살펴서 얻은 깨달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돌봐준다는 것이니, 화두를 잘 보살피고 돌보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항복시키고 장악해서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정지정견(正知正見)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선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참선해서 얻고자 하는 것, 성불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선용하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그러니 〈항복기심〉과 〈선용기심〉은 각기 선과 후가 되고 안과 바깥이 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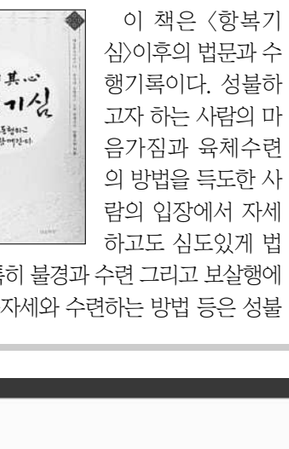
저자 만행(萬行)스님은 중국 남보타사서 출가했다. 이후 22세에 중국 민남불교대를 졸업하고 7년에 걸친 3번의 폐관을 했다. 폐관을 마친 후 1998년 중국 광동성 동화선사 주지로 취임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선사를 증축했다.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선사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으로 출간한 바있다.

만행스님은 "선방에 앉아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고, 일을 통해 참선을 해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맡은 일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방에서만 각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항상 각조를 유지해야 진정한 참선공부라고 강조한다. 각조를 유지하며 모든 일에 적용하니 항복시켜 선용하는 것이고, 밤에 참선을 하며 그 마음들을 항복시켜서 낮에 잘 쓰니, 그 또한 항복시켜서 선용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말한다.

이 〈선용기심〉은 워래 74강으로 돼 있다. 2011년 중국어 판으로 처음 나왔을 때에는 법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인데, 이번에 한국 독자들을 위해 다섯 주제로 분야별로 묶었다.

김주일 기자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유마경과 이상향
불교의 핵심 · 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선의 어록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임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귀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극단의 갈등 없다면 마음은 평화롭다

불교로 읽는 古典

칼 융의 〈심리학적 유형〉



문진건
동국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 학계에 남긴 수많은 업적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억압된 충동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원형 (archetypes)이 존재하며 이 원형들 중에 마음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된 마음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중핵으로서의 '자기원형 (Self archetype)' 이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증명한 데 있다. 융의 원형 이론과 개성화 (Individuation) 이론은 비록 그의 멘토였던 프로이트의 학설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심리학 역사상 그만큼 자주 논쟁의 주제가 되는 이론은 없었다. 융의 이론은 그만큼 독창적이었으며 그가 실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당시의 세계관과 너무 달랐으므로 동료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신의 구조와 역동에 대한 그의 연구는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탐구를 넘어 신화, 동서양의 종교,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초심리학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다방면의 연구에 선구자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융의 사상은 심리학과 정신과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학, 민속학, 그리고 문학계에서도 관심있게 연구되고 있다. 융의 문체는 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문학적이고 문학가들이 볼 때는 너무 학술적이다. 게다가 융이 의미하는 분석심리학의 용어들은 명쾌한 정의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깔려있는 불분명성을 대변한다. 융이 말하길, 윤곽이 뚜렷한 개념정의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념들의 연결적인 구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융의 이론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것으로 오해받는데, 만일 독자가 융의 저작이 분명하고 명백한 기술보다는 언외의 함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오해할 소지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융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그의 초기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다.

심리학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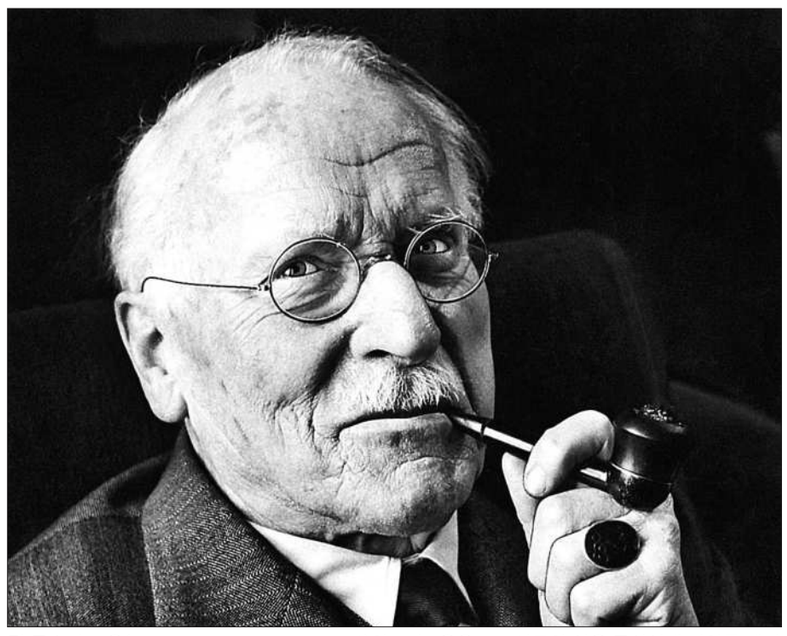
〈심리학적 유형 (Psychological Types)〉은 초기의 융의 이론을 대표한다. 이 책에서 융은 사람이 현상(사물, 사람, 그리고 세계)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8가지란 내향형과 외향형의 "태도유형"과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정신의 "기능유형"이 어우러져 8가지의 유형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마음이 사용하는 특유의 방식이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하든지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경험을 구성하는 판단과정에서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또는 사고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융의 이론에서는 감각과 직관이 대극(對極)이고, 감정과 사고가 서로 대립된 대극의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한 기능이 발휘될 때 다른 기능은 억눌리게 된다. 융은 사람이 각 기능을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기능유형도 태도유형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융은 유형들과 이들의 조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복잡미묘한 관계는 생략하고 '개성화'와 관련하는 한에서 유형론의 기본원리만 논의한다.

애초에 융은 "어떻게 내가 프로이트와 항상 다른 견해를 가지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세상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경험을 결정하고 제약하는 심리학적인 유형이 달라서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심리학적 유형론은 성격을 분류하는 학문으로 이해됐으나,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이론은 개인이 어떻게 경험을 구성하고 평가하여 발전시키는가 하는 인식론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융은 개인과 세계, 주체와 객체에 대한 관계를 이 책에서 다루며 의식의 다양한 측면과 의식이 세계를 향하여 취하는 다양한 태도를 논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융이 이후에 완성하는 원형론, 대극 이론, 개성화 등 무의식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그의 주요 이론들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심리학에서는 귀중한 문헌이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융은 '인간 정신에 내포된 두 가지 상반된 대극의 존재와 대극의 합일'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성향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통찰도 보여준다. 이러한 설명은 융의 대표적인 이론인 자기실현, 즉 개성화 이론의 기본 개념으로서 〈심리학적 유형〉에서 이미 볼 수 있다.

또한, 이 심리학적 유형론은 프로이트와 융의 조화될 수 없는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학설이다. 1913년 제4차 국제정신분석회의에서 융은 심리학적 유형론을 발표하였는데 이때가 프로이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융은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초기의 융은 프로이트와 매우 돈독한 관계였고 심지어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2년에 융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유아의 성욕설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후 정신분석학계에서 소외된 융은 1920년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책을 내놓을 때까지 8년 동안의 외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해 나갔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의 모습. 융은 프로이트의 성욕 중심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독자적인 학설을 내세워 분석심리학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집단무의식이론이 나왔는데, 이 개념은 원형이론과 결합되어 종교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C.융
양극의 정신 갈등과 합일 설명
원형론 · 대극이론 등으로 발전

"'나'의 존재는 규정되지 않아"
융 이론 모델과 禪불교 유사해
'무의식' 관념은 벗어나지 못해

융과 프로이트는 애초부터 정신세계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욕구로 간주하여 냉철한 이성이 무의식적인 힘들을 밀어내고 자아(ego)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의식의 영역을 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간 정신을 기계적인 구조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의 심리치료는 하나의 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융은 무의식의 자율적인 치료의 힘을 강조하며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의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융은 자신을 자아 (ego)의 제왕적인 힘을 조력하는 공학기술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은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인류정신의 뿌리를 발굴해내는 정신계의 고고학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융 심리학은 마음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을 통제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다양한 마음의 힘들을 거대한 전체로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융이 이해했던 마음이란 기계적인 작동의 조합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심적 기능들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은 이미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보상하는 힘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기계적인 치료방법보다는 마음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과 조화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마음은 소외된 부분을 의식화하여 더 큰 자기 (Self)와 통합을 도모하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들이 바로 상징들이다. 융은 상징들이란 억압된 기억의 왜곡된 잔재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라고 믿었다. 우리가 수면욕구나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대한 욕구와 같은 육체가 보내는 신호들을 계속 무시할 수 없듯이, 마음이 요구하는 신호들에도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다. 만일 "마음의 다른 측면"이 계속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외면된 부분(shadow)은 자기(Self 또는 전체로서의 마음)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고 결국 독자적인 기능을 형성한다. 가벼운 증세에서는 이것이 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경우, 마음의 보상 기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강제적으로 개입한다. 즉 명백한 이유가 없이 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이미지가 마음 대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정신분열의 위험까지 있게 된다. 그래서 융 심리학의 분석가들은 내담자가 이러한 상징들이 표현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마음의 보상적인 경향을 '초월적 기능'이라 부르는데 개성화란 이 기능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경구가 주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이 기능을 '초월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사물을 인식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좁은 시각을 '초월하여' 다른 인식방법으로 스스로 열게 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초월적 기능에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다면 그는 더 다양한 유형들 사이에서 유동적이 될 것이며 그의 개성은 균형 있게 발달한다.

융은 잠재력의 개발이 다방면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융에게 있어서 잠재력의 발현은 내팽개쳐져 있었던 마음의 다른 측면들을 사용하면서 시작한다. 개성화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 이미지와 대립된다는 이유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당면한 상황에 (직관, 감각, 사고, 감정 중에서)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사람은 관념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도 않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다. 감각원리에 의해 생의 태도가 정해지지도 않고 일원론적인 직관주의에서도 벗어나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태도유형과 기능유형을 사용하는 유연성이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균형 맞추는 힘에 따라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그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은 융 특유의 모호한 설명 덕분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지만, 불교의 선수행과 비교해 볼 때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융과 불교

융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과 관련되어 있지만, 20세기 초 유럽 사회에 동양의 사상을 해석하고 전달한 융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동양에 대한 그의 해석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의 원형론과 개성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동양사상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한 편협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없진 않지만, 집단 무의식의 심리학을 통한 동양사상의 해석은 당시 서구인들에게 동양의 사상과 이미지를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촉발하였다. 〈역경〉, 〈태을금화종지〉, 〈티베트 사서〉, 〈선불교 서론〉 등 그 당시 가장 잘 알려진 동양의 서적은 언제나 융의 해석과 함께 출판되었다.

융의 동양 해석은 그의 개성화 이론이 동양의 영적인 전통과 유사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선불교와 융의 개성화 모델을 비교하자면, 이 둘의 공통점은 '나' 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는 확정적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성화된 사람과 선불교의 선사는 자신이 단지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시간에서만 이러 저러한 사람으로 정해질 뿐이라고 이해한다. 이처럼 심리학적 유형에서 고정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각각의 상황이 주는 새로움과 신선함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고정불변의 자아에 대한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아집을 타파해 무심의 대아로 거듭난다고 말한다. 단지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정형화된 자아관이 없이 강박적인 무의식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개성화되었거나 선수행을 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저항 없이 현재를 현재로 다룬다. 이처럼 융과 선불교의 이상은 마음이 양극단의 갈등 없이 전일한 전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융은 불교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는 선불교의 무념 무아의 경지를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다. 융에게 있어서 무의식이란 어느 정도까지 의식화할 수 있는 것일 뿐 끝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그는 정신분석가로서의 위치에서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원형이 보내는 이미지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상상과 직관 그리고 과학적인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융은 믿었다. 반면에 선사들은 그러한 이미지들은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간주한다. 선사들은 원형 이미지의 해석에 마음을 쓰는 것은 문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해석에 대한 집념은 융이 무상 무념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기 어렵게 한다는 말이다.

1958년 융과 조우한 히사마츠 신이치 선사가 말하고자 했던 바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무의식을 무의식으로 보고 그것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얽매이는 한 영원히 그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없는 선수행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융은 말했다.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무의식적인 번뇌는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의식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사가 되묻는다. 무엇이 무엇을 정복한다는 말인가? 융은 아마도 잠시나마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을 맛보았을 것이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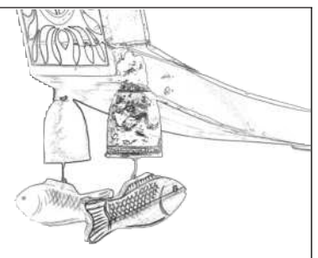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대학
대한전통불교범음범패대학
작법,천수바라,법고
(송주북,정근북,태징)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번지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010-8741-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입주,상가,
공장,사찰 청소
- 제초,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 8986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일광 부처님으로 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 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지금의 기도와 수행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업장소멸이 되지 않으며 사후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우주광명 신통력으로 업장소멸과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와 신통력을 공부하고 연구하실 분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문화강좌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517-56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사찰운영 하실 분 연락바람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가능)
010-8576-4450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0-3579-6444
051-721-044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6528-1234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동림사)
010-3871-3000

사찰 포교원 공양주 (중개소)
-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건물 2층
- 남향 25평 코너 간판 잘보임
- 포교와 철학관 할분은 최고 적지
- 보증금 일천 월50만원
- 건물주가 신도여서 항상 협조함
010-5381-1419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는
65세 이상 스님께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착한인연 김도해
010-2479-6699
천안 상명사

선묵화 및 한문
3월3일 개강
-혈맥론강의(한문이해)선묵화
-화,목 오후3시 강,선묵 합2시간
-수강료10만원. 주2회강의 (6개월수료)
-강의장소 : 경남 합천 (불참시 전화,메일 개별교습)
보림사 금강학림
010-3749-4553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치유상담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스님 010-7321-0404. 010-4034-5829

선거 명리학 특강
건진리의화양태좌 또는
살인천을건지리 경문옥
당에 당선되니 3월11일
1130 명조 합장
선거때 활용 명성 얻으세요
010-4022-2967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비구)
010-8396-4338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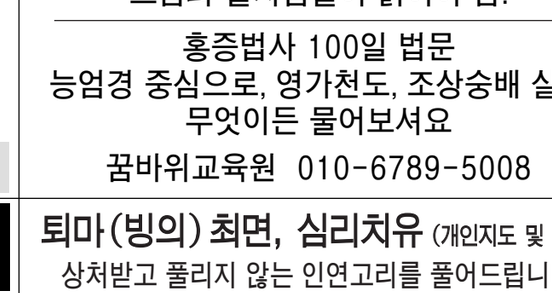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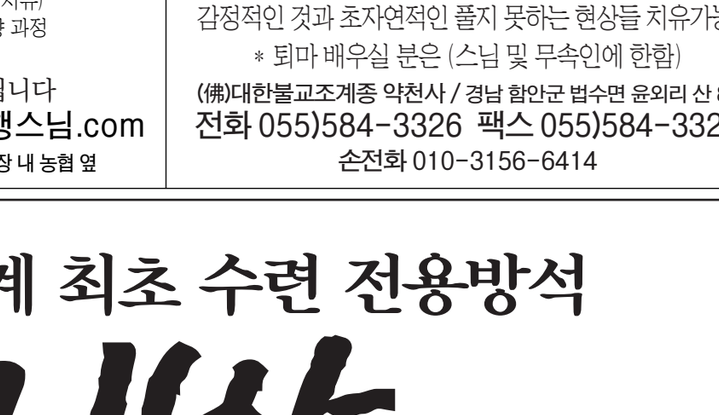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언제나 깨어 있어 잘 깨닫는 그는 부처님의 제자다.
낮이나 밤이나 자비를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자비를 즐긴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시내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 전망
- 총부지 : 5,000여평
- 주거지역 800여평
- 자연녹지 4200여평
- 좋은 조망권 드넓은 사찰부지
- 가액 : 15억원(은행 3억원 포함)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
※전국사찰 30년 역사※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좋은 조건 급사찰 양도
- 시유지포함 1.000㎡, 주차가능
- 양도금액 : 5억2천만원 이나 적은금액으로 인수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심속 사찰
- 57평규모에 1층 요사채, 2층 법당, 마당, 창고, 도시가스 등
- 모든 설비 완비되어 있음
- 인접 시장, 교통 편리
-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가까워 최상의 입지조건 갖추고 있음
- 가액 : 3억1천만원(금액 협의가능)

051)412-0400
010-6768-7220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종교용지:90평
◎ 법당:40평
◎ 요사:40평
◎ 양도가:7억5천
◎ 위치:수도권
◎ 대지:220평
◎ 법당:40평 외
◎ 요사:50평
◎ 양도가: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대구 운영 잘되는 선원(급) 임매
* 법당, 요사채 있음. 단층건물
* 아파트 상가지역,포교에 좋은 사찰
* 보증금 : 6천5백, 월180만원 / 시설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강남 중심지 법당, 포교당임대

- 위치 : 논현역, 신논현역중심가.더블 역세권 지역
-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 3월개통
- 교통편 좋고 유동 인구 많음
- 단독주택, 솟대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마당, 아담한 토굴법당
- 주택내부 올수리(수리비내역서있슴)
- 지상 1층,반지하1층(내부계단있어 편리)
- 법당2/스님방1/거실2/주방2/상담실/산신각/다용도창고/화장실2
- 스님들 행사문제없음. 포교원으로 시작하기 좋은자리
- 가액: 6,500만원, 월세 180만원(주변시세보다 저렴)

010-5913-7239
010-3145-8626(종무소)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월드컵대로변
- 평수 : 50평, 5층 건물중 2층
- 보유내용 : 삼존불, 신중,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 바로입주 가능

010-2485-8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춘천 3,600평 3억 8천
-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 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오류1동 오류역에서 15분거리
- 전체건물 70평인 다세대주택 4층 건물(반지하1층) 301호 법당 사용중 201호, 302호는 요사채 사용
- 법당평수 25평, 오존불
- 가액: 전체건물 8억 (2억 7천 전세놓은 것 있음)

010-7240-92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수십년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요사채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20평, 주차장 넓고 텃밭있음
- 가액 : 전세 7천만원 사글세 3500만원, 총가액 1억 5백만원

010-3556-29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 3층 60평, 삼존불, 삼성각,
- 용왕전
- 방3칸, 공양간, 상담실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 월70만
-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불(20자) 등
- 가액 : 1억 6천만원

- 위치 : 저제 서귀포시 소재
- 부지: 500평(종교용지)
- 법당 : 50평
- 요사채 : 2동 150평
- 가액 : 9억원
- 특징 : 신도구성, 전통 역사를 자랑하는 대가람의 멋진 도량입니다.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 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닦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안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소불30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특징 : 오피스텔 2층 15평, 도심포교당, 지방사찰 서울분실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35만원 시설비 2,500만 합 3,000만원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남로 최고요지 큰 도로변
- 포교원 3층 건물 2층, 넓은 50평
- 화장실 2, 방2, 주방(최고시설)
- 보증금 1,000만원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9279-3628
051-755-2775

암자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평수 : 임야 4,500평(금강송 소나무)
- 특징 : 노적봉이 있는 좌천룡 우백호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기도처
- 교통 : 동해바다와 고속도로 IC 5분거리 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평당 3만원)

010-3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6303-2347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남구 용현 2동 시장 앞
- 평수 48평, 3층 중 3층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1, 화장실
- 버스정류 노선이 많아 교통 편리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7240-9200
011-795-9300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음,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찰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동방향 국도변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주지실1, 경내주차 15대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 7분거리 기치료, 철학, 최고위치
- 가액: 3억 4천만원(1억 8천만 대출포함) 절충가능

010-8846-7090
010-800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선원(암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조건: 대로변 단독 단층
- 법당1, 방3, 주방1, 실내화장실2 욕실 유
- 울창한 정원 10평 끼고, 마당화단 유
- 도심속 산중같은 암자(약55평)
- 시설비:법당 집기일체, 에어컨3대, 세탁기 김치냉장고, 목각 8층탑 등 (답사후 조건 합 당시 결정)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20만원

011-505-9509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 전 46,384㎡(14,030평) (올 계획관리)
- 얼음골과 관정이 있고 계곡이 있음
- 평창, 인제, 정선 개발촉진지구 구역임
- 가액: 평당 7만원(조절가능) 주인직
- 전에 절에서 연락이 옴

010-3186-6890

기도 도량 최고 청정도량

- 투자하실분
- 매입하실분
- 자세한내용은 전화하세요

010-3938-6595
010-5099-139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117.13㎡
  (2) 2층 건물-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지하수, 난방: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후불탱화,신중,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전원주택 최고조건

연락처 : 010-2185-3131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마산시내 중심 포교원

- 위치 : 마산
- 별도의 수리없이 바로 법회 가능
- 법당 50평, 삼존불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9325-7286

사찰(터) 안내

- 안대(지리산이 환히 보임)가 좋은 양지 바른 땅 1605평(답) 급 양도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2, 623번
- 지적도상 맹지, 2차선 도로와 약 50m 떨어짐
- 독립된 공간, 근경에 저수지, 폭포 쏟아진 바위
- 50년 넘은 소나무로 둘러 쌓여 있음 가격은 상담 후 절충

010-3519-5939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밑 사찰
- 주택(임법당) 77평, 방 5개
- 화장실 2,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466-770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
- 평수 : 60평
- 법당, 친견실, 공양간 등 예쁘게 꾸며져 있슴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
- 초대형 극장식 간판, 미니 실내정원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전세로 조절 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0-8616-5733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5〉 자아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가

“주어진 순간을 ‘자기’ 체험으로 만드세요”

엄마를 잃은 아기

불교문화에서 파타차라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 붓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붓다 어머니의 죽음이 붓다 가르침의 핵심인 무상, 비결정성, 고(苦)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붓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도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서 그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극히 적다. 불교를 깊이 공부한 나 역시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붓다의 어머니는 붓다의 삶이 시작하는 바로 거기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붓다의 삶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런 흥미로운 무관심이야말로 붓다의 일생은 트라우마에 기반을 둔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무상의 진리에 익숙한 문화권에서도 고통을 해리(dissociation; 인격이 파편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 충격을 받은 일부 자아는 전체 자아의 생존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영원히 멈춰진 상태로 일정한 심리 공간에 보내진다. 그것은 봉쇄, 분리, 차단되어 침묵 속에 던져진다. 그 자아가 받은 견딜 수 없는 상처는 본질적으로 트라우마를 받은 당사자가 다스리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넘어 서고 있다. 자아는 계속 잘 기능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잘라내고, 트라우마가 주는 불안을 해리시킨다.) 하려는 욕구는 아주 강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영적 여행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붓다의 인생 초기 체험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트라우마를 바로 꿰뚫어 보아야 한다.

붓다 삶의 밑바닥에 트라우마가 흐르고, 그 흐름이 붓다 일생의 핵심을 이룬다는 나의 주장에 모든 불교인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격심한 감정의 고통과 거리를 두고 초연해지기 위해 명상 수행에 입문한다. 명상을 마음이 편안하고 맑아지는 방법, 일상의 번잡함과 혼란에서 자신을 멀리 떼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원초적 고통을 상기하거나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나머지, 회피하고 묻어버린 상실감을 파헤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붓다를 힘든 감정을 정복한 사람으로 바라볼 뿐,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심지어 붓다조차도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서 도망가고자 했다.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 사조에 동조하던 붓다는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의 존재는 편안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해탈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붓다가 이런 관점을 버렸다는 사실을 독실한 불교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작 그것이야말로 붓다 깨달음의 근본인데 말이다.

불교계에서 붓다 일생의 핵심 요소인 상실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과 붓다가 자신에게서 도망가고자 애쓴 상황은, 내 관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된다. 이 둘은 모두 해리라는 심리방어를 드러낸다. 이 방어는 바로 붓다의 가르침에서 논박하는 대상이다. 해리에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은 밀봉되어 나머지 자아와 분리된다. 당사자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지만, 어려운 감정을 해리하고, 트라우마에서 등을 돌리고,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힘든 감정을 다른 곳에 밀어 넣어버린다.

해리에는 아무런 자아 성찰이 없다. 트라우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자아의 일부분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게 숨겨버린다. 그래서, 정서적 충격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 충격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그것은 얼어붙은 상태로, 일상적인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살아 있다. 그 상처는 결코 심리적으로 소화되지도 않고, 상징화나 이미지화되지도 않으며, 사고나 언어로 처리되지도 않는다. 또 결코 느껴지지도 않는다. 심리학자 하비 L. 슈바르츠가 1994년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음은 고통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버린다.

과거 천년 동안 불교 문헌에서 붓다의 상실감과 그에 동반한 해리 경향을 보여주는 실례가 몇 개 있다. 그중 붓다의 탄생 설화가 유명하다. 출생 후 바로 북쪽으로 일곱 걸음을 옮겼다는 아기 붓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에서는 붓다의 무력했던 유아기를 손쉽게 건너뛴다. 마치 붓다와 마야 부인이 그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붓다에게 그 시기의 영아기가 없는 것처럼 해리되었다. 붓다는 바로 두세 살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걷고 말하고 생각했다. 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의식하는 듯 묘사된다. 이 설화에서 붓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주 사소에 보인다.

붓다의 유아기 묘사에서는 한 문화의 방어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아기가 어렴풋하게라도 기억하는 엄마를 잃은 충격을 표현하기보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완전히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다. 아기 붓다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추어올리고 우렁차게 자신의 전능함을 알린다. 내가 이 이미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설화가 함축하는 숨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설화를 접하고서 나는 내 정신치료 담당자이자 내게 게슈탈트 치료를 가르쳐준 이사도르 프롬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치료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걷는 모습만 보아도 그 환자의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서기나 걷기를 재촉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엉덩이뼈는 성인보다 아주 약하고 돌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붙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를 억지로 세우고 걷게 하는 부모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직립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한 셈이 된다.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그 결과 몸이 준비됐을 때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뭔가 안정되지 못한 내면의 불안정감이 그런 순종하는 인격의 소유자에게 늘 붙어 다닌다. 이런 사람은 종종 내적 확신이 부족하다.



보리수나무 아래의 마야부인과 아기 싯다르타 태자.

붓다는 감정을 정복 한 것이 아닌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깨친 ‘각자’ 증오심과 부정된 자아를 소화해야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어

살아남기 위해 붓다가 한 것

우리는 이제 ‘소외’와 ‘해리’ 같은 단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시대에 이 개념들은 추론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충분히 인식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심리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이 그런 현상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타마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떠올려, 짧은 시간에라도 그것을 다시 체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붓다의 임무는 파타차라와 달랐다. 파타차라는 성인이 되어서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을 되찾았을 때 자기가 겪은 사랑의 감정과 비통함을 다시 불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붓다의 상실은 말도 못하는 영아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영적인 여행을 모두 끝내기 전, 붓다는 자기의 자아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다시 의식으로 불러들여 처음으로 체험하고 다르게 소화해야 했다. 어린 고타마가 견딘 분열을 치료해야만 했다. 붓다는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내 자기 한테 적용해야 했다. 발달 트라우마 전문가 필립 브롬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면의 대상 세계에 사로잡힌 고통이 아무리 크고, 그것을 부수고 나와 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절박해도, 이미 형성돼 있는 증오되고 부정된 자아 부분과 직면해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삶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아에서 증오되고 부정된 부분은 초기 대상과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다.”

정신분석가들은 아기와 양육자 사이의 초기 애착관계를 언급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대신 ‘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는 그 이유를 아기가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의 전부가 아닌 젖가슴과 같은 대상 및 수유, 안아주기, 달래주기 같은 기능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기는 이런 대상이나 기능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트라우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기는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리적, 본능적 욕구에 따라 울부짖는다. 이 울부짖음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울부짖음에 반응해 ‘대상’이 주어진다. 이런 대상은 아기의 주관적 체험을 구성한다. 브롬버그는 “내면의 대상 세계에 사로잡힌 고통”이란 표현을 통해, 원초적 고통에의 사로잡힘과 해리된 트라우마가 마음에 주는 긴장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붓다의 인생이 심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은유적인 언어로 기록됐지만, 잘 살펴보면 그 아래에는 이와 유사한 심리 과정이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붓다는 ‘증오되고 부정된 자아의 부분’을 완전히 소화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게’ 됐다. 이런 증오되고 부정된 자아의 부분은 붓다의 생애 초기에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붓다는 해리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이미 해리를 다루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 결과 자기의 불성을 일깨우고, ‘상실된 어머니’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다.

오늘날의 정신치료사는 트라우마가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기술하는 단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고통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가 ‘해리’고, 해리의 일차적 동기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잘 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자아의 유일한 선택은 위협적인 외부 자극에서 자신을 분리해내고,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내 친구 하나는 부모가 모두 알코올 중독자에 성격이 난폭했다. 그 친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여념이 없었다. 친구 부모는 항상 심하게 언쟁하고 가구를 부수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겁먹고 위축돼 형제들과 함께 침대 밑으로 숨었다. 어른이 된 친구는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분노나 공포감을 보이지 않았다. 대단한 능력자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30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격심해졌다. 자기 아이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불안이었다.

이런 해리 능력은 우리의 생존 기법이다. 이 기법 덕분에 우리 삶은 어정쩡하게나마 전진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준 쇼크는 눌린 스프링처럼 의식 너머에 자리 잡는다. 이 감정은 본질적으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감정은 결코 꼼꼼히 관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방치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아는 트라우마가 끼친 영향을 통합하지 못하고, 감내할 수 없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 자아의 활동력은 상당히 제한받는다. “이미 일어난 것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해리라는 방어 기제는 자아를 상호 소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열시킨다. 브롬버그는 말한다. “이런 해리 방어는 인격발달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길러지는 것을 막고, 인격을 상대적으로 분열된 상태의 과잉보호된 부분적 자아들이 모여 있는 형국으로 만든다. 각각 제 나름의 진실과 현실을 부여잡고 있는 부분적인 자아들은 필요한 경우 ‘자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의 다른 면에서 입력되는 긍정적인 신호는 차단한다.” 이런 방어 기제가 초래하는 결과 중 하나는, 자아에 감정의 깊이와 융통성이 없다는 점이다. “해리는 정신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리장애를 겪는 이가 주어진 어떤 순간에 ‘자기’ 체험으로 여기지 않는 자아를 소외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해리는 갈등이 불쾌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마음에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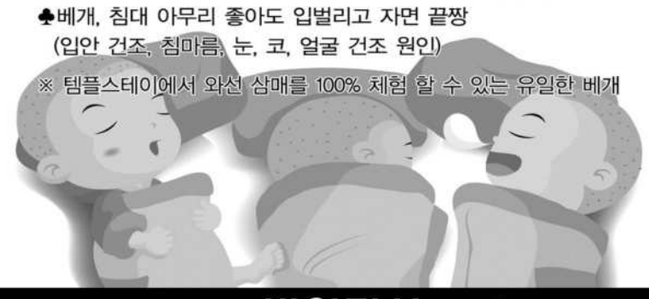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성철 스님은 산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성철스님 ㊦

성철 스님의 진영을 본 사람들은 스님이 마치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것 같다며 특히 피부가 살아있는 듯하다고 감탄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특별한 게 뭐 있겠냐며 웃어넘겼지만 사실, 나는 많은 시간 성철스님을 생각했다. 내겐 법력이 크신 스님을 이리저리 규정하거나 판단할 자격도, 한계를 지어 허물을 남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스님 법문을 열심히 읽고 스님의 생각을 좇아 같은 눈높이에서 스님을 느끼고 싶었다. 진영을 그리기에 앞서 나는 근 한 달을 해인사 부속 암자인 청량사에 머무르며 진영의 초본작업을 했다.

스님은 관절이 좋지 않았다. 한 신도 분께서 관절에 좋다는 짚신풀을 보내왔고 스님은 그것을 퇴설당 앞마당에 옮겨 심은 뒤 애지중지 보살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풀베기 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성철 스님께서 나오셔서 들고 계시던 작대기로 짚신풀 옆에 있던 돌덩이를 가리키셨다. 성장을 더디게 하는 돌을 치우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때 풀베기 울력을 하고 있던 상좌스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돌을 순식간에 들어 짚신풀 위에 내리치듯 내려놓는 바람에 풀이 짓이겨져 못쓰게 됐다. 이를 보던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허공에 눈길을 보내셨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침묵은 스님의 말없는 가르침이었다.

한 번은 상좌스님들이 선림고경총서를 포장을 하고 있을 때였다. 끈을 자르고 동여맬 때 자투리로 남은 끈이 바람에 날아갔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끈을 주워 오시더니 돌돌 말아 상좌스님에게 건넸다. 성철 스님께서는 버리는 끈이라도 재활용해 물자를 아끼자는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상좌스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철 스님께서 건네준 끈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이때도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들어가셨다.

이같은 일화들은 스님의 인상과 맞아 떨어지는 듯했다. 눈에 보이는 형태와 함께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담는 전통초상화의 전신사조(傳神寫照) 개념처럼, 스님에 대한 생각이 정리될 즈음 외형너머의 의미까지도 다가온 것이다.

스님의 얼굴형은 매우 원만한 형태다. 또한 머리는 흰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로 항상 푸르스름한 빛깔이 감돌았다. 눈은 크고 뚜렷해 빛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확신에 찬 인상이었다. 스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똑바로 보셨으며, 말없이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기도 했다. 때문에 스님과 대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의 눈동자가 뇌리에 박힐 정도라고 했다. 나는 이것이 그분의 강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다. 스님의 눈썹은 검고 숱이 많았으며, 코는 얼굴형과 조화를 이뤄 넉넉한 모습이었다. 입은 언제나 힘주어 꽉 다문 습관 때문인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스님의 입은 건강한 치아 덕에 위 아래의 선이 정확히 교합돼 있었다. 또 스님이 정좌한 모습에는 빈틈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흡사 산을 옮겨 놓은 모습이라 표현해도 부족할 것이다. 다들 스님 앞에 있으면 법력에 눌려 위압감을 느낄 정도라 한다. 그러나 스님은 신장이 좋지 않으셨고 이 때문에 스님의 얼굴은 푸석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스님은 병마와 싸우기도 하셨지만 항상 피부는 맑았고 활력이 넘치셨다.

가장 큰 과제는 정신적 깊이가 얼굴빛으로 형상화될 수 있도록 스님의 피부를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스님의 생가 터를 찾게 됐고, 그분이 태어난 큰 방과 아궁이까지 보게됐다. 그리고 방구들 입구에 세워진 돌 주변에서 붉게 익은 황토 흙을 채취했다. 스님의 생가 터에서 가져온 흙.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맑은 피부를 만든 비밀이었다. 나는 이 안료를 스님의 형상이 그려진 종이의 뒷면에 여러번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해 앞면으로 물감 색이 배어나오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부질감은 물론 스님의 정신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태자리의 흙은 표현 대상자의 얼굴빛을 표현하는데도 의미가 있었지만 거짓말처럼 대상자의 피부색에 가장 부합하기도 했다. 나는 이것을 초상화 기법의 극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려 시대 불화를 그렸던 주요 기법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를 통해 초상화 왕국이란 명성을 얻게 만든 배채법을 응용해 새롭게 구현한 것이다.

초상화 작업을 하며 스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릴 수 없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고 반면에 옷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지워 단순화시켰다. 상충된 요소를 부딪치게 해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런 기법은 초상화의 전통이기도 했지만 특히 스님의 삶을 표현하는데 유효한 것이기도 했다.

스님의 정신적 깊이 표현이 과제
얼굴은 더 그릴 수 없을 때까지
옷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치열하고 검소했던 스님 삶 담아내

이렇게 완성된 초본을 바탕으로 검사 과정을 거쳐 다시 정본 제작에 들어갔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으로서 즉물성을 최소화 시키고 감계(鑑戒) 인물로서 이상화시켜 진영으로서의 의미를 가미했다.

진영이 완성되고 백련암에 모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관람자의 눈빛은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스님의 진영을 보는 이들은 그것이 자신이 아는 스님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를 보기보다 환희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내 마음속에도 성철 스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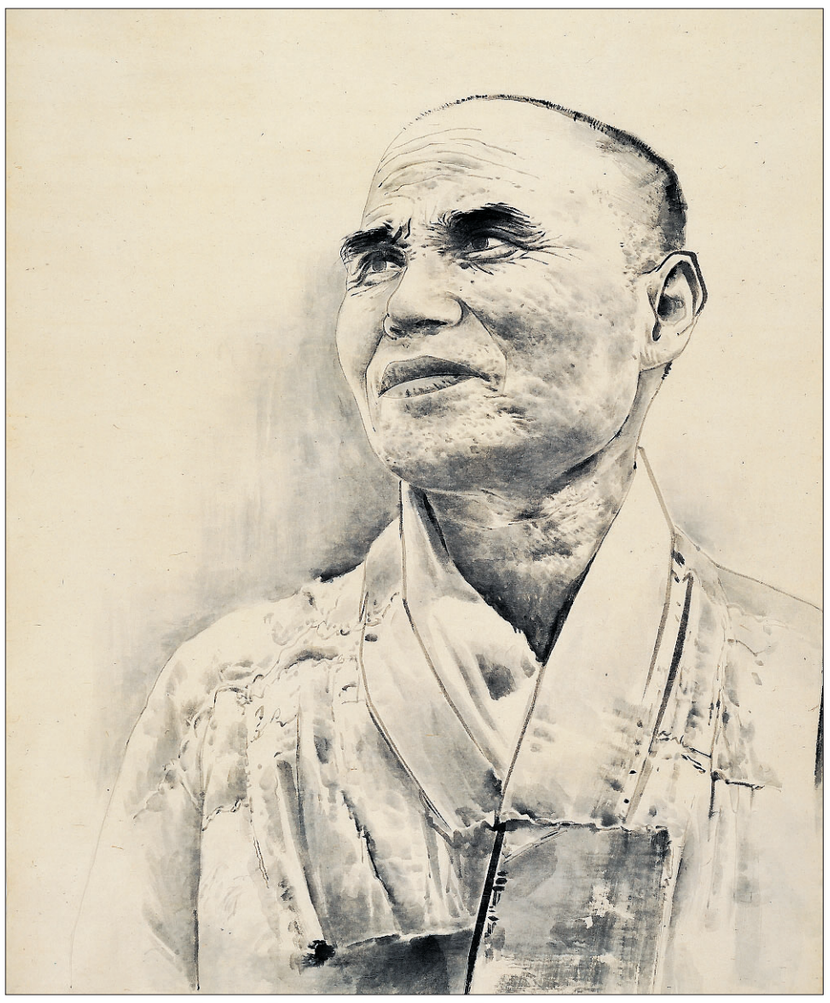
스님의 그림 중 독특한 초상화가 한 점 있다. 이 작품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해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이 작품에 해설을 붙이셨다.

“옷에 덧 씌워진 권위나 허울을 보지 마라. 스님은 가셨어도 스님이 일군 법맥은 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영원이면서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나도 침묵을 깨고 한마디 했다.

“스님께서는 외출 중이십니다.”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공과 평가는 후세의 몫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적을 무위화 하고 단죄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나는 원칙도 소신도 없이 과거 지우기에 급급한 우리 현실을 대통령의 모습에 담아 기록해 놓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없는 초상화 작품은 성철 스님과의 이런 인연으로 탄생한 것이다.



성철스님, 162x128cm, 종이에 수묵, 1994, 해인사 백련암 소장
스님은 장좌불와 수행을 8년동안 했다. 수행을 마친 후 스님은 고행승처럼 빼빼한 모습이었지만 자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산은 산대로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아도 무방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성철스님(유지초본), 86x65.5cm, 종이에 수묵채색, 1994, 개인소장. 작가가 가장 먼저 그린 성철 스님 초상화다. 종이가 황색을 띠는 것은 전통방식 그대로 들기름을 먹였기 때문이다.



성철스님, 223x184cm, 종이에 수묵, 1994, 해인사 백련암 소장



법, 153x95cm, 종이에 수묵, 2012, 작가소장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없는 초상화는 성철 스님 초상화와의 인연으로 탄생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www.hyunbulshop.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주저 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 알아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항상 이날까지 설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서로 응대가 있어야만 알아지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여) 큰스님! 질문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씩 체험이 되는 과정을 시나 글로 적어서 스님에게 몇 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스님께서 "백지 편지를 써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지 편지라는 편지 아닌 편지를 쓰기 위해 저는 한 일 년여를 몸부림을 치면서 참구에 참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어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이지만 나오는 길은 한 길뿐이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으로 경이로움의 세계였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에 정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길이 한 길임을 알고 나면은 무슨 별천지 세계가 벌어질 줄 알았던 그런 희망이 공부를 조금 더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평상심,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그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기고만장한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법회도 조금 빠져먹고 옛날 그림책 구경도 조금조금 하면서 그럭저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원의 스님께서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며 물이 물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이 산이 아닌 도리, 물이 물이 아닌 도리를 참구하기 위하여 두 달여를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구에 참구를 거듭하고 보이지 않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문 아닌 문에 부딪치면서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이길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증조모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지방을 써 가지고 상 위에 탁 올리는 순간 큰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 한 줄기 물방울로 나투어진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옴이요, 파도가 멎어 물방울이 가라앉음이 가는 것인데 그 큰 바다에 하나가 돼 있는 조상을 어느 물이 내 조상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가, 언제까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아,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고정된 관념을 깨면, 증조모님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깨서 절대의 바다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아, 그렇다면 그 절대의 바다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절대의 바다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됨과 동시에 상이 휙 돌려져서 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증조모님을 향하여 절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수저를 올렸던 그쪽의 상이 나에게로 휙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관념적으로 알았던, 이론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것보다 너무나 가슴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 순간 번개같이 번쩍 번쩍 번쩍 그 느낌의 의식들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스쳐 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산이 산이라는 그 관념만 깨고 물이 물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깬다면, 산으로 물이 흐르는 소식과 진흙소가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그 소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스님 말씀이 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회에서 수없이 들었지만 무심코 들어 넘겼던 그 말씀이 그 순간 너무나 아프게 저를 찔러 댔습니다.

큰스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굳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야 하고 대답해야 하는 큰스님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큰스님의 그 말씀, 떠오른 그 말씀이 도저히 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그 절대의 바다마저도 마셔야 하고 마신 것을 토해야 하고, 토한 것을 함께 더불어 먹여 살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절대의 바다까지 오기에도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절대의 바다마저 삼키고 토하고 더불어 먹여 살리라는 그 엄청난 도리를…. 가도 가도 너무나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큰 바다 위에 한 방울의 물로 나투어진 저희들이 현상계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고 갈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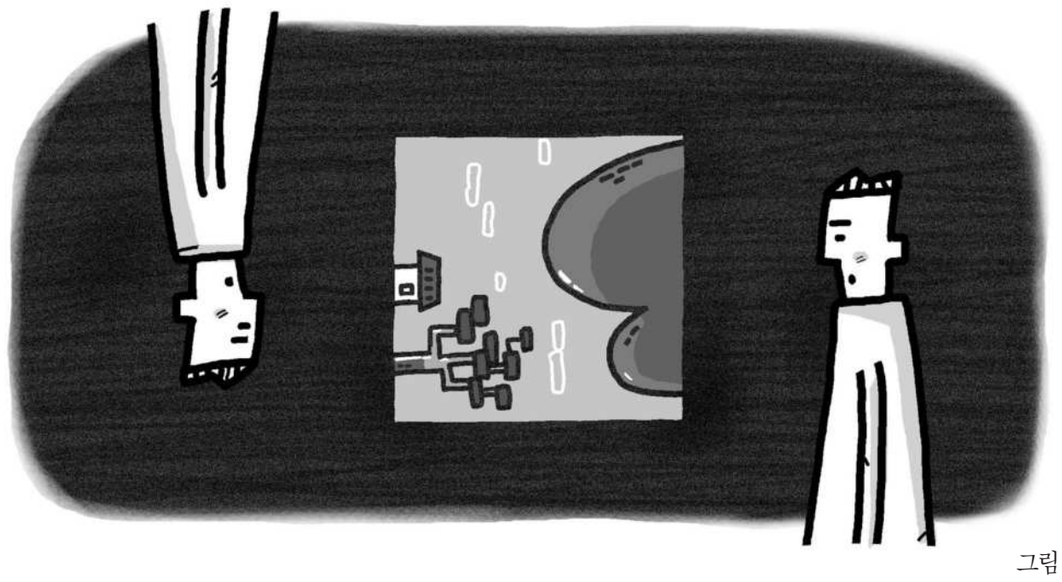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우리는 지금요,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 넘어서서 산다. 우리가 정신이 아니라면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 언덕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툰다.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생활을 한다. 걸어오는 발자취가 앞으로 걷지 않았으니깐 없고 뒤는 자꾸 가니깐 없고, 현재에도 공해서 떠벅떠벅 떼어 놓고 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아까 말마따나 '물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은 아주 족한 것을….'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또 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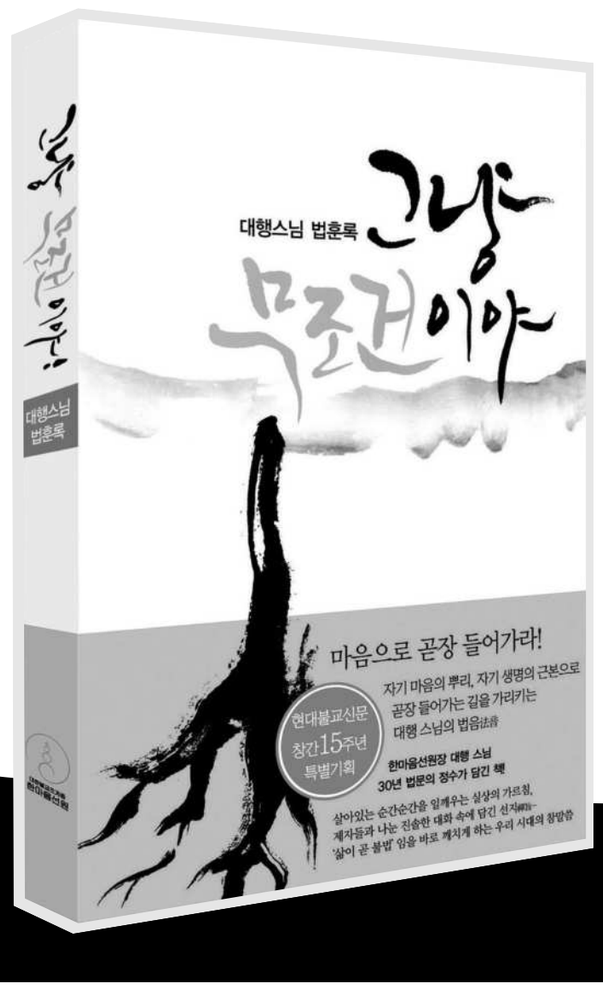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애쓰고 가는 이 마당에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또 천차만별의 만 가지 일을 연구를 한다 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해서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연구해서 되고 어떤 거는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다. 왜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도, 하다 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물 한 방울조차 돼 봤던 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에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솟아오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을,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써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다, 천차만별의 가지가 가지가지마다 거기에서 풀리고 나온다.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남들이 다 알게 하는 어떤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서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정수에 컴퓨터로, 자동적인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든지 능히 주어지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넘어서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도 알아야 된다. 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깊은 물 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우주법계를 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거를 그냥 굴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모두가 전체, 바로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합류화돼서 돌아간다는 수레와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오신을 다 한데 합친 통을 굴려서 마음대로 적응하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연구해서 내놓을 줄 알았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건당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도, 이 우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하라!

☞ 29면에서 계속

삼라만상에도 생명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당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꽃꽂이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어떤 거사님은 화엄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거대한 불바퀴를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그 불바퀴가 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색깔로 나투어진 그 큰 하나의 나툼, 그 어마어마한 나툼의 도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보는 차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큰스님께 무시이래로 물 한 방울도 보태짐도 줄어짐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언어도단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의 나툼이 굳이 우리 현상계로 생각을 한다면, 감도 있으며 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아무 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무한한 작용으로 저렇게 나툼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성품의 묘한 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댁이 알아듣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먹어 봐라 하는 뜻이죠. 즉 말하자면 보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잘해요. '물이 컵으로 하나 가득 들어 있으니 이거를 먹어 봐라.' 하고선 말들은 잘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 먹고 갖다 먹일 줄은 모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났다는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못난 거든지 잘난 거든지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다 다복하게 인연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했다면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십여 년을 노고를 했다 이거야. 그게 점수야. 면벽을 하는 것도 그냥 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천지에서 내가 나를 던질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늘일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그렇게 굴릴 줄 아는 바로 이름 없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살이 지금 그렇게 안다면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해라. 말만 앞세우지 말라. 알았으면 해 봐라.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봐라. 뛸 줄 알면 날아 봐라. 날아 보면 두루 돌아 봐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났다 잘났다, 여자다 남자다 이걸 떠나서, 권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마음공부니까, 하여튼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질문자2(남) 스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스님 뒤에 계시는 불상이 보기 좋아 선원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 선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더디더라 그거예요. 왜? 모습과 상은 분명히 내 생각을 만드는 것뿐이고, 마음을 밝혀 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법문을 되뇌다 보니 '모든 것을 눈 뜨고 보는 것 이전에 마음을 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계속 마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계시는 부처님 상과 앞에 계시는 스님의 모습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스님과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부처님이 생각이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스님과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계속 공양하다 보니 더불어 제 마음 또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제 상(相)을 떼는 그런 모습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제 모습이 잘못됐다면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모습을 또한 무시해도 안 되죠. 허허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이 모습도 있어야 바로 상대성의 이론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무효고, 또 몸이 만약에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무효다. 정신만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니 무효다 이 소리예요. 또 정신이 없으면 몸이 송장이 되니깐 무효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끔 이렇게 움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 가지를 들이고 내서 만 가지를 연구할 수 있고, 만 가지라는 숫자보다도 천차만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가 한 가지를 연구한다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만 가지 천 가지 천차만별로 다 할 줄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 도가니 속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도 몸뚱이 체 안에 딱 갇혀서 마음이 벗어날 줄을 몰라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말입니다. 아파트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 놨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 놨는데 넓게 보이게끔, 나무도 넓게 선 것대로 그렇게 잘 그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았는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철철 물 흐르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우죽같이 들어서고 푸르르고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할 수 없는 일도 내 마음이 나를 수만 개로, 큰 일에는 수만 개를 내놓고 작은 일에는 조금, 거기 용도에 따라서 좀 던져 봐라 이 소립니다. 이 몸 안에서 옴쭉을 못하는 마음을 좀 툭툭 던져 봐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병원에 가서 무엇을 잘라 내는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자를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서 고가 있으며 뭐가 남아서 업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나무가 우거진 그림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개천이 있고 배 한 척이 있고 그렇더래요, 그림에. 그래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앉았었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다하고 나서 깨우더래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못하리까 하는 소리예요. 무엇인들 못하리까. 이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리까. 분리가 됐다가 같이 했다가 하면서도 그냥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많아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 꺼내서 쓸 때에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큰 군사를 일으켜도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과학자들하고는 정반대의 크나큰 부처님의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지금 내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한 도리가 돼서 사람들이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디 서 있는 사람인지. 하치않은 스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가지각색으로 나투는 까닭에 어떤 거라고, 위에 앉았다 아래 앉았다, 천하다 고귀하다, 지위가 높다 이런 것도 묵살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때로는 아주 속상하고 갇혀 있으면 '아! 새처럼 좀 날아가 봤으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로이 날아다닐 거다 날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 구족하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걸음을 걸어서 올라왔는데 걸어옴이 없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걸어오는 사이가 없이 걸어왔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면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당시 없어지는데 뭣이 걸어온 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서 고가 있으며 뭐가 남아서 업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만, 아주 정말 시쳇말로 점프를 해서 내가 응용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벗어나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천을 해 보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전자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알아듣질 못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벗어나서 던져 봐라.' 이래도 알아들으실 수 있죠? 허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름에 무척 무더워서 목욕을 좀 해야 할 텐데 바다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땀이 다 걷힙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날 고가 많고 업이 많고 팔자 운명이 있어서 만날 아프게 울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여북하면 '고는 없다' 이랬겠습니까? 사실은 고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일거수일투족 살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 없어지듯 하거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딴 거 또 봐야 하고, 들으면 딴 거 들어야 하고, 이렇게 고정된 게 없이 자꾸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을 게 뭐 있어서 고라고 합니까?

고라고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어서 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자 운명이라는 소리도 여러분이 지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를 굴릴 줄만 안다면 내 팔자야 할 것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것도 없죠, 내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겠지.' 하면은요. 하지만 나 아님이 없는데 딱 나로만 생각한다면 허, 조금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왜 못합니까? 왜 도가니 속에서 찌들려서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벗겨 내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러겠죠. 마음을 던질 줄 알고 마음을 벗어나게 할 줄 안다면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그것이 모두 뭡니까?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서 자기 몸을 이끌어 가면서 이 모두를 행하면 함이 없이 생활을 하니 고가 없고 세상에 남이 뭐래도, 이 천지를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를 늘여야 할 텐데 늘일 수가 없거든요. 옛날이야기 책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 모릅니다만 '박씨 부인전' 이라던가 뭐, 예전에 얻어들은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초당에 죽 둘러서 노간주나무를 심었죠.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군사로 다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딴 사람이 볼 때는 환상이지만 그냥 기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물러가더랍니다. 이게 방편 아닌 방편이다 이 소립니다. 책에 방편이라고 해 놓고도 방편 아닌 방편 이렇게 썼죠. 실천을 하면서도 그게 방편이고 방편이면서도 실천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수가 없이 크죠. 마음이라는 그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크죠. 그러나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작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일체 허공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산하대지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마음을 한데 합쳐서 좁쌀 알갱이에다가 전부 넣어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꺼내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풀어 놔도, 좁쌀 알갱이에서 다 꺼내서 풀어 놔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도립니다. 이런데 생활에서 좀 굴려서 쓰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 마음 하나를 딱딱 굴릴 줄 몰라서 그냥 벌어지는 일 다 벌어지게 하고 죽을 맛이 나 가지곤 나 죽겠느니 살겠느니 한단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얀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4박 6일
출발일 : 3월 11일. 3월 21일
● 대만 3대 사찰순례 5일
● 대한항공 직항 부탄 / 네팔 8일
● (초특급 + 3대옵션 포함) 방콕/파타야 5일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출발일 : 2월16,27,3월17

[3대성지 순례]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2월10,25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출발일:2월12일

하와이 5일 매주 출발가능
동유럽 3개국 9일 매주 출발가능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불자 세상보기

보육교사와 '꽃에 물주기' 연수교육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인천어린이집 영 · 유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울음을 그치지 않은 22개월 남아의 입에 휴지를 넣는 어린이집 원장, 한글공부와 선긋기를 제대로 못해 훈계차원에서 주먹으로 유아를 때린 보육교사의 태도는 상식을 초월한 아동학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연령이 어린 영 · 유아기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은 아동의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문제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4년제~3년제 대학의 유아 · 아동관련학과 졸업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립 기관에서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사설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수업만 받고 보육실습을 거쳐 2,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더욱 교사자질에 대한 많은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장경험과 승급교육을 통해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자의 60.9%가 사이버대학과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양성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경우, 교사자질 양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와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온라인 자격증제도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심도있게 논의해보아야 한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 · 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화로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 잘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자신과 아이들에게 좀 더 이해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재교육으로 명상수행으로 진행하는 교사인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교사들은 마음속에 내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꾸준히 자기 수행 정진해야 하며,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기쁨, 행복, 자유, 선한 에너지, 웃음, 친절, 배려, 사랑, 자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 사랑, 자비를 키우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 영 · 유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교사도 자신의 근무지인 어린이집을 생각할 때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틱낫한 스님은 마음 밭에 있는 연민과 자비심이라는 '꽃에 물주기'를 통해서 분노, 질투, 잘못된 인식이라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흡 알아차리기 수행이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며,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사들은 자신이 지닌 따스한 능력과 상상력을 발견하고, 아동들이 가진 재능과 상상력을 더해 교실을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알아차림 명상은 교사들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때 알아차림 명상 수련은 마음속의 즐거움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기쁨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 알아차림 명상으로 마음속에 자유와 자비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알아차림 명상을 필수적인 인성교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알아차림이 스트레스와 불안, 적대감 등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평화, 자신감,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간단한 알아차림 호흡명상과 걷기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마음 속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지난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특수분야교원직연수로 실시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명상으로 마음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간단한 알아차림 호흡명상, 걷기명상과 자연명상과 함께하는 예술놀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 속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승려복지 원만 시행 기대

조계종이 종단 핵심과제인 '승려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입원 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대상은 65세 이상 무소임 · 무소득 스님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종단 스님에게로 수혜가 확대됐고 지원 인원은 8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오는 4월부터 지원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률은 95% 정도로, 이 중 50~60%가 교구나 사찰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이뤄진다. 현재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8%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려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가입율을 높이고 노후 안정제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승보공양 등을 통해 모은 승려복지기금은 20억 원 가량. 하지만 올해 예산에만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승보공양운동을 통해 정기적 후원자가 15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8000여 스님들의 복지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운동이 신행과 접목해 추진될 수 있도록 출가열반주간과 백중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있는 모금 캠페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했던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점은 승려복지의 중요한 의미이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단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사찰 합동차례와 바뀌는 명절 문화

젊은 세대의 맞벌이 문화와 명절을 여가생활로 즐기는 문화가 겹치며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용적인 것인지 옛 것의 홀대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지역 사찰에서는 설 합동차례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서울 조계사의 경우 설 합동차례 동참가정이 2012년 719가구에서 2013년 776가구, 2014년 847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도 2012년 2253가구에서 2013년 2456가구, 2014년 2667가구로 증가했다.

봉은사의 경우 늘어난 합동차례 인원으로 2014년부터는 설 당일날 3차에 걸쳐 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 역시 "차례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 같은 풍속도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경우 천태종 삼광사는 2013년 극락전 불사 이후 설 합동차례 인원이 매년 40%가량 늘고 있다. 조상 위패를 모신 원찰 개념이 강해지며 귀향객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찰 차례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나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고 소외받는 이를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지 사찰이 명정 차례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찰은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 역시 단순히 합동차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가와 재가, 가족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새로운 명절 신행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차례와 함께 통알과 성불도 놀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언대

이기영 박사의 '보살불교' 거듭나길

한불연 '신불운동'에 환영



김광렬
前 성덕여중 교장

40년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의 신불교운동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창립자인 불연 이기영 박사와의 인연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에서 교사불자회 연수가 진행됐는데 그때 인연을 처음 맺었다. 당시 불연 이기영 박사는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야 불자 의식이 바뀐다'며 구도회 창립을 하였다. 이후 교사불자회를 중심으로 구도회가 결성돼 매주 토요일 법회를 하고 공동수행을 해오는 등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당시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조직이던지 세월의 흐름을 비켜갈 순 없다. 구도회 또한 고령화로 인해 예전의 활동력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일 수록, 오래된 조직일수록 저력이 있기 마련이다. 구도회를 비롯해 문수회 등 봉사조직을 확충하고 청년불자들을 영입한다면 활동력이 제고될 것이다.

수십년간 수행을 해보니 재가불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곳은 수행장소다. 출가자들은 사찰이라는 수행장소가 있지만 재가자들은 딱히 결집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연구원이 유마정사 등 수행장소를 열린공간으로 전환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는 기복불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신불교운동을 계기로 재가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때인 것이다.

"500억 혈세들여 남는건 자연훼손 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이병인
조계종 환경위 부위원장

울산시와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재추진 사업은 지역발전이란 환상을 내세워 자연보호지역을 개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 신불산은 자연공원이면서 백두대간 낙동정맥이 지나는 곳이다. 2개의 보호지가 겹치는 지역이며 케이블카 노선의 중간지주와 보조지주가 들어설 구간의 녹지자연도는 8,9 등급으로 환경법 기준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다. 그러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를 개발이 가능한 7등급으로 축소 평가해버렸다. 자본 논리를 앞세워 사업당사자와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이미 신불산 정상은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정상 옆에는 습지가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무분별한 자연훼손의 본보기가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신불산 지역은 강한 바람과 돌풍으로 캐빈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일부 구간은 산림 및 소방헬기가 운행하지 않을 정도다.

하루 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 및 경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이 진행된다면 부실한 개발 논리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지자체는 관광수익을 내세우고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는 환경보존을 주장한다. 타협점은 기존 등산로를 정비해서 자연친화적 산업관광으로 바꾸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공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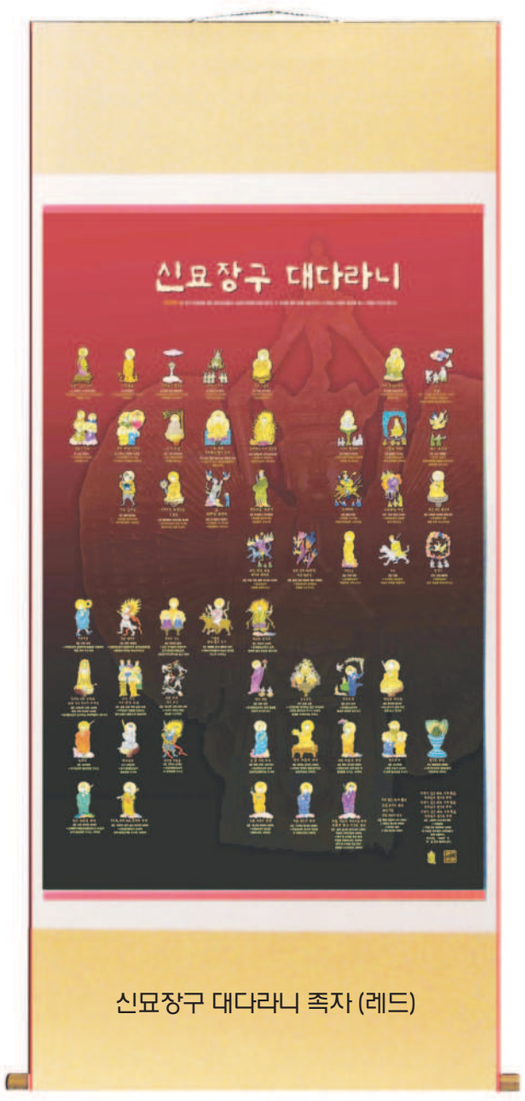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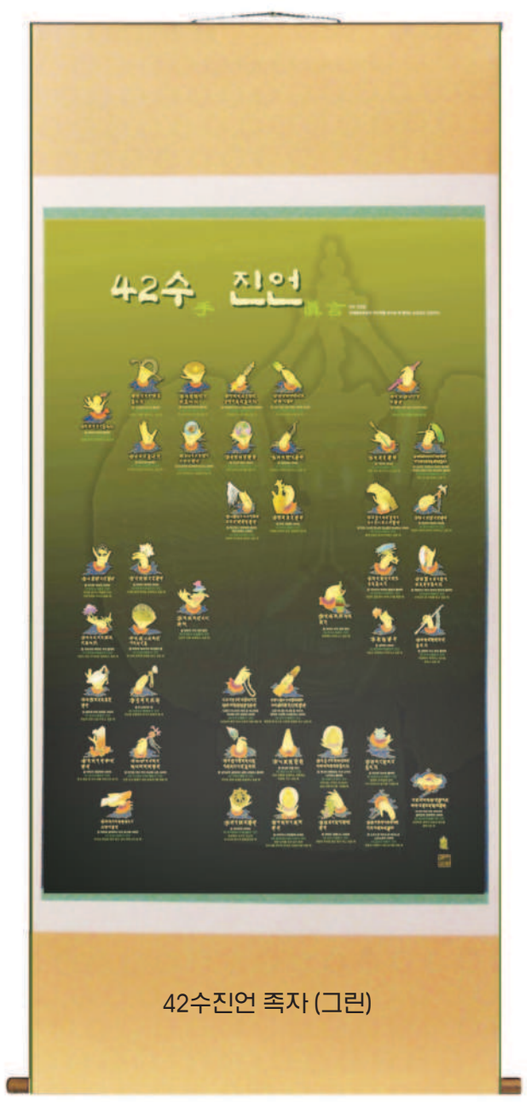
2015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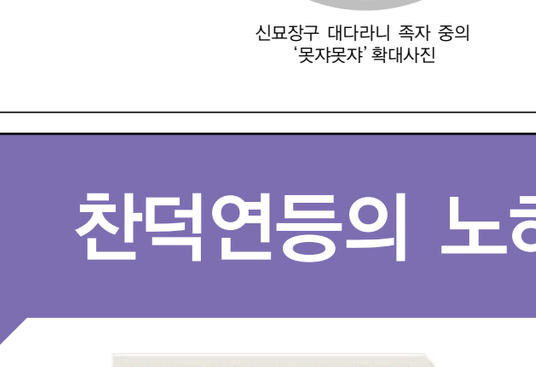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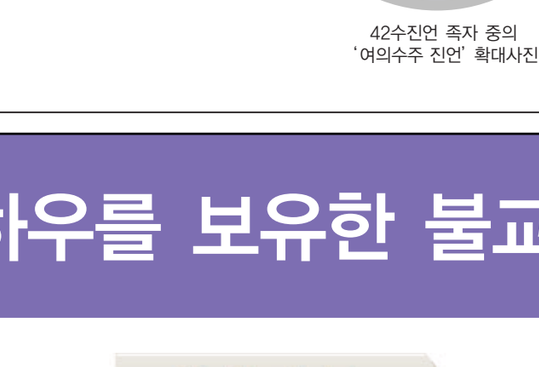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1 사찰 직거래 ➡ 착한가격
2 공장직영
3 철저한 품질 관리
4 다량주문시 할인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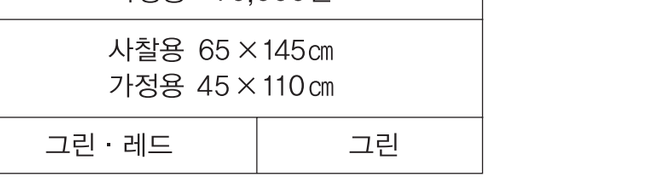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발신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